

이 책에 실린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2000년 기본연구과제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2000. 12.

(산업경제팀 : 한 무 호)

차 례

제1장 서 론	1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의의	4
제1절 외국인투자의 개념 및 동기	4
1. 외국인투자의 개념	4
2. 외국인투자의 동기	5
제2절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형	7
제3절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8
1. 경제성장효과	9
2. 고용창출 효과	14
3. 국제수지효과	17
4. 시장경쟁 촉진을 통한 후생증대효과	20
5. 기술이전효과	22
6.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의 사례	23
제4절 외국인투자 관련법령	26
제3장 우리 나라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33
제1절 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	33
1. 외국인 직접투자의 총규모	33
2. 산업별 현황	34
3. 투자유형 및 규모별 현황	36
4. 국가별 현황	37
5. 국가별 · 산업별 현황	39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제2절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유치 여건 및 문제점	40
1.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40
2. 외국인투자정책	45
3. 외국인투자 유치환경	53
4. 외국인투자 유치·관리체계의 문제점	54
5. 주요국 외국인투자 정책	57
 제4장 충남지역 투자여건	64
제1절 충남의 경제현황	64
1. 경제활동인구	64
2. 산업현황	66
3. 제조업 현황	67
4. 산업단지 현황	73
5. 충남의 산업진흥 실행계획	80
 제2절 사회간접시설	85
1. 교통현황	85
2. 교통망 확충계획	88
 제3절 산업인력 육성	91
1. 학교 개황	91
2. 공업고등학교	91
3. 전문대학교	92
4. 일반대학교	93
5. 직업훈련기관	94
6. 인력양성기관 확충계획	95
 제4절 충남의 산업발전 잠재력과 제약성	96
1. 발전 잠재력	96

2. 제약점	97
제5장 충남지역 외국인투자 현황	100
제1절 외국인 직접투자와 지역경제	100
제2절 충남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102
1. 시·도별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102
2. 산업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104
3.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	108
4.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활동	110
제3절 외국인투자유치제도	114
1.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114
2.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지원제도	118
3. 외국인투자 유치대상 사업현황	120
제4절 충남 외국인 직접투자의 문제점	120
1. 제도적인 문제점	120
2.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미흡	121
3. 입지여건	121
4. 전담기구 및 인력부족	122
제6장 충남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전략	124
제1절 지역경제의 국제화	124
제2절 지역 산업기반과 연계한 특성산업 육성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126
제3절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기반 조성	127

1.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127
2. 투자자유지역과 외국인 전용공단 조성	128
4. 외국인투자유치 체계 및 제도의 개선	130
제4절 투자유치 홍보활동 강화	137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39
참 고 문 헌	142

표 차 례

[표 2-1] 해외직접투자 요인	6
[표2-2]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동기	6
[표2-3] 세계 직접투자 대비 M&A의 비중	8
[표2-4] 경제성장 요인의 분해	10
[표2-5]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94~'96년)	11
[표2-5] 외투기업의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현황	12
[표2-6] 외국인투자 기업의 고용 현황	15
[표2-7] 제조업 업종별 외투기업의 고용변화 추이	16
[표2-8] 외국인투자 기업과 국내산업의 제조업 업종별 구조변화 추이	17
[표2-9] 외국인투자 현황	18
[표2-10] 외투기업의 업종별 수출입 현황	20
[표2-11] 30대 기업집단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현황	21
[표2-12]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	30
[표3-1] 연도별 투자현황	33
[표3-2] 산업별 투자비중	34
[표3-3] 산업별 현황	35
[표3-4] 투자유형별 현황	36
[표3-5] 투자규모별 현황	37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표3-6] 주요 국별 외국인투자 현황	38
[표3-7] 국별 외국인투자 비중	39
[표3-8] 주요 국별 · 산업별 외국인투자 기업수	40
[표3-9] 상관분석 결과	47
[표3-10] 종전 · 현행 조세감면제도 비교	52
[표3-11] 영국의 주요 투자유치 기구	57
[표3-12] 주요국 외국인투자 지원체제 비교분석	63
[표4-1] 충남의 인구변화 추이	64
[표4-2] 충남의 경제활동인구	65
[표4-3] 학력별 취업구조	65
[표4-4] 지역내 총생산(1995년 불변가격)	66
[표4-5] 충남 제조업체 성장 추이	67
[표4-6] 전국 및 충남 업체별 종사자수	68
[표4-7] 전국 및 충남 업체별 생산액	70
[표4-8] 충남지역의 업종별 입지계수	72
[표4-9] 공영개발 미분양토지 현황(1999)	73
[표4-10] 충청남도의 시·군별 산업단지 분포현황('98)	74
[표4-11] 충청남도의 산업단지 분양현황	75
[표4-12]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상황	76
[표4-13] 지방 및 기타 산업단지 추진상황	76
[표4-14] 조성중인 농공단지 추진상황	77
[표4-15] 생산 및 수출현황	77
[표4-16] 주요 국가산업단지의 분양현황	78
[표4-17] 아시아 대양주 국가별 산업단지 분양가(1995. 3)	79
[표4-18] 충남의 산업진흥계획	82
[표4-19] 산업단지별 중점업종	84
[표4-19] 충남의 교통현황	85
[표4-20] 시 · 군별 교통현황	86
[표4-21] 충청남도 철도시설 현황	86
[표4-22] 충남의 항만 현황('98. 12)	87

차 례

[표4-23] 도로형태별 확충계획(2000~2004)	89
[표4-24] 철도건설계획(추진증인사항 포함)	89
[표4-25] 항만·공항 확충계획	90
[표4-26] 수도권 및 대전·충남의 학교 개황(1998)	91
[표4-27] 공업고등학교<자동차, 전기전자, 석유화학, 화학, 기계>	92
[표4-28] 전문대학(2년제)	93
[표4-29] 일반대학(4년제)	93
[표4-30] '98년도 직업훈련기관 현황	94
[표4-31] 직업훈련기관 인력양성계획(2000~2004년)	95
[표4-32] 충남의 대학 및 전문대학 설립계획	95
[표5-1]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	101
[표5-2] 광역시 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03
[표5-3] 道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03
[표5-4] 전국 및 충남의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104
[표5-4] 충남지역 외국인투자기업 산업별 현황	106
[표5-5] 충남의 유형별 외국인 직접투자	107
[표5-6] 충남의 국가별 외국인 직접투자	107
[표5-7] 충남의 규모별 외국인 직접투자	108
[표5-8] 외국인투자기업 투자비율 현황	108
[표5-9] 충남지역 소재 45개 외국인투자업체	109
[표5-10] 충남의 국제교류 현황	112
[표5-11] 충남 해외사무소의 역할	113

그 림 차 례

[그림1] 외국인투자 절차	41
[그림2] 우리 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치체제	43
[그림3] 우리 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치절차	44
[그림4] 외국인 직접투자와 지역발전	100

제1장 서 론

- 우리 나라는 IMF 금융위기를 계기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회생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수출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2000년 3월 기준으로 외환보유고는 외환위기 발생시보다 9배 이상 증가되어 외환보유고 고갈로 인한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자금유입보다는 산업구조고도화, 경제성장, 고용창출, 수출경쟁력 강화, 낙후지역개발, 산업구조조정 효과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증대됨
- 사용권보다는 소유권을 중시해 온 우리의 문화적 특수성으로 외국인투자는 곧 국부유출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외국인 직접투자는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주식 등 간접투자와는 달리 실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그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며, 그 영향의 크기는 전적으로 투자유치국의 경제여건과 정책에 의해 크게 좌우 됨
- 또한 세계화·정보화·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세계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게 되고, 기업의 부가가치활동이 정보화의 진전으로 공간적으로 재배치되고 있고 기업간 네트워크가 범세계적으로 형성되어 세계 산업구조 및 지역경제활동의 양상이 변화되고 국제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세계의 각국들은 지역차원에서 국제적인 경쟁과 협력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에 각 지자체는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선진기술의 습득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경주하고 있고, 실제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아시아국가들도 기술 및 산업발전과 고용증대를 위한 정책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범국가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음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 그러나 지역경제통합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유럽경제권의 상대적 정체와 동아시아권의 경제력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우리 나라는 환태평양경제권의 중심국가로 유리한 지경학적 입지를 가지고 있으나, ASEAN과 유럽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투자여건의 비교열위로 인해 외국인투자비율은 저조한 실정임
- 특히 충남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 등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중국과의 교역중대로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동시에 수도권이란 거대시장과 과학도시인 대전권의 중간지역으로 우리 나라에서 산업의 지식기반화와 과학기술의 산업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접합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지역임
- 또한 현재 계획 중인 간선도로망, 항만 등이 완공되면 전국이 3시간 이내의 생활권이 될 전망이므로 서해안의 해양자원을 고려할 때 충남은 기업의 입지여건은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 그러나 가시적인 효과만을 추구하는 물리적인 개발정책으로 인해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많은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99년 현재 시·도별 미분양 토지현황을 살펴볼 때 충청남도의 미분양면적은 전국의 미분양면적 3,181.4천평의 22.2%인 707.4천평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 산업용지가 472천평으로 66.7%를 차지하고 있음¹⁾
- 따라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으로부터 밀려오는 환경오염이 심한 굴뚝산업을 수용하는 것보다는 친환경적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외국의 첨단산업의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급변하는 무한경쟁시대에 자본의 부족을 극복하고 지역의 고용창출,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일한 길임
- 충청남도는 2000년 10월말 현재 외자유치 실적은 도가 세운 외자유치 올해 목표액 5억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1) 행정자치부, 2000년 공영개발 추진지침, 2000.

제 1 장 서 론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의 지역경제 여건과 외국인기업의 투자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과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제2장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의의

제1절 외국인투자의 개념 및 동기

1. 외국인투자의 개념

- 외국인투자는 다른 국가에서 기술과 자본을 들여오는 inbound investment를 의미하며 국내기업에 대한 경영통제권의 유무에 따라 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와 간접투자 (international portfolio investment)로 구분됨
- 외국인 직접투자에는 자본뿐만 아니라 제품·기술·특허·경영능력 등과 같은 각종 경영자원의 이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반면에 간접투자는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배당금이나 이자수입 등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함
- 외국인 직접투자라 함은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을 의미함(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한 개인 또는 외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IFC(국제금융공사),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ADB(아시아 개발은행) 등 국제기구,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를 포함하며 대한민국의 국민 중 외국인의 영주권과 이에 준하는 체류허가를 취득한 경우도 외국인의 범위에 포함. 단, 국내에 준영구적으로 체류하는 화교(체류자격 거주(F2))의 투자는 외국인투자대상에서 배제함

제 2 장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의의

- 외국인투자가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주식과 지분을 소유한 외국인을 의미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한 기업, 출자목적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해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을 말함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의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 자본재 : 기계, 기자재, 시설품, 가축, 종자, 수목 등
 -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배당금)
 - 산업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 및 사용에 대한 권리

2. 외국인의 투자동기

- 던닝(Dunning 1980, 1981)에 의하면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이유로는 소유우위, 내부화, 입지우위를 들고 있으며, 다국적기업이 타 기업과 다른 배타적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이를 임대하거나 판매하는 것보다 현지에서 생산하여 내부화하는 경우가 유리하고 이와 같은 경쟁우위를 더욱 활용하기 위해 노동비용 등 생산비용이 저렴한 곳에 직접 투자한다고 하였음
- 외국인 직접투자의 일차적인 동기는 적은 투자로 현지에 생산기지와 판매망을 구축하여 수출효과와 국내시장 진출 공략을 위한 거점마련, 본국에서 한계에 달한 생산시설이나 기술이전을 통한 부품수출과 제3국의 보호무역주의 압력을 우회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 외에 다국적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경제적 동기로는 시장지향적, 천연자원지향적, 생산효율지향적, 전략적 자산 및 능력습득 지향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외에 현지국의 해외투자에 대한 정책, 사업편의 등을 들 수 있음²⁾

2) 대한무역진흥공사, '99 외국인 직접투자 보고서, 1999. 3.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표 2-1] 해외직접투자 요인

정책적 결정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정치적 안정 • 외국인투자기업 관리정책 • 민영화 정책 • FDI 및 무역에 대한 국제협약 가입 등
경제적 결정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지향 • 자원지향 • 생산효율지향 • 전략적 자산 및 능력획득 지향
사업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촉진 활동(이미지 제고 및 홍보활동) • 투자인센티브 제도 • 사회생활편의 제공(외국인학교 설립, 문화수준 및 삶의 질 제고) • 사후 투자관리 서비스 등

자료 : United Nations, World Investment Report, 1998. (대한무역진흥공사, “'99 외국인 직접투자 보고서”로부터 재인용)

- '99년 KISC에서 2,500개의 외국인가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에의 투자동기로 시장규모와 성장가능성이 가장 주된 동기였으며, 국별로 보면 미국, 유럽계 기업은 시장의 성장가능성에 고려한 투자가 이루어진 반면에 일본계 기업은 생산의 효율성과 전략적 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2-2]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동기

구 분	계	업종		국가				투자연도		
		제조업	비제조업	미국	유럽	일본	기타	89년 이전	90-97년	98년 이후
높은 생산효율성	13 (5.6)	13 (9.6)	0 (0.0)	0 (0.0)	2 (2.6)	10 (15.3)	1 (5.3)	7 (8.0)	4 (3.9)	2 (4.5)
시장의 규모와 성장가능성	199 (85.4)	112 (82.4)	87 (89.7)	66 (93.0)	71 (91.0)	48 (73.8)	14 (73.7)	70 (80.5)	90 (88.2)	39 (88.6)
전략적 자원확보	21 (9.0)	11 (8.1)	10 (10.3)	5 (7.0)	5 (6.4)	7 (10.8)	4 (21.0)	10 (11.5)	8 (7.8)	3 (6.8)

자료 : 외국인지원센터, 1999년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활동 애로조사, 1999. 12

제2절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형

- 외국인 직접투자는 소유권의 비율에 따라 단독투자와 합작투자, 외국기업을 매수하여 적극적으로 시장과 기술에 접근하려는 인수·합병(M&A)투자가 있음
- 단독투자는 자회사를 모기업 전략통제의 완전 지배하에 두어 합작투자에서 발생하는 소유권 및 수익배분의 갈등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선택되는 직접투자방식이며, 투자자의 입장에서 단독투자는 현지의 정확한 정보입수, 자금조달 등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많은 비용과 위험을 수반함
- 합작투자는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2개 이상의 합작선들이 특정기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해외사업의 형태이며, 외국인투자가와 국내인의 투자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다수소유(majority owned), 동등소유(co-owned), 소수소유(minority owned)로 구분할 수 있음
 - 다수소유 : 외국인투자가의 소유비율이 51~99%, 경영통제권을 외국인투자가가 지님
 - 동등소유 : 외국과 국내합작선의 소유비율이 50%, 기업경영을 합의에 의해 운영
 - 소수소유 : 외국인투자가의 소유비율이 50%이하, 기업경영의 절대적 권한은 없지만 25%이상인 경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 합작투자의 동기는 외국인투자가 입장에서는 현지국 정부가 제공하는 특혜, 투자자본의 절약, 인적자원의 절약, 경영활동 위험의 절감 등 단독투자시 겪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고, 국내기업의 입장에서는 외국자본과의 협력을 통해 자본력의 증가, 선진기술의 습득, 외자유치에 대한 정부 특혜정책 수혜, 해외마케팅 활동의 촉진 등의 장점을 얻을 수 있음
- 인수합병(Merger&Acquisitions)은 기존 기업이 내적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규사업 참여에 소요되는 기간과 투자비용의 절감, 경영상의 노하우나 숙련된 전문인력 및 기업의 대외적 신용확보 등 경영전략면에서 외적성장을 위한 발전전략임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규모의 경제, 공급과잉 문제에 직면한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M&A형 직접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국경간 M&A는 주로 북미와 유럽지역 기업간에서 이루어졌으나, 최근 미국·유럽 다국적기업들은 외환위기로 주식가치가 하락한 아시아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시도가 증가하고 있고 사업합리화와 구조조정이 시급한 아시아 국가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표2-3] 세계 직접투자 대비 M&A의 비중

(단위 : 억불, %)

구 분	93	94	95	96	97	98
직 접 투 자	2,176	2,430	3,312	3,376	4,005	6,438
국경간 M&A	1,623	1,964	2,372	2,746	3,417	5,443
비 중	74.6	80.8	71.6	81.3	85.3	84.5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9. (대한무역진흥공사, “2000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및 특징” 에서 재인용)

제3절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 외국인 직접투자는 현지국의 자본축적을 늘리고, 기술 및 선진경영기법 이전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세계시장에 대한 진출을 증가시킴으로써 투자유치국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 수준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현지국의 고용창출효과, 기술습득효과, 후생효과, 국제수지효과 등을 가져옴
- 하지만 이와 같은 긍정적 효과들은 투자유치국의 경제여건과 정책에 따라 최대로 발휘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음. 예를 들면, 브라질과 같이 높은 관세장벽을 유지하고 있으면 진출기업들은 독과

제 2 장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의의

점 시장구조에 안주해 버리는 반면 싱가포르와 같이 진출기업에 R&D 지원을 해주고 기술인력을 양성하면 고부가가치 생산경제로 빠르게 도약하게 됨

- 우리 나라는 90년대 들어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의 투자를 증대시키고 기술이전과 무역을 확대하여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없는 외환을 유입해줌으로써 외환수급의 안정화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의 견인차로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있음

1. 경제성장효과

가. 외국인투자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

- 박승록(2000)의 분석에 의하면, 1970~1996년간 부가가치는 8.1%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 중 23.3%인 1.8%가 노동투입, 57.3%인 4.7%가 자본투입, 20.4%인 1.7%가 총 요소생산성에 의해 달성되었음
- 기간별 기여도의 변화추이를 보면 노동투입의 기여도는 감소하는 반면에 자본투입의 기여도와 총 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자본투입의 기여도 중 해외자본투입의 기여도는 1970~1981년에 2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후로 감소하다 1990~1996년에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70~1996년 사이의 부가가치 성장에 대한 해외자본의 기여도는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표2-4] 경제성장 요인의 분해

기간	부가가치	노동투입	자본투입			총요소생산성						
			합계	국내 자본	외국 자본	합계	규모의 경제	가동률	인적 자본	국내 기술	외국 기술	기타
1970~1981	7.5 (100.0)	2.3 (30.4)	4.2 (56.5)	2.7 (36.0)	1.5 (20.5)	1.0 (13.1)	2.3 (30.5)	0.9 (12.4)	0.1 (2.0)	0.9 (11.8)	0.3 (3.8)	-3.5 (-47.3)
1981~1990	9.1 (100.0)	1.7 (18.6)	4.6 (50.9)	3.5 (38.7)	1.1 (12.2)	2.8 (30.5)	1.3 (14.6)	1.3 (14.6)	0.3 (3.7)	1.2 (13.6)	0.2 (2.6)	-1.4 (-15.2)
1990~1996	7.7 (100.0)	1.3 (16.7)	5.11 (66.1)	4.0 (52.3)	1.1 (13.8)	1.3 (17.2)	0.5 (6.8)	0.5 (6.8)	0.4 (4.9)	0.5 (6.9)	0.1 (1.5)	-0.7 (-9.6)
1970~1996	8.1 (100.0)	1.8 (22.3)	4.7 (57.3)	3.4 (41.8)	1.3 (15.5)	1.7 (20.4)	1.6 (19.6)	1.6 (19.6)	0.3 (3.8)	0.9 (10.5)	0.2 (3.0)	-2.2 (-27.0)

주 : ()는 기여도를 나타냄

자료 : 박승록, 「한국경제성장의 국내요인과 해외요인」, 한국경제연구원, 2000.

-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은 94년 6.3조원으로 국내총생산 306조원의 2.07%를 차지하였으며, 96년에는 8.2조원으로 그 비중이 2.11%로 상승하였으며, 그 중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94년에 각각 4.4조원과 1.9조원을 생산하여 국내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5%, 1.15%를 기록하였으며 96년에는 그 비중이 각각 5.57%와 1.21%로 상승하였음
- '94~'96년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여도를 보면, 국내총생산 증가액 84조원 중 외투기업의 생산증가액은 1.9조원으로 총생산 증가액의 2.26%에 해당하며, 동기간에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8.0% 중 외국인 투자기업이 0.18% 포인트 높인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은 제조업에서 6.6%의 생산증가를 가져왔으며 서비스에서는 1.4%를 기록하여 서비스업 보다 제조업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 외국인 직접투자가 제조업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 나라의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 비중은 상당히 낮은 상태임

제 2 장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의의

[표2-5]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94~'96년)

(단위 : 십억원, %)

구 분	외국인투자기업 생산증가액	국내생산 증가액	산업별 기여도	경제성장 기여도
전 산 업	1,893	93,843	2.26	0.18
제 조 업	1,223	18,672	6.55	0.12
민간서비스	684	48,879	1.40	0.07

자료 : 장운중,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민경제적 영향과 향후 정책과제, 1999.

나. 외투기업의 업종별 생산기여도

1) 외투기업의 업종별 생산비중

- 제조업과 서비스업 각각의 세부 업종별로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생산 비중을 살펴보면, 대부분 업종의 경우 1~3%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몇몇 업종의 경우에만 상당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음
- 제조업의 경우 금액기준으로는 기계·전기·전자(7.4%)가 94년에 1.5조원을 기록, 가장 높았으며, 국내 총생산대비 비중기준으로는 화공·석유정제가 8.2%를 기록하여 가장 높았음
- 그 밖에 운송장비는 8천억원 정도 생산해서 5.7%를 기록하였고, 식품과 섬유·의류, 금속제품은 모두 2.7%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제지·목재는 1.7%, 요업은 1.1%의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 서비스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는 가운데 금융·보험·일반서비스가 1.1조원의 부가가치를 올려 1.8%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유통·음식·숙박업(1.4%)이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에 운송, 창고, 통신업과 건설업은 1%에도 못 미치는 낮은 비율을 기록하였음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표2-5] 외투기업의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현황

(단위 : 십억원, %)

구 분	1994년 생산액			1994~1996년간 생산증가액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 총생산	비중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 총생산	업종별 성장기여도1)	전체산업 성장기여도2)
전산업생산	6,335	276,062	2.3	1,893	72,196	2.62	2.62
농 업	52	21,498	0.2	-16	3,047	-0.52	-0.02
광 업	3	1,090	0.3	2	-56	-	-
제조업	4,394	82,137	5.3	1,223	18,672	6.55	1.69
음식료품 및 담배	274	10,077	2.7	94	1,524	6.18	0.13
섬유 및 의류	145	5,304	2.7	42	-873	4.83	0.06
제지 및 목재	77	4,532	1.7	28	654	4.28	0.04
화학·석유 정제	1,281	15,664	8.2	454	4,354	10.43	0.63
요 업	42	3,728	1.1	28	612	4.52	0.04
1차금속제품	175	6,855	2.6	13	1,216	1.03	0.02
기계및전기 전자	1,528	20,753	7.4	655	6,502	10.08	0.91
운송장비	776	13,679	5.7	-78	4,639	-1.68	-0.11
기타제조업	95	1,546	6.1	-13	45	28.88	-0.02
민간서비스	1,855	164,171	1.1	684	48,879	1.40	0.95
건설업	60	41,327	0.1	-26	15,330	-0.17	-0.04
유통,음식·숙 박업	511	35,752	1.4	116	7,908	1.46	0.16
운수,창고및통 신업	152	22,190	0.7	45	6,297	0.71	0.06
금융,보험, 서비스	1,132	64,902	1.8	549	19,343	2.84	0.76

주 : GDP중 공공부문 및 전기 및 가스부문 생산제외

1) 외투기업의 생산증가분 / 각 업종별 생산증가분,

2) 외투기업의 생산증가분 / 전체산업의 생산증가분

자료 : 장윤중,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민경제적 영향과 향후 정책과제, 1999.

- '94~'96년간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산업간 생산증가율을 비교해보면, 화공·석유정제, 기계·전기·전자, 식품, 섬유·의복, 요업, 제지·목재, 금융·보험·일반서비스 등에서 외투기업이 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에 운송장비, 금속제

제 2 장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의의

품, 기타제조업, 건설업 등에서는 국내기업보다 더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유통, 운수·창고 등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94~'96년간 국내 부가가치 생산증가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여도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화공·석유정제와 기계·전기전자는 10% 이상의 높은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식료품이 6.2% 정도의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섬유·의류와 제지·목재, 요업 등은 각각 5%에 약간 못 미치는 비슷한 기여도를 보였으나 '94년의 비중이 3%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여도에 있어서 상당히 증가하였고, 특히 섬유·의류의 경우 국내생산은 감소한 반면에 외국인투자기업은 증가하여 산업 위축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보임
- 운송장비, 기타제조업, 건설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해서 국내산업의 생산증가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금속제품은 저조한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음
-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보험·일반서비스가 2.8%의 상대적으로 높은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유통·음식숙박과 운송·창고·통신부문은 '94년 수준과 비슷한 정도의 기여도만을 달성하고 있음.
- 각 업종이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의 생산증가가 전체산업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보면, 외국인투자 기업의 업종별 비율차이를 반영하였을 때 화공·석유정제, 기계·전기전자, 금융·보험·일반서비스 3개 업종이 각각 30% 전후한 기여도를 기록하고 있고, 그 밖에 유통·음식·숙박업과 음식료품·담배가 각각 5%를 상회하는 기여도를 나타내어 업종간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화공·석유정제, 기계·전기전자, 금융·보험·일반서비스 3대 업종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의 부가가치 생산이 국내생산 증대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고용창출 효과

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현황

- 고용창출효과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산방식, 현지화의 정도, 투자목적 및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노동집약적인 생산거점형 투자의 경우 현지 내수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자본집약적 투자보다 노동창출효과가 클 것이며, 생산품이 그 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품목이라면 고용창출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임
- 직접적인 고용창출효과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과 경영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발생하고, 간접적인 고용창출효과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해 생산된 완제품의 유통·분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방 고용창출효과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중간재, 원자재 등 부품을 고용하는 현지 기업의 고용을 확대시키는 후방고용창출효과로 나눌 수 있음
- 외국인 투자기업은 '94년 현재 16.9만명을 고용하여 총 취업자 1,980만명의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에서는 각각 2.4%, 0.5%를 차지하고 있음
- '94~'96년간의 고용변화를 살펴보면, 국내산업 전체적으로는 92.7만명이 증가하여 4.7%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외국인 투자기업은 1.4만명 증가하여 8.0%의 증가율을 보여 2배 가까운 빠른 속도의 고용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음
-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고용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의 고용은 급증하는 반면 제조업 고용은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중요한 구조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기업이 제조업 부문의 고용감소를 상당부분 완화해주고 있어 고용측면에서는 제조업 공동화를 완충해주는 효과를 보이고 있음

제 2 장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의의

[표2-6]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 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94			'94 ~ '96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 전체	비중	외국인 투자기업의 증가율	내국기업의 증가율
전산업	169	19,837	0.9	14 (8.0)	927 (4.7)
제조업	111	4,695	2.4	7 (6.4)	-18 (-0.4)
서비스업	57	12,403	0.5	7 (12.0)	1,254 (10.1)

주: * 취업자 기준, 서비스업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를 포함

자료: 통계청, 주요경제지표

-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통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업종별 고용현황과 국내산업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94년 기준으로 전기·전자에만 전체 고용의 40%에 가까운 4.1만명이 고용되어 있고 석유정제, 운송장비, 기계 등에 1만명 이상의 인원이 고용되어 외국인투자기업은 업종별로 상당히 편중된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국내산업과 비교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비중이 10%를 상회하는 업종은 화학(14.8%)과 전기·전자(12.3%)이며 평균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는 업종은 석유정제, 기계 등임
- '94~'96년간 5.5만명이 감소한 국내 제조업의 업종별 고용감소 내역을 살펴보면, 섬유·의류에서만 2년간에 총 감소인원을 훨씬 넘는 6.4만명이 감소하였고, 기타제조업에서 1만명, 요업과 금속에서 각각 6천여명과 4천여명, 운송장비에서 2천여명이 감소한 반면에, 전기·전자에서는 2.9만명, 석유정제에서는 5천여명이 증가하는 상반된 현상이 발생하였음
- 이처럼 고용감소가 특정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다른 한편에서는 고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동시에 일어난 것은 동기간에 급격한 구조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내 제조업의 고용감소를 완화해주며 급격한 구조조정에 대한 완충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표2-7] 제조업 업종별 외투기업의 고용변화 추이

(단위 : 명, %)

구 분	외국인 투자기업		제조업 전체		외국인 투자기업 비중(%)	
	'94	'96	'94	'96	'94	'96
제 조 업	110,942	118,083	2,206,429	2,156,206	5.0	5.5
음식료품	7,908	8,052	186,274	185,108	4.2	4.4
섬유및의류	3,846	3,850	404,895	340,595	0.9	1.1
제지및목재	2,345	1,917	64,065	63,979	3.7	3.0
석유정제	2,300	2,583	15,567	16,861	14.8	15.3
화 공	18,110	19,044	250,668	255,804	7.2	7.4
요 업	1,185	1,277	101,366	95,050	1.2	1.3
금 속	4,848	4,819	197,525	193,235	2.5	2.5
기 계	10,492	12,603	160,198	163,499	6.5	7.7
전기및전자	40,989	39,382	332,174	361,383	12.3	10.9
운송용기기	15,573	21,213	345,217	342,809	4.5	6.2
기타제조	3,346	3,344	148,480	137,882	2.3	2.4

자료 : 장윤종,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민경제적 영향과 향후 정책과제”, 자의누리 사이버 강의, 1999.

나. 산업구조의 변화

- '96년 현재 부가가치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산업의 업종별 구조를 비교해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은 석유정제, 화공, 전기·전자, 기계 4개 업종이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반면에 국내기업은 43%를 차지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산업에 비해 현저하게 특화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우리산업의 구조변화는 기계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특화되어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기업은 우리 산업의 방향을 선도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동안 투자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비중이 높아져 투자의 방향이 다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제 2 장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의의

- 이 변화를 국내산업의 수출률과 관련시켜 볼 때,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업종들은 수출지향성이 상당히 약하며, 이는 시장지향적 성격이 강함을 보여줌
- 제지·목재, 요업, 식품, 기계 등의 수출률은 제조업 제품 평균에 훨씬 못 미침

[표2-8]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산업의 제조업 업종별 구조변화 추이

구 분	'96년 업종별 구성비			'94 ~ '96년 증가율			국내산업의 수출률 (1995)
	외투기업 (A)	국내기업 (B)	(A)/(B)	외투기업 (A)	국내기업 (B)	(A)-(B)	
제조업	100.0	100.0	1.00	27.8	19.0	8.8	22.9
음식료품	6.6	6.9	0.95	34.3	20.2	14.1	4.4
섬유및의류	3.3	10.0	0.33	29.0	-3.2	32.3	47.0
제지및목재	1.9	2.9	0.64	36.2	20.3	15.8	7.4
화공	8.6	2.5	3.39	48.4	20.8	27.6	12.8
석유화학	22.3	13.6	1.64	31.1	26.7	4.4	18.8
요업	1.2	4.7	0.27	65.5	14.8	50.7	3.6
금속	3.3	11.1	0.30	7.2	18.0	-10.9	15.2
기계	10.3	6.3	6.3	42.3	7.4	34.9	15.2
전기및전자	28.6	20.0	20.0	43.1	38.9	4.2	47.5
운송용기기	12.4	17.5	17.5	-10.1	18.4	-28.5	25.8
기타제조	1.5	4.4	4.4	-13.5	6.7	-20.3	5.2

자료 : 장운중,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민경제적 영향과 향후 정책과제”, 자의누리 사이버 강의, 1999.

3. 국제수지효과

가. 안정적 외환 확보 효과

- 우리경제는 '97년 중 전년도에 대폭적인 경상적자에 연이어 82억 달러의 적자를 내면서 외환수급의 불안이 가중되었고, 4/4분기에만 100억 달러를 넘는 대규모의 외환이 집중적으로 빠져나가 결국에는 IMF 구제금융이라는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았음

- 금융위기는 총 외채 중 단기외채의 비율이 다른 국가들보다 높고,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이 저조한 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97년 한국의 단기외채의 비율은 58.9%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반면에 순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은 -1.36%로 매우 저조한 상태였음
- '93~'99년간 외국인투자액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93년 외국인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구성비가 15.4%와 84.6%인 반면에 '99년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구성비는 75.0%와 25.0%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율이 급상승하였음

[표2-9] 외국인투자 현황

(단위 : 억달러, %)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누 계
직접투자	10.4 (15.4)	13.2 (40.9)	19.4 (44.4)	32 (41.6)	69.7 (88.9)	88.5 (64.9)	155.4 (75.0)	490.3 (64.1)
간접투자 (외화순유입액)	57 (84.6)	19.1 (59.1)	24.3 (55.6)	44.9 (58.4)	8.7 (11.1)	47.8 (35.1)	51.9 (25.0)	274.4 (35.9)
합 계	67.4	32.3	43.7	76.9	78.4	136.3	207.3	764.7

주 : ()안의 숫자는 구성비임

자료 : KISC

-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유동성이 큰 간접투자 보다 안정적인 외국인 직접투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실제 직접투자는 금년의 외환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 IMF 구제금융 이후 이전과는 달리 외국인 직접투자는 경영권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사업이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이므로, 주식 및 채권에 대한 순수한 금융적 성격의 포트폴리오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

적 외화유입의 중요한 원천으로 자리잡게 되었음

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출입 실적

-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는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 그리고 자본수지 등으로 구분됨
- 무역수지에 대한 효과는 현지시장의 규모나 시장점유율의 변화여부, 중간재의 현지조달 비중, 투자형태에 따라 달라지나 장기적으로는 직접투자에 의한 현지생산은 본국으로부터의 수출을 대체하게 되고, 중간재의 현지조달 비중이 높아지면서 무역수지 개선의 효과가 나타남
- 제3국에 대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거점형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내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직접투자보다 무역수지 개선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외국인 직접투자는 기술도입에 따른 현지기업의 로열티 지급, 이익의 송금, 해외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등에 무역외수지를 악화시킬 수도 있고, 또한 자본유입 증대로 인해 환율이 절상됨으로써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함
- 외국인 투자기업은 일반적으로 국내기업에 비해 수출입성향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에 무역협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96년 수출은 50억 달러로서 전체 수출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은 123억불로서 전체수입의 8.2%를 차지하고 있음
- 무역수지 효과에 관해서는 아직 정설은 없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제3국 수출을 목적으로 진출한 기업들이 많은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출입 실적을 보면 비록 수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수입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표2-10] 외투기업의 업종별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1994			1996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농 립 업	0.1	76.5	-76.4	2.4	138.0	-135.6
광 업	1.6	0.7	1.0	1.8	0.8	1.0
식 품 업	67.3	196.8	-129.5	70.2	225.4	-155.2
섬유및의류	266.4	210.0	56.4	353.4	200.7	152.7
제지및목재	29.6	104.5	-75.0	90.9	138.4	-47.5
화 공	244.5	867.0	-622.6	362.0	1,351.3	-989.3
의 약	33.7	167.4	-133.7	36.0	229.8	-193.8
석유정제	19.1	2,537.1	-2,518.0	46.9	2,776.3	-2,729.3
요 업	15.5	15.3	0.2	14.7	33.5	-18.8
금 속	51.0	65.0	-13.9	49.8	57.1	-7.4
기 계	109.2	430.0	-320.8	126.1	563.1	-437.0
전기및전자	1,899.7	1,977.6	-77.9	2,486.2	2474.0	12.3
운송용기기	35.5	125.4	-89.9	74.4	211.9	-137.5
기타제조업	1.7	3.1	-1.4	2.3	3.2	-0.9
기타서비스	13.2	52.3	-39.1	19.7	60.8	-41.1
소 계 (석유화학제외)	2,769	4,292	-1,523	3,690	5,688	-1,998
합 계	2,788.2	6,828.7	-4,040.5	3,736.8	8,464.3	-4,727.6

자료 : 장윤중,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민경제적 영향과 향후 정책과제”, 자의누리 사이버 강의, 1999.

4. 시장경쟁 촉진을 통한 후생증대효과

- 외국인 직접투자는 현지국의 시장 경쟁을 활성화시켜 경제구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외국인투자의 자유화는 잠재적 시장진입자의 압묵적 압력에 의해 현지시장의 독과점구조를 방지하여 경쟁제고 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가격을 하락시킴으로써 소비자후생의 증대효과를 가져옴
- 우리 나라 30대 기업집단의 독과점시장 지배 현황을 살펴보면, 총 128개 품목중 85개 품목을 독과점하고 있으며, 총 311개 사업자 중 172개사가 30대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고, 상위 5대 기업집단이 30대 기업집단의 시장

제 2 장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의의

지배적 품목 및 사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품목 60%, 사업자 55.8%에 달함

[표2-11] 30대 기업집단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현황

(단위 : 개, %)

구 분	시장지배적 품목		시장지배적 사업자	
	품목수	비중	사업자수	비중
30대 기업집단	85	66.4	172	55.3
5대 기업집단	51	39.8	96	30.9
전 체	128	100	311	100

주) 비중(A) : 전체 품목수(또는 사업자수)대비 당해 기업집단군의 비중
비중(B) : 30대 집단의 품목수(또는 사업자수)대비 당해 집단군의 비중

- 외국인 투자기업 중 국내 독과점시장에 진출한 기업은 순사업자 기준으로 40개 업체로서 총 188개 업체 중 20% 정도를 차지하여 상당히 높은 비중인 것으로 보이지만 40개 업체 중 8개 업체만이 지분율 50%를 넘을 뿐이고, 그 밖의 32개 업체는 외국기업이 주도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아 국내업체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음
- 이처럼 큰 규모의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많지 않다는 것은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의 국내진출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처럼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독과점 시장 진출이 미약한 것은 이 시장 대부분이 대규모 기업집단에 의해 지배되어 있어 시장진입에 따른 위험이 상당히 컸기 때문으로 보여짐
- 그러나 최근 세계적 기업들의 M&A를 통한 국내진출이 늘고 있고 대부분이 독과점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이를 계기로 국내의 독과점 시장에 진입하는 외국기업들이 적극적인 경쟁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으로 배려하여 독과점 시장의 경쟁이 더욱 촉진되고 관련기업들이 기술력 제고에 더욱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5. 기술이전효과

- 외국의 기술이 국내에 도입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며, 하나는 국내기업이 외국의 기술보유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기술을 직접 도입하는 형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선진기술이 물적자본이나 인적자본에 체화되어 유입·확산되는 형태임
- 또한 이와 같이 직·간접적으로 도입된 기술은 여러 경로를 통해 국내 다른 기업에 전파되는 기술확산효과(spillover effect)를 갖게되며, 이는 직·간접적인 기술도입보다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함
- 외국인 직접투자의 기술과급효과는 국내부품업체나 설비조달업체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부품이나 설비를 공급하는 과정이나 또는 외국인기업이 국내 하청기업들에 대해 기술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후방연계효과, 생산된 제품이 중간재 형태로 다른 국내기업의 완제품생산에 투입됨으로써 기술력 향상을 가져오는 전방연계효과와 현지법인의 연구개발 활동이나 기술연수 프로그램에 의한 기술인력 양성, 그리고 인력이동에 의한 효과로 나눌 수 있음
-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정보화의 급진전으로 세계경제에 있어서 경쟁력은 지식기반산업에 의해 좌우될 것이고, 인적자본은 국제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될 것이며, 투자유치국의 내부역량을 나타내는 인적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외국인 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클 것임

6.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의 사례

가. 전방연계효과 사례

1) 듀폰코리아

- 국내의 다른 기업이 자사 제품을 이용하여 신상품을 개발할 때 기술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국내외 우수기술인력을 총동원하여 기술지원을 함
- 첨단소재인 엔지니어링 폴리머, 자동차 및 건물의 접합안전유리용 뷰티사이트 수지, 백색안료인 TiO₂, 자동차 보수용 도료인 센타리 제품에 대한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고객을 위한 각종 세미나, 전시회 등을 개최 최신 정보를 제공

나. 후방효과 사례

1) 모토롤라

- 70년대부터 아남산업, 한국전자 등에 OEM 방식으로 위탁생산을 시도하여 국내 반도체업계의 발전과 성장을 주도함
- 품질향상을 위한 현장지도, 기술자 양성, 제조기술의 전수를 통해 국내기업들을 세계에서 인정받는 반도체 전문업체로 성장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그 기술자들이 성장하여 현재는 삼성반도체, LG반도체 등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음

2) 포드 자동차 회사

- 50%를 합작출자하여 자동차부품회사인 한라공조를 설립하여 전기전장, 사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출, 절삭가공, 파이프 등 4개 업종 21개의 국내협력업체에 대하여 불량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공정개선 지도

- 6개의 주력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성, 품질, 조직, 생산, 자재관리 및 전산화 등에 있어서 경영혁신 운동을 지도
- 대웅산업 등 10개의 국내업체에 대해 경영진단을 통해 경영개선점을 제시하고, 대정고분자산업 등 9개 업체에 대해서는 ISO9002 인증취득을 위한 지도를 실시

3) 튜폰코리아

- 하청업체들을 파트너로 생각하고 제품생산에 대한 자문과 기술을 제공함과 동시에 안전·환경 분야에서 그동안 축적되어온 경험과 노하우를 국내기업에 전수하기 위하여 SEMS(Safety & Environment Management Services)라는 안전환경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95년부터 서비스사업으로 전개하는 등 안전과 환경보호의 실천을 중점적으로 지원

다. 첨단경영기법의 이전

1) 로옴코리아

- 일본의 전자부품 제조회사가 국내에 설립한 회사임
- '98년부터 생산뿐만 아니라 사무직까지 모든 분야에서 업무개선을 통해 설비효율을 극대화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이라는 운동을 전개
- 일본 파트너가 개발한 생산지점에서 검사 및 포장 등을 직접 시행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신경경영기법을 전수

2) 프렉스에어코리아

- 산업용가스 제조회사이며, 1996년 생산관리면에서 전력사용을 절약하고 생산공정의 안전을 도모하며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MPC(Model Predictive Control) System을 도입하여 사용

라. 창업지원 사례

1) 모토롤라코리아

- '68년에 질소공장을 준공하여 국내 생산을 시작하였고, 그 제조기술을 국내 가스산업에 이전시켜 현재의 대성산소(주) 등에서 고순도 질소가 생산되도록 기여
- 또한 공장내 금형 제작공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많은 기술자를 미국 본사에 연수시키고, 기술자들이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퇴직할 때 금형 제조기계들을 원가 이하로 저렴하게 양도하고 금형을 다시 구입하여 영업활동을 크게 장려
- 한미금형, 국제금형, 마이크론정공, 크라운정공 등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탄생한 기업들임

마. 기술이전 사례

1) 어필텔리콤(주)

- 기술도입료 절감 :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업체인 (주)어필텔리콤은 상호특허 및 기술공유로 CDMA개발시 가장 큰 장벽이었던 특허문제를 해결함. 동분야에 있어 특허료는 가격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세계시장으로 수출시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독자특허 없이는 사실상 (가격)경쟁이 불가능한 상태임.

- 동사는 합작으로 인해 이동통신 단말기의 해외 수출시 Qualcomm사에 대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300만불의 기술도입료를 절감하게 됨.
- 부품구입료 절감 : 단말기 핵심부품으로 Qualcomm에서 수입하는 MSM (Mobile Station Modem) chip과 BBA(Base Band Audio) chip을 Motorola의 구매가격으로 공급받게 됨에 따라 수출제품 가격경쟁력이 강화됨.
- 품질향상 : 엄격하기로 정평이 나있는 Motorola의 품질관리 시스템 도입과 적용으로 품질관리능력이 증가됨.

2) 동양물산주식회사

- 동양물산주식회사는 '98년 12월 12일에 이태리 SOMACIS S.p.A.와 기술도입계약과 합작투자를 유도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고품격 22층 다층회로기관(complex multi-layer up to 22 layer) 등에 대한 기술이전을 2003년까지 완료하기로 함.
- 또한 이태리측이 합작투자계약서에 의해 한국합작법인으로부터 구매하는 물량은 '99년 126억원, 2000년 174억원, 2001년 222억원, 2002년 270억원, 2003년 318억원이 예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고용규모도 '98년 72명에서 '99년 120명으로 늘어남.

제4절 외국인투자 관련법령

1. 기본법령

-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령으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외국인투자 등에 관한 조세감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령 등이 있음

2. 외국인투자촉진법

가. 연혁

-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98. 9. 16 제정

나. 내용

- 규제·관리 위주에서 외국인투자의 촉진·지원 중심으로 법령체계 개편

1) 인·허가제도 간소화로 신속한 투자절차 진행

- 종전의 외국인투자 신고수리제도에서 신고제도로 전환하고 신고 시 첨부 서류도 외국인투자신고서 하나로 간소화
- 종전에는 민원구비서류로 83개 첨부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37개로 폐지, 축소함
- 민원에 대한 일괄처리제와 자동승인제를 도입

2) KOTRA에 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One-stop 서비스 제공

-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종전에 산업지원부에 설치된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을 one-stop service 기구로 개편
-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관계부처 공무원을 파견 대정부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행정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각 지자체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진흥관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및 KOTRA와의 업무협조체계를 확립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3)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 조세감면대상사업을 고도기술수반사업(435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서비스업,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기업, 수출자유지역입주기업으로 확대
- 법인세·소득세를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는 8~15년의 범위 내에서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제도 확대개선
 - 임대기간을 현행 20년에서 50년 범위 내로 확대
 - 외국인기업전용단지, 국가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지역내 국가소유토지에 대한 임대료 감면
 - 임대료 감면비율을 입지 및 투자규모, 업종에 따라 100%~50%까지 차등적용하고 공유재산은 지자체 조례로 정함

4)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 재량 확대

- 지방정부가 지방세 감면,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외국인투자지역 후보지 선정토록 하는 등 외국인투자유치 재량확대
- 지자체의 투자유치 노력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 각종 인허가 처리 지원, 시도 외국인투자진흥관 설치,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운영
 -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자금, 임대할 용지매입비 용자지원,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액 지원, 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자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소요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
 - 지자체는 고용규모에 따라 고용보조금 지급 근거를 조례로 정함

다.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다른 개별법과의 관계

-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외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직접투자만을 대상으로 함
-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은 촉진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각 개별법 상 순수 국내법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의 적용을 받음은 물론 각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만 당해 사업의 영위가 가능함

라. 외국인투자 대상업종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외국인투자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내용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함. 따라서 불허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 : 5단위)이 외국인투자 대상업종이 됨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총 1,195개 업종 중 공공행정·외무·국방 등 47개 업종을 제외한 1,148개 업종이 외국인투자 대상업종이며, 이 중 전면개방업종이 1,127개, 부분개방업종(허용기준 충족시 외국인투자가능)이 17개, 미개방업종(2000년 2월 현재 : 근해어업, 연안어업, 라디오 방송업, 텔레비전 방송업)은 4개임.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표2-12]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

업종명(표준산업분류)	허용기준1)	향후개방시기2)
보통작물생산업(0111)	-벼·보리 재배를 제외하고는 허용	
육우사육업(01212)	-외국인투자비율 50% 미만 허용	
근해어업(05112)		
연안어업(05113)		
신문발행업(22121)	-외국인투자비율 30% 미만 허용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22122)	-외국인투자비율 50% 미만 허용	
핵연료 가공업(23300)	-원자력발전 연료의 제조·공급사업을 제외하고 허용	
정기간행물 발행업(22122)	-외국인투자비율 50% 미만 허용	
발전업(40110)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운영하는 발전사업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전면 허용 (단, 원자력을 이용하는 발전업은 정부투자기관이 운영하는 경우와 기타의 경우 모두 허용하지 않음) 1.외국인투자비율이 50%미만일 것 2.외국투자자의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소유는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하며 법인의 대표자는 내국인이어야 함	
육류도매업(51312)	- 외국인투자비율 50%미만 허용	
고기도매업(51222)		
내항여객운송업(61101)	-허용대상 : 남·북한 여객 또는 화물 운송	
내항화물운송업(61102)	-대한민국 선박회사와 합작하고,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정기항공운송업(62100)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 허용	
부정기항공운송업(62201)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 허용	

제 2 장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의의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업 (64211)	-기간통신산업은 외국정부·외국인 또는 다 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외국인 등)이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총지분의 100 분의 49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다만,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외국인투자비율이 100 분의 33이하, 1인당 투자비율은 15%이하 허용) 가.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외국정부나 외국인이 대주주인 법인으로 서 그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 율이 100분의 15이상인 법인	
유선전화 및 기타 유선 통신업(64219)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별정통신업(64291)	-전기통신망에 접속하여 전화역무를 제공하 는 별정 통신사업은 외국인투자비율 49% 이하인 경우만 허용	2001.1.1
무선전화업(64221)	나.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무선호출 및 기타무선 통신업(64229)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그외 기타 전기통신업 (64299)	-통신위성 운영, 통신위성 지구국 운영은 무 선전화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허용 -방송전송 서비스는 100분의 49 이하인 경 우에 허용	
국내은행(65191)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 한하여 허용	
투자신탁회사(65931)	-증권투자신탁업은 전명허용 -기타는 금전신탁에 한하여 일반은행 또는 특수은행이 본래의 사업과 겸영하는 경우 에 허용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90230)	-전기사업법 제54조의 3에 의한 방사성폐기 물 관리사업은 제외하고 허용	
라디오방송업(92131)		
텔레비전방송업(92132)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프로그램공급업(87221)	-외국인투자비율이 33%이하인 경우에 허용 (종합편성 및 보도프로그램 공급업 제외)	
종합유선 및 기타유선 방송업(87222)	-종합유선방송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 이 33% 이하인 경우에 허용	2000. 3.13 개방확대 (음악유선 방송업에 대하여 허용)
위성방송업(87223)	-외국인투자비율이 33% 이하인 경우에 허 용	2000.3.13 개방확대
뉴스제공업(92200)	-외국인투자비율 25% 미만허용	

- 주 1) 당해업종에 대해 현재의 외국인투자 허용기준을 뜻함. 따라서 허용기준이 없는
업종은 외국인투자가 불허됨
- 주 2) 특정내용이 없이 연·월·일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기가 도래하면 전면
개방됨. 부분개방 또는 개방확대 등의 표시가 있는 경우는 그 시기가 도래하면
부분개방 또는 개방폭이 확대됨

제3장 우리 나라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

제1절 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

1. 외국인 직접투자의 총규모

- 산업자원부의 통계에 의하면 2000년 9월말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의 신고건수 3,116건으로 전년도 한해동안 이루어진 2,102건과 비교하여 48.2% 이상 증가하였고, 금액은 10,422만불로 전년 동기대비 23.1% 증가하였음
- '93년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97년말 외환·금융 위기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추춤하다가 '98년 들어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환경 개선과 외환·금융 시장의 안정세에 힘입어 1998년에는 신고기준으로 8,852백만 달러, '99년에는 15,541백만 달러가 유치되었음.

[표3-1] 연도별 투자현황

(단위 : 건, 백만달러, %)

구 분	'94	'95	'96	'97	'98	'99	2000.1~9
금 액	1,317	1,947	3,203	6,971	8,852	15,541	10,422
(증감률)	(26.1)	(47.8)	(64.5)	(117.6)	(27.0)	(75.6)	(23.1)
건 수	646	873	967	1,055	1,399	2,102	3,116
(증감률)	(41.0)	(35.1)	(10.8)	(9.1)	(32.6)	(50.3)	(128.9)

주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신고기준

자료 : 산업자원부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2. 산업별 현황

- '99년도에 제조업에 유입된 외국인투자는 신고기준으로 7,130백만 달러로 전체투자액에서 45.9%를 차지하여 서비스업 8,357백만 달러 53.8%에 다소 못 미치고 있음.
- 그러나 '62년부터 2000년 9월까지 누계기준으로는 제조업이 31,278백만 달러로 52.6%를 차지하여 서비스업 27,832백만 달러 46.8%에 앞서고 있고 농업, 축산업, 수산업, 광업 등 기타부문은 277백만 달러로 0.4%를 차지함.

[표3-2] 산업별 투자비중

(단위 : 백만달러, %)

업 종	1996	1997	1998	1999	1999.1~9	2000.1~9	누 계
제조업	1,930 (60.3)	2,347 (33.7)	5,735 (64.8)	7,130 (45.9)	4,109 (48.5)	4,827 (51.5)	31,278 (52.6)
서비스업	1,254 (39.2)	4,567 (65.5)	2,938 (33.2)	8,357 (53.8)	4,304 (50.8)	4,537 (48.4)	27,832 (46.8)
기타(농축수 산,광업 등)	18 (0.5)	55 (0.8)	179 (2.0)	54 (0.3)	53 (0.7)	2.6 (0.03)	277 (0.4)

주 : 신고기준

자료 : 산업자원부, 투자통계 D/B

- 제조업 업종별로는 2000년 1월부터 9월까지 전기 및 전자(1,634백만 달러), 기계(1,414백만 달러), 운송용기기(810백만 달러), 금속(690백만 달러), 화공(520백만 달러) 등의 순위를 보임
- '99년 동기간대비 서비스업은 숙박업, 운수창고업, 전기 및 가스업, 부동산업, 기타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증가한 반면 금융업, 도·소매업, 무역업 등은 감소하였음

제 3 장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환경

[표3-3] 산업별 현황

(단위 : 건, 백만불)

구 분	'99.1~9		2000.1~9		2000.9		누 계('62~2000.9)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농·축·수산	8	53	7	2	-	-	142	277
광 업	1	-	6	-	-	-	82	75
제 조 업	405	4,109	580	5,450	63	624	8,085	31,278
식 품	21	127	19	44	1	-	454	2,686
섬유·의류	26	34	37	50	3	-	515	597
제지·목재	10	14	7	13	-	-	152	2,211
화 공	68	563	49	520	4	-	1,195	4,810
비 료	-	-	-	-	-	-	12	50
의 약	13	40	22	85	-	-	295	813
석 유	-	-	1	-	-	-	36	1,457
요 업	4	42	10	50	1	-	208	706
금 속	17	421	21	690	1	-	435	1,559
기 계	78	300	95	1,414	6	1	1,521	3,803
전기·전자	112	2,230	182	1,634	12	152	1,998	8,473
운송용기기	28	317	25	810	5	444	491	3,307
기타제조업	28	21	112	141	30	26	773	803
서비스업	947	4,304	2,523	4,969	242	433	8,598	27,832
전기 및 가스	8	148	10	218	-	-	28	1,035
건설업	14	15	17	9	1	1	112	202
도·소매업	86	377	195	255	23	48	748	3,083
무역업	395	359	1,409	221	132	13	3,942	1,839
음식점업	40	45	72	25	8	2	291	179
숙박업	21	384	16	810	2	75	267	7,136
운수 및 창고	25	7	31	534	3	1	271	1,050
금융업	42	1,307	81	557	6	54	414	5,254
보험업	11	500	17	438	2	100	96	1,308
부동산업	20	32	17	141	3	35	67	204
기타서비스업	285	1,129	658	1,762	62	103	2,362	6,542
합 계	1,361	8,466	3,116	10,422	305	1,056	16,907	59,462

자료 : 산업자원부

3. 투자유형 및 규모별 현황

- 투자유형별로는 신규법인을 설립하거나 증자에 참여하는 등 신주취득 방식에 의한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기존법인의 구주취득을 통한 진출은 대폭 감소함
- 이는 외국투자자들이 기존법인의 구주취득을 통한 기업인수의 투자보다는 한국에서 새로운 기업을 시작하는 적극적인 사업형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추정됨

[표3-4] 투자유형별 현황

(단위 : 건, 백만달러)

구 분	'98		'99		2000.1~9월		누계('62~2000.9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신 주	1,106	6,525	1,834	12,571	2,883	9,718	16,002	52,696
구 주	236	1,244	240	2,333	216	555	784	4,832
장기차관	57	1,083	28	637	17	149	121	1,933
합 계	1,399	8,852	2,102	15,541	3,116	10,422	16,907	59,462

자료 : 산업자원부

- 투자건수가 대폭 늘어나는 것에서 보는 것처럼 규모별 건수를 보면, 500만 달러 이하의 중소규모의 투자가 '90년 213건에서 2000년 10월에는 2,525건에 달해 '99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의 저변이 확충되고 있음을 보여줌
- '62~2000년간 건수 누계기준으로 500만 달러 이하의 투자기업의 비중이 94.4%, 5000만 달러 이상의 투자기업의 비중은 0.8%를 차지하는 반면에 금액 기준으로는 500만 달러 이하 투자기업의 비중은 13.3%, 5000만 달러 이상의 비중은 58.2%를 차지하고 있음

제 3 장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환경

[표3-5] 투자규모별 현황

(단위 : 천, 백만달러)

구 분	500만불미만	500만불 ~1000만불	1000만불 ~5000만불	5000만불이상	합계
1990	327(284)	176(7)	222(4)	78(1)	803(296)
1991	348(266)	238(13)	277(7)	533(1)	1,396(287)
1992	303(225)	54(2)	440(5)	97(1)	894(233)
1993	242(255)	129(7)	446(9)	227(2)	1,044(273)
1994	326(389)	129(5)	590(19)	272(1)	1,317(414)
1995	468(510)	216(18)	1,038(28)	225(1)	1,947(557)
1996	518(545)	241(12)	1,028(31)	1,415(7)	3,203(595)
1997	548(571)	317(13)	1,318(44)	4,787(10)	6,971(638)
1998	593(735)	421(12)	2,010(31)	5,828(18)	8,852(796)
1999	757(1,352)	494(27)	2,330(50)	11,959(34)	15,541(1,463)
2000.1~10	899(2,525)	535(37)	1,824(35)	8,913(12)	12,171(2,609)
누 계 (1962~ 2000.10)	8,160 (10,619)	3,879 (229)	13,533 (311)	35,639 (92)	61,211 (11,251)

주 : ()는 신규투자건수

자료 : 산업자원부

4. 국가별 현황

- '99년까지의 누계기준으로 최대 투자국은 149억9,250만불이 유입된 미국으로 전체투자중 30.5%를 차지함.
- 80년대 후반까지 최대 투자국이었던 일본(전체투자의 50%내외 점유)은 90년대 이후 일본기업들이 투자 대상지를 중국, ASEAN 등으로 전환한 결과, 그 비중이 감소추세가 계속되었으나 '98년도를 기점으로 증가세로 반전되다가 '99년에는 전년대비 200% 이상으로 급신장함.
- EU지역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미국과 비슷한 규모로 증가하다가 '99년에는 전년대비 100% 이상의 신장율을 보이며 절대금액에서 미국을 크게 앞섬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 금년 9월까지의 누계를 살펴보면, 기타지역이 42.9%, EU가 24.9%, 미국이 18.2%, 일본이 14.0% 순을 차지하였으나 작년 동기간의 누계와 비교해보면 기타지역이 150.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EU는 -40.9%의 감소를 보이고 있음

[표3-6]주요 국별 외국인투자 현황

(단위 : 백만불, %)

구 분	'96	'97	'98	'99	'99.1~9	2000.1~9	증가율
일 본 (비중)	255 (8.0)	266 (3.8)	503 (5.7)	1,750 (247.2)	773 (9.1)	1,454 (14.0)	88.1
미 국 (비중)	876 (27.3)	3,190 (45.7)	2,976 (33.9)	3,739 (25.7)	1,526 (18.0)	1,904 (18.2)	24.8
E U (비중)	892 (27.9)	2,305 (33.0)	2,889 (32.6)	6,261 (117.1)	4,382 (51.8)	2,591 (24.9)	△ 40.9
기 타 (비중)	1,180 (36.8)	1,210 (17.4)	2,484 (28.1)	3,791 (52.66)	1,785 (21.1)	4,473 (42.9)	150.6
계	3,203	6,971	8,852	15,541	8,466	10,422	23.1

주 : 신고기준

자료 : 산업자원부

- 투자유입은 미국, 네덜란드,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 등 일부국가에 편중되어 있음.
- 미국을 비롯한 상위 5개국과 15개국으로부터의 유입액은 '90년초 각각 90.6%, 96.5%에서 '99년에는 74.5%, 91.1%로 다소 감소추세에 있음. 그러나 세계 투자평균치와 비교해 볼 때 아직도 일부국가에 대한 집중도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남
- 우리 나라에 대한 투자가 아직까지는 전통적으로 선진국으로부터의 투자 형태를 띠고 있으나 향후에는 기술습득과 시장진입을 목표로 하는 후진국 또는 신흥개발국으로부터의 투자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제 3 장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환경

[표3-7] 국별 외국인투자 비중

	'95		'96		'97		'98		'99	
순위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미국	33.2	미국	27.4	미국	45.8	미국	33.6	미국	24.1
2	일본	21.5	말레이시아	21.0	네델란드	11.9	네델란드	14.9	네델란드	21.4
3	말레이시아	11.2	아일랜드	12.8	말레이시아	10.4	싱가포르	13.4	말레이시아	11.5
4	네델란드	8.8	일본	8.0	프랑스	5.9	독일	8.9	일본	11.3
5	영국	4.5	홍콩	7.1	독일	5.7	케이만	7.1	독일	6.2
6	아일랜드	3.8	네델란드	6.4	아일랜드	5.1	일본	5.7	프랑스	4.9
7	싱가포르	3.4	스위스	5.1	일본	3.8	프랑스	4.2	벨지움	3.1
8	홍콩	3.0	독일	3.0	영국	3.7	말레이시아	3.0	영국	3.1
9	독일	2.3	프랑스	2.8	캐나다	2.6	스웨덴	2.3	홍콩	3.0
10	프랑스	1.8	영국	2.5	스위스	1.5	아일랜드	1.2	싱가포르	2.7
11	기타	6.6	기타	3.9	기타	3.6	기타	5.7	기타	8.9

자료 : 외국인투자지원센터, 2000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및 특징, 2000. 4

5. 국가별 · 산업별 현황

- 우리 나라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수는 '99년 12월 31일 기준 8,642개사로 그중 일본이 3,338개사, 미국 2,278개사로 전체 건수의 64.9%를 차지함
- 미국과 영국은 제조업 분야와 서비스업 분야의 투자업체수가 각각 1,008개사, 80개사와 1,249개사, 116개사로 서비스업분야의 진출이 활발한 반면에 일본과 독일은 각각 3,338개사, 319개사와 933개사, 155개사로 제조업분야의 기업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표3-8] 주요 국별 · 산업별 외국인투자 기업수

(단위 : 개)

국가명	투자 업체수	투자분야별 업체 수	
미국	2,278	제조업:1,008 식품(65),섬유·의류(62),화학(135),기계(151), 전기·전자(282)	서비스업:1,249 도소매업(114),무역업(422),음식점업(40),금융업(57),숙박업(38)
일본	3,338	제조업:2,303 식품(145),섬유·의류(203),화학(286),금속(163),기계(499),전기·전자(457)	서비스업:933 도소매업(90),무역업(303),음식점업(49),숙박업(80),금융업(46)
독일	319	제조업:160 화학(31),의약(10),기계(50),전기·전자(20),운송용기기(20)	서비스업:155 도소매업(20),무역업(89),운수·창고(9), 금융업(4)
영국	196	제조업:80 화학(19),기계(18),전기·전자(13),운송용기기(9)	서비스업:116 도소매업(10),무역업(30),운수·창고(8),금융업(14),보험업(8)
프랑스	160	제조업:76 화학(18),요업(5),기계(18),전기·전자(11),운송용기기(5)	서비스업:84 건설업(4),도소매업(7),무역업(36),금융업(5)
화란	200	제조업:70 식품(5), 화학(18),의약(5),기계(14), 전기·전자(16)	서비스업:128 도소매업(20),무역업(53),운수·창고(4),부동산업(4)
홍콩	233	제조업: 66 식품(5),섬유·의류(6),화학(11),기계(8),전기·전자(16)	서비스업:165 도소매업(19),무역업(53),숙박업(13),운수·창고(17),금융업(8)
중국	623	제조업:77 식품(19),섬유·의류(14),화학(11),기계(9),전기·전자(10)	서비스업:539 도소매업(24),무역업(397),음식점업(58),운수·창고(9)

제2절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유치 여건 및 문제점

1. 외국인 투자 유치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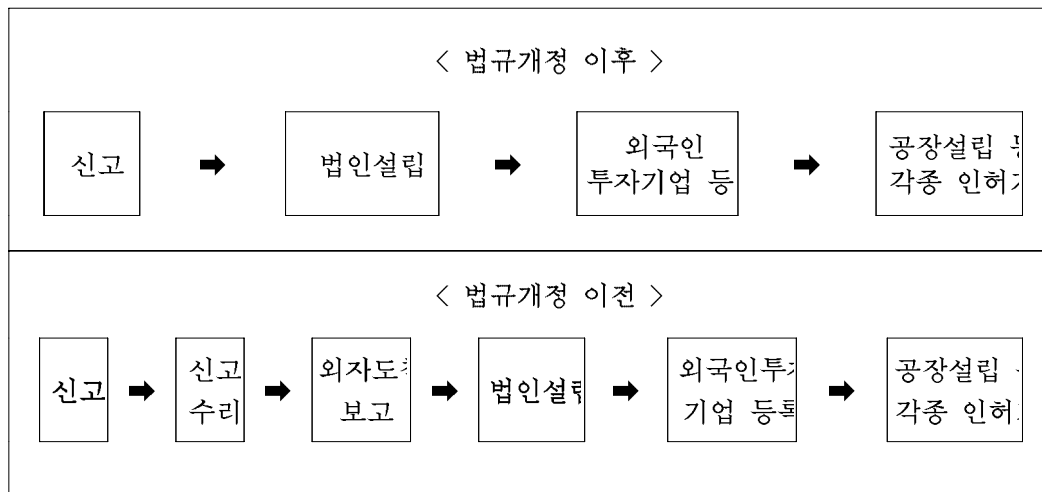
가. 외국인 투자절차

- '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이후 투자제도는 신고수리제에서 단순신고제로 간편화되었으며, 신주취득, 기존주식취득, 장기차관 등은 사전 신고제이

제 3 장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환경

며 합병 등에 의한 주식취득은 사후신고제로 변경되었음

- 외국인 투자 신고이후 자본재 및 현금도입, 법인설립 완료, 등록 및 공장설립 등의 절차는 큰 차이가 없으나, 외국인 투자 신고수리 및 외자도착보고 절차가 생략되어 제도상으로는 신고 후 즉시 처리가 가능토록 되었음
- 신고접수기관이 국내은행 본 지점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뿐만 아니라 KOTRA 외국인 투자지원센터, 지방 및 해외사무소 등으로 확대되어 투자자의 편의를 도모
- 법규상 외국인 투자 절차상의 단계가 상당히 축소되었으며, 그 처리기간 또한 상당히 단축되었음



[그림 1] 외국인 투자절차

나. 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

- 우리 나라의 원스톱서비스는 주로 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 등을 지칭하며, 민원의 종류를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처리절차 및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 직접처리민원사무 :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에 파견된 공무원이 소속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전결권을 부여 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
- 일괄처리민원사무 : 주요 민원사무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의제대상 민원의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민원사무, 공장설립,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폐수배출시설허가, 건축물사용승인 등이 해당됨
- 개별처리민원사무 : 총 123개의 민원사무가 이에 해당하며 해당법률에서 정한 민원서식 및 처리기간에 따라 처리되며 처리절차는 일괄처리민원사무와 동일함

다. 외국인투자 유치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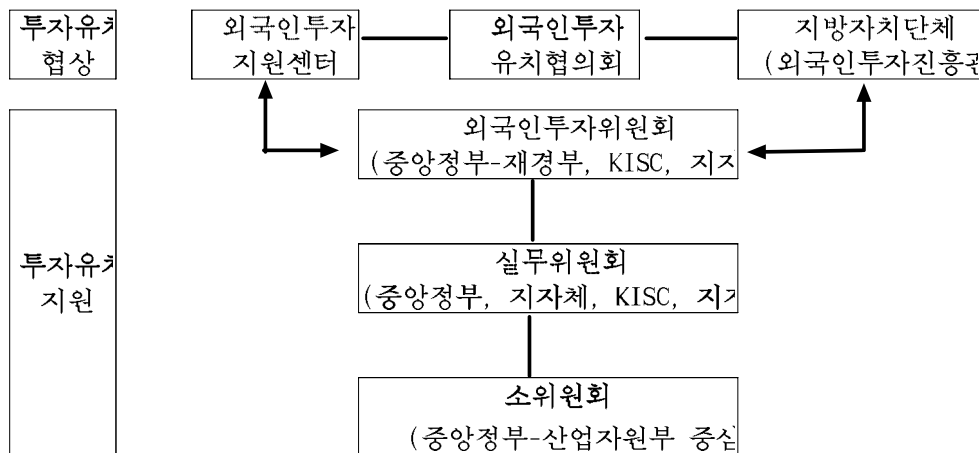
- 외국인투자 유치체계는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계획수립 및 입지탐색, 투자집행 및 사후관리단계에서의 각종 편의를 도모하여 투자자의 외국인비용(cost of foreignness)³⁾을 줄여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
- 제도, 법규, 정책, 절차 등 정형화된 시스템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홍보, 對 투자자서비스, 투자유치기관간의 시너지, 대외적 이미지제고, 사후관리 등 외자유치에 영향을 미치는 무형의 시스템이 더욱 강조됨
- 우리 나라의 외국인 투자체계는 투자유치 협상조직과 투자유치지원조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직접 투자유치 행위를 실시하는 협상창구는 KOTRA의 외국인지원센터(KISC)와 지방자치단체이고,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조직은 중앙정부의 외국인투자위원회임
- 투자유치 프로세스의 핵심사항인 원스톱서비스는 산업자원부의 관할하에 있는 KOTRA의 KISC에서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투자를 위한

3) 언어문제, 정보부재, 행정규제, 법률문제 등 외국인이기 때문에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불이익을 말함

제 3 장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환경

외국인투자진흥관 및 투자유치부서를 두고 자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외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 중앙정부와의 협력적 상호작용체계는 미흡한 수준임

- 투자유치 지원조직으로는 외국인 투자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기구이며, 재경부장관이 위원장인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있으며, 조세감면 및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 제반 인센티브의 결정권 보유
- 따라서 우리 나라 외자유치 체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어떻게 협상조직과 지원조직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가가 관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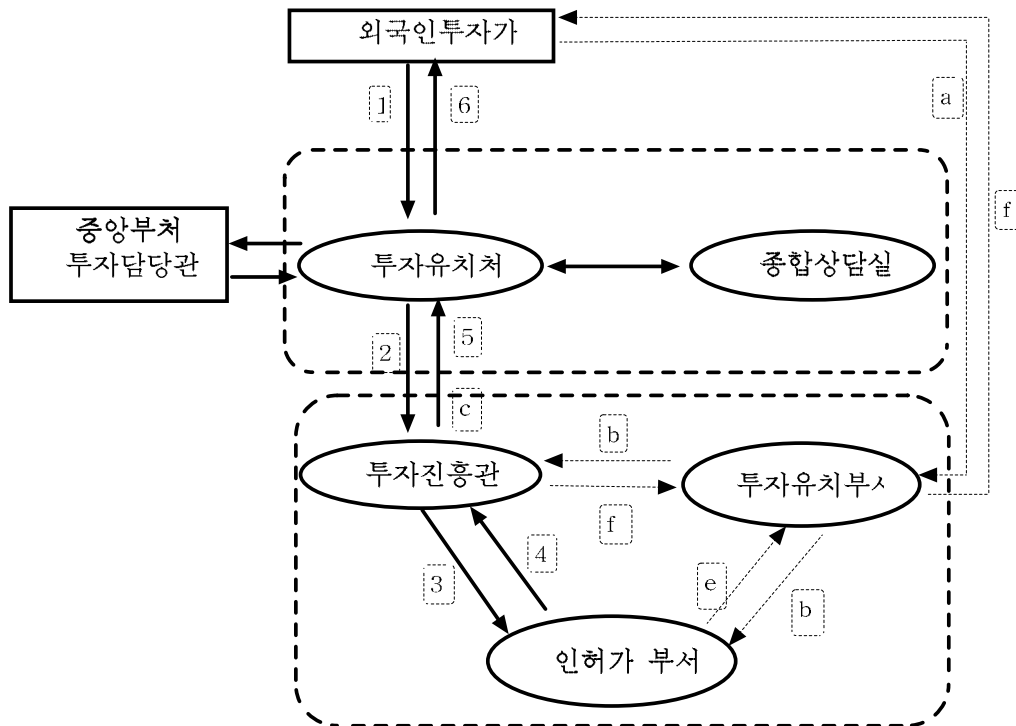
[그림 2] 우리 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치체계

라. 외국인투자 유치절차

- 현재 우리 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KOTRA의 KISC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유치 접점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고 투자절차는 다음과 같음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KOTRA KISC가 접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접점인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투자협의를, 인허가 처리신청(일괄처리민원 등) ② 관할자치단체로 이송(KISC 직원) ③ 인허가 관련기관 처리협의 (관련부서, 자치단체) ④ 인허가 관련기관의 처리의견 통보 ⑤ 처리결과 통보(처리기관 경과시 자동승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투자협의를, 인허가 신청 ②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기관 처리협의 ③ KISC로 이송 ④ 중앙부처 관련기관 인허가 처리협의 ⑤ 인허가 관련기관의 처리의견 통보 ⑥ 처리결과 통보(처리기간 경과시 자동승인)



[그림 3] 우리 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치절차

2. 외국인투자정책

가. 외국인투자의 적합성

1) 외국인투자 정책의 목표

- 세계 각국이 외국인투자를 이용하여 달성하려는 주요 외국인투자정책 목표는 산업구조고도화, 수출증대, 외환보유증대, 고용창출, 낙후지역개발 등으로 집약될 수 있음
- 외환보유 증대, 고용창출, 지역개발 등의 공통점은 외국인투자를 평가하는 정부의 태도가 유치선별기준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보유한 기술수준, 선진 경영기법 보유정도, 생산제품 등 개별기업의 특성 또는 질적 기준보다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투자액, 근로자 채용, 지역경제의 소득 및 구매력 창출 등 양적 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반면 기업 경쟁력 또는 제품 경쟁력을 반영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수출성향이 큰 기업을 선별하여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반영한 경우가 외국인투자정책으로서 산업구조고도화정책 및 수출증대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2) 지원수단

- 외국인투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편적인 수단 중 하나인 투자인센티브제는 조세인센티브, 금융인센티브 및 시장편의인센티브로 나눌 수 있음
- 법인세 및 소득세감면, 수입관세 면제 등 조세감면에 관한 조세인센티브와 정부보조금, 신용보증, 보험가입 우대 등과 같은 금융인센티브는 투자기업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회계상 이득을 보장하는데 비해 시장편의인센티브는 시장독점권 허용, 독점 수입권 부여, 정부수주시 우선권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부여, 타 기업의 시장진입 제한 등과 같이 비금전적으로 영업활동에서 타 기업보다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여 경제적 이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구분됨

- 또한 조세인센티브와 금융인센티브는 외국인기업의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데 비해 시장편의 인센티브는 향후 수익발생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차이가 있음. 즉 조세인센티브와 금융인센티브는 투자비용 및 생산비용 절감, 투자수익에 직접효과가 있는 인센티브인 반면 시장편의인센티브는 간접효과가 있는 인센티브인 것임
- 인센티브 수혜정도가 결정되는 시점을 볼 때 금융인센티브는 공장설립이전에 투자초기단계에서 사전적(ex-ante)으로 수혜범위가 결정되며 조세인센티브는 사후적(ex-post)으로 투자기업의 능력에 따라 수혜범위가 결정되는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음. 시장편의인센티브도 대개 투자신고 등 투자 초기단계에서 정부와 투자기업간 계약으로 특정 시장의 독점권 허용, 특정 물품의 수요보장 등의 수혜정도와 수혜기간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사전적 인센티브로 분류할 수 있음

3) 정책적합성

- 외국인투자정책수단이 그 목표와 맞게 수립되어 외국인투자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합을 정책의 적합성이라고 함
- 임성훈(1999)은 전체 표본 100개 지역 중 OECD 회원국의 58개 지역이 선진국 표본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지역을 후진국 표본으로 하여 투자정책목표와 투자인센티브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음⁴⁾
-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 표본의 경우 조세인센티브는 정책목표 중 산업구조고도화와 고용창출과의 상관계수가 각각 0.258과 0.249이며 모두 5% 유의수준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금융인센티브는 고용창출과 지역개발에 각각 0.210(유의수준 5%), 0.359(유의수준 1%)로 정(正)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

4) 임성훈, 외국인투자정책의 전략적 접근, 대한무역진흥공사, 1999. 9.

제 3 장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환경

타났으며, 반면 금융인센티브는 외환안정 및 외환보유 증대를 투자정책목표로 하는 지역에서 부(負)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선별적 정책목표 중 수출증대의 경우는 조세인센티브와 상관관계가 미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선진국의 경우 금융인센티브와 고용창출과 지역개발의 상관관계수가 0.425, 0.477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조세인센티브보다는 보조금 지급 등 금융인센티브가 투자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나타남
- 반면 후진국 경우에는 조세인센티브가 산업구조고도화 정책과의 상관관계수가 0.441로 매우 높게 나타나 선·후진국간 유효한 정책목표 달성수단이 서로 다를 수 있음
- 시장편의인센티브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산업구조고도화와 고용창출에 부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자율적인 시장진입 및 신규투자를 저해하는 경쟁 제한적인 정책은 고용감소 및 산업구조에 건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음

[표3-9] 상관분석 결과

목표	외환증대	산업고도화	고용창출	지역개발	수출증대
수단	상관계수 (P값)	상관계수 (P값)	상관계수 (P값)	상관계수 (P값)	상관계수 (P값)
전체					
조세	-0.016 (0.888)	0.258* (0.015)	0.249* (0.018)	-0.061 (0.572)	0.070 (0.521)
금융	-0.239* (0.030)	0.098 (0.367)	0.210* (0.048)	0.359** (0.001)	0.007 (0.951)
시장편의	0.288* (0.012)	-0.382** (0.001)	-0.449** (0.001)	0.138 (0.221)	0.007 (0.949)
선진국					
조세	0.081 (0.595)	0.087 (0.551)	0.180 (0.207)	-0.091 (0.527)	0.177 (0.224)
금융	-0.096 (0.531)	0.263 (0.067)	0.425** (0.002)	0.477** (0.001)	0.106 (0.469)
시장편의	0.576** (0.001)	-0.322* (0.033)	-0.469** (0.001)	0.172 (0.259)	0.048 (0.756)
후진국					
조세	0.012 (0.943)	0.441** (0.005)	0.311 (0.054)	-0.249 (0.132)	-0.060 (0.721)
금융	-0.043 (0.800)	-0.083 (0.621)	-0.081 (0.627)	0.212 (0.208)	-0.005 (0.975)
시장편의	-0.031 (0.859)	-0.472** (0.004)	-0.439** (0.007)	0.115 (0.510)	-0.086 (0.622)

1) Pearson 상관관계 분석, 양측검정임.

2) **, * 는 각각 1%와 5%의 유의수준을 만족함, 괄호 안은 유의수준임.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 결론적으로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고부가가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정책목표를 설정한 국가의 경우 인센티브혜택 정도가 기업이 창출한 성과에 비례하는 성향이 있어 투자유입뿐 만 아니라 투자진출 이후 사후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조세인센티브제도가 다른 형태의 인센티브제도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 정부의 투자정책목표가 고용창출, 낙후지역 경제개발 등에 있다면, 외국인기업이 국내에 진출하여 창출한 부가가치에 비례하여 투자인센티브를 부여받는 조세인센티브에 비해 보조금과 같은 금융인센티브는 진출 초기에 계약에 의해 결정되어 집중 지급되므로 사후 인센티브 조정 효과보다는 사전 유인효과가 크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정부의 독점시장 보장, 경쟁제한 등을 통해 특정 산업분야의 특정 외국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인센티브인 시장편의 제공은 특정 시장에 특정기업만을 진입시켜 시장내 자율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시장편의인센티브는 시장 내 경쟁기업수를 감소시켜 고용감소를 초래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산업경쟁력 악화, 산업구조고도화에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음

나. 외국인투자 정책

1) 외국인투자정책 목표

- 우리 나라의 외국인투자정책의 특징을 단계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눌 수 있음⁵⁾
 - 외자관리정책기(60~70년대) : 60년대 초에는 외국인의 경영권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 외국인투자보다는 상업차관 및 IBRD 등의 공공차관 도입에 역점을 두는 상업차관 중심의 외자도입을 추진하였으나 65년 이후 격증한 상업차관 도입에 따른 대외채무부담에 직면하자 국내산업과 과도한 마찰이 없는 범위내에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게 되었다. 외화 가득을 목적

5) 임성훈, “외국인투자정책의 전략적 접근”, 대한무역진흥공사, 1999. 9.

제 3 장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환경

으로 수출촉진 전략에 따른 수출산업,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활용

- 초기산업정책기(1984~1998) : 이 기간 중 투자정책의 기초는 투자대상은 개방하되 인센티브수혜 대상업종을 제한(7개 업종)하여 국가경제정책 차원에서 특정 산업, 특정 효과를 이루기 위한 분야에만 인센티브를 한정하는 것으로 산업정책적 요소가 외국인투자정책에 가미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80년대 말에 제조업에 대해 투자개방을 하였으며 90년대 초에는 서비스업을 개방
- 복합경제정책기(1998년 11월~현재) : 외환위기로 인해 정부는 외환고갈, 기업부실, 실업증가 등 삼중고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삼중고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외국인투자가 활용됨. 즉,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퇴출 상황에 놓여있는 국내부실기업을 인수하게 하여 투자금액의 국내 유입뿐만 아니라 기업구조조정, 실업구제효과를 가져오고, 투자인센티브 수혜기간을 확대하고 장·단기 국채 및 채권시장 및 국경간 인수합병(M&A)시장을 개방하여 공장신설형투자보다는 인수합병형투자의 활성화 발판을 마련하였고, 투자개방업종도 대폭 확대하여 99.4%의 개방화율을 보임

2) 외국인투자 유치전략

- 우리 나라의 외국인투자 지원체제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열악한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제도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투자유치 행정기능을 개선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하며, 외국인 투자관련 제한을 철폐하여 투자분위기를 확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외국인 투자유치의 기본방향으로는 내국민 동등대우 추진, 인센티브의 획기적인 확대,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투자의 우선유치, 지자체 중심의 지원체제 구축이 주요 내용임
-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신고·등록의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투자자유화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를 위해 외국인투자 무제한 원칙, 투자지원 확대를 위해 조세감면의 강화, 국공유 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 강화, 지자체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지원 등을 추진

- KOTRA에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외국인 투자관련 인허가 민원에 대해 일괄처리제 및 자동승인제를 도입하고, 중복된 정부부처의 기능을 원활히 하며 지자체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투자유치 행정기능을 개선에 중점을 둠
- KOTRA의 외국인투자지원센터는 투자기획처, 투자유치처, 투자협력처와 종합상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합상담실에는 투자상담팀, 행정지원팀, 고충처리팀 등 3개팀으로 이루어짐
- 외국인투자지원센터는 투자신고 접수, 토지취득 및 공장설립 등 인허가 신청·처리의 대행업무, 그리고 법률, 회계, 금융, 입지, 기술협력, 인력확보, 국내시장 정보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담당하고, 또한 재경부, 산자부, 법무부, 행자부, 건교부, 환경부, 국세청, 관세청, 지자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소속부처 소관의 민원을 처리함
- 인센티브제도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 투자인센티브제도의 특징은 수혜대상 산업의 제한과 조세감면위주의 지원이라고 요약할 수 있고, 국세 및 지방세 감면대상분야를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한정하여 연관산업에 파급효과가 크며 고부가가치 창출사업이거나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였음
- 조세감면 대상은 산업지원서비스업(총 97개), 고도기술수반사업(총 436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임
- 산업지원서비스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말하며, 조세감면 방법은 소득발생 연도부터 7년간 100%, 그 다음 3년간 50%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함
- 고도기술수반사업이란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제 3 장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환경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말하며, 조세감면 방법은 산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와 동일함

-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세 외에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이 주어짐
-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감면 이외에 공장설립 및 고용과 관련해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과 관련된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재정부 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대금납부 연기 및 분할,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
-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50년이내이며 기간 만료시 50년 이내 갱신이 가능하다고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은 20년이내 분할납부하거나 1년이내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음
- 지자체 소유 토지의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납부기일과 분할납부기간을 정할 수 있고 임대료 감면은 전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외국인기업전용단지, 국가산업단지 및 외국인투자지역 내 토지에 한정됨
-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 제주도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내의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고, 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은 외국인투자금액이 3,0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제주도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내의 종합휴양업은 외국인투자금액이 5,0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함
- '98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제도를 개정 이전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음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표3-10] 종전 · 현행 조세감면제도 비교

종전 ('98. 11 이전)	현행 ('98. 11 이후)
<p>[국세] 법인세, 소득세, 배당소득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기술수반사업: 8년간 감면(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 수출자유지역입주사업(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p>[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년간 감면(5년간 100% 그 다음 3년간 50%) 	<p>[국세] 법인세, 소득세, 배당소득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입주사업, 수출자유지역(마산,익산)입주사업: 10년간 감면(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p>[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록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감면기간: 8년(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 지자체별로 감면기간, 감면을 확대(8~15년의 범위내에서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2000년까지 외국환거래 자유화방안에 의해 종전의 원칙금지, 예외허용 체제에서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외국환거래법으로 전환하여 개인의 자본거래를 포함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외 영업활동 관련 외환규제를 철폐하고, 총량위주의 사전규제 체제에서 외국환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위주의 사후관리 체제로 개편
- 정부는 '98년 외국인토지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토지를 업무용 비업무용 구분없이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하였으며, 토지취득 절차도 신고제로 전환되어 외국인은 계약체결 후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거래내용을 신고만 하면 됨
- 또한 '98년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가 전면 허용되고, 외국기업이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국내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를 3~5년내 처분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3. 외국인투자 유치환경

-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서 투자유치 거점 무역관 소재 잠재 투자가를 대상으로 수집된 설문분석결과와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사무소에서 모두 2천5백개에 달하는 투자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나라의 외국인 투자 환경을 파악
- 한국에 투자를 할 경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 새로운 생산 기술 등의 가치 있는 전략적 자산 순으로 나타났음.
- 투자환경은 IMF 금융위기를 거치오면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동산 취득, 수출입통관 분야는 그 동안의 규제완화 노력에 힘입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평가가 높게 나타난 반면, 조세제도와 노동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아직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비제도적인 부문에서의 외국 기업들의 가장 큰 고충은 한국 기업들과 행정관청의 불합리한 거래관행 및 업무 처리인 것으로 나타나 아직 한국식 거래관행과 행정관청의 자의적인 업무처리, 관료주의는 꾸준한 개선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임
- 경영환경 평가의 경우 국내시장 수요면에서는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노무비, 일반관리비등 비용면에서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한국시장 잠재력은 여전히 투자자들의 매력으로 작용한 반면 한국의 인건비, 기업운영비등 비용면에서의 단점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투자증액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많은 업체들이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투자전망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의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의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최근 투자환경이 정부와 범국민적 인식에 힘입어 개선되기는 했지만 한국기업들의 불합리한 거래관행, 행정기관들의 관료주의등 제도적, 비제도적, 문화적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사업하기 좋은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할 일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가령 해외송금 때마다 겪어야 하는 세무서장 확인, 신용카드 사용명세서의 국문만으로도 표기, 국제적 표준과는 동떨어진 퇴직금, 년월차 휴가제도, 1년 이상 체류자에 대한 지문채취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았고, 특히 행정당국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많아 고충을 밝히지 못하는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외국에서 보는 우리 나라의 투자환경은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산출한 99년 경제자유화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⁶⁾에서 한국은 161개 국가 중 28위를 차지하였고, 10개 부문중 정부개입, 외국인 투자 부문이 가장 자유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외국인투자 유치 · 관리체계의 문제점

가. 법 · 제도의 문제점

- 우리 나라는 외국사례와 비교해 볼 때 외국인투자 유치조직인 KOTRA의 KISC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원조직인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이원화되어 있어 투자유치체계의 포지션이 불명확하고, 또한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내국인 투자와 별개로 제도, 담당조직, 절차 등을 규정하여 정책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 및 내국인 투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투자유치와 관련된 법 · 제도 체계를 획일적이고, 정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례별로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고, 법 · 제도상으로는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하위 외곽조직인 KISC를 통한 원-스톱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으며 지자체 단위의 개별 유치접점부서의 경쟁적인 투자유치를 독려하고 있음

6) <http://heritage.org/>

나. 중앙부처 투자유치기능의 분산 및 역할분담 미흡

- 중앙부처의 외자유치기능이 분할되어 있고,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제도개선, 투자유치 및 지원활동 등 2대 업무 모두 재경부가 총괄토록 되어 있으며 외국인 투자업무의 실무부처인 산자부는 거의 실권을 갖지 못하고 있어 프로세스상의 비효율 발생
- 투자유치계획의 총괄 및 소요예산 요구, 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기준 및 절차결정, 투자지역 지정계획까지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제출, 결정을 받아야 하나 지원예산은 산자부에서 지자체로 집행하게 되어 있어 산업 및 지역개발 측면에서 전문성이 저하됨
- KOTRA의 KISC는 팀제, 성과급제 도입 등으로 민간부문의 조직관리체계를 지향하고 있으나 중앙부처의 파견관들이 충분한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사례별로 소속부처와 번번히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원스톱의 의미가 퇴색되고 투자협상과정에서의 신속한 대처가 힘든 체계로 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95년 민선자치체제 출범이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중심이 되어 외자유치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자치단체장의 노력 및 정책결정에 좌우되고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의 지속성이 낮으며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부족으로 한계 노출

다. 불완전한 원스톱 서비스

- 우리 나라의 원스톱서비스 체계는 주로 인허가 등 행정적 절차간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효율적인 투자유치 체계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내부적인 프로세스가 복잡하여 처리지연의 개연성 및 불확실성 내재로 신속한 대처 어려움
- 효율적인 투자유치 체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입지탐색, 사업타당성조사, 부품공급업체 알선, 마케팅활동 지원, 기술 및 연구인력을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문화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확충 등 원스톱서비스의 내용이 확충되어야 함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라. 외자유치 협상 및 인허가 처리절차의 효율성

- 외국인 투자유치 절차는 투자유치협상단계, 인센티브 심의·결정단계, 입지탐색 및 부지확보단계, 인허가단계, 투자실행 및 생산·영업단계 등 5단계로 구분되며,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결정을 유인하는 투자유치 협상과정이 가장 중요한 절차이며 이 시점이 관련 기관 및 제도상의 전략적 협력관계의 작동이 가장 필요한 단계임
- 그러나 현재의 KISC의 원스톱서비스 체계는 그 이후의 단계인 인허가과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례별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협상과정의 속성상 획일적인 규정이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결국 조직체계 및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신속하고 성과있는 협상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제도 및 법률상의 견제장치가 없음
-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의 지역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중앙부처의 인센티브 제공여부와 인허가 처리여부를 확인하는데는 별도의 절차 및 시간이 소요되므로 즉시적 대응 곤란
-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중앙정부차원에서 KISC중심의 절차 및 체계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접점이 되어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인허가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상호 이해가 부족한 상태임

마. 인센티브 제공절차 및 기준의 취약

- 인센티브가 명문화되어 공개되어 있을 경우, 유치협상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유하기 위하여 별도로 제공하는 인센티브로서의 효력이 반감되어 투자 촉진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
- 인센티브라는 정책수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경우와 같이 사안별로 차별화하고 이를 철저히 대외비로 관리하여 즉각적 대응 및 협상의 유연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5. 주요국 외국인투자 정책

가. 영국

1) 외국인투자정책 목표

- 영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은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에 따른 실업증가와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고용창출과 낙후된 지역경제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고용창출 정도와 진출 지역의 낙후성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투자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 4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각 지역이 개별 국가처럼 상당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어 지자체간 투자유치 경쟁체제 양상을 띠고 있으나, 무역산업부 산하의 영국투자국(IBB)이 외국인투자를 총괄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에 설치되어 있는 투자청과 각국 주재 대사관 및 각 지역개발청이 설치한 해외사무소들이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이루고 있음

[표3-11] 영국의 주요 투자유치 기구

조직명	주요 기능	비 고
영국투자청 (IB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SA 등 중앙차원의 보조금 지급기준 결정 · 대형 외국인 투자사업에 대해 지역개발청간의 업무조정 ·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입지·인센티브·회사설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유관기관 알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통상산업부에 설치
지역개발청 (전국 11개 행정구역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업무 담당 · 동종업종에 대한 시장정보에서 공장설립 및 사후관리까지 각종 행정문제를 직접 처리하거나 대행하고 관계기관 알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에서 별도의 기구로 설립 · 민간참여의 형태도 있음

자료 : IBB, 한국무역협회(1998),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개선방안」에서 재인용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2)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 영국은 제도적 장치를 인위적으로 조성함으로써 투자매력도를 증대시키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즉 투자자가 투자한 총자본비용 중 평균 15% 이상을 보조함으로써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가장 유리한 투자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그룹형태로 기업을 운영할 경우 자회사간 손실이전을 인정하여 조세부담을 줄여주는 등 투자자 입장에서 유리한 제도를 갖추고 있음
- 영국의 투자인센티브의 특징은 세금감면이 아닌 직접 보조금 지급형태로서 수혜범위를 투자자와 협상하여 결정한다는 것임. 일반적으로 보조금 형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관리되는 지역선택보조금(Regional Selective Assistance: RSA)과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패키지(local package)로 나눌 수 있음
- 지역선택보조금은 석탄, 철강, 조선 등 전통산업의 사양화로 야기된 대량실업 문제 및 낙후지역 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한 투자인센티브 제도로(내외국 기업불문)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투자기업의 공장, 사무실 부지구입비, 건축비, 플랜트 기계설비 소용비용 등 자본비용(capital cost)에 사용됨
- 보조금 지급기준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투자자와의 사안별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데 보편적으로 고용창출력을 가장 우선하여 고려하며 대개 신규 고용창출 1인당 5~6천 파운드 수준이고, 기타 반도체, 첨단화학 제조 설비투자 등 고정자본 투자시에는 고용창출능력 이외에 설비구입 등 자본투자규모를 감안하여 보조금 규모를 결정함
- RSA는 일반적으로 신규투자에는 지원금액이 크지만, 추가투자 때에는 지원금이 작으며, 그 이유는 이미 투자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영국 이외 지역에 투자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임. 지원재원은 거의 대부분이 영국정부의 예산이며 기타 EU 집행위의 교부금, 각종 민간기업의 지원금 등으로 이루어짐
- RSA와 달리 지방정부 패키지는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을 기반으로 독자적 제공하는 투자인센티브로 채용 및 교육훈련 비용지원, 임대료 감면,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형태로 혜택을 부여하고, 지방정부 패키지는 산업부지 및 공장시설

제 3 장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환경

과 관련된 경우가 많으며, 가장 파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지역의 투자지원제도임

나. 말레이시아

1) 외국인투자정책 목표

-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의 대표적인 투자유치국으로 90년대에 들어서는 급격한 임금상승과 노동력 부족 현상이 현저하게 드러나자 단기적으로는 주변국 저임 노동력을 흡수하여 임금 상승압력을 완화하는 한편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서두르고 있으며, 투자 유치정책을 산업구조고도화, 수출증대, 내국민의 경제적 자립도 증대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86년부터 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제조업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도화했으며, 첨단산업분야에 세금을 감면해주고 종업원 훈련비용이나 수출증진활동 등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반면에 서비스 부문에서는 까다로움
- 외국인투자에 관한 업무는 산업개발청(MIDA)이 총괄하고 산업발전, 공단개발, 산업보호 및 육성 등 경제 및 산업전반에 걸친 정책제안과 외국인투자의 허가 및 경영활동에 관련된 제반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투자조정센터를 해외 15개소, 국내 13개소를 설치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2) 외국인투자정책

-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자국기업과 차별적인 인센티브는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자국기업과 합작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소유지분비율을 제한하고 있고, 소유지분비율을 수출비중, 투자프로젝트의 기술수준, 파급효과, 부가가치 및 원자재 국내조달 정도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자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국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 외국인투자 정책의 기본방향이라 할 수 있음

- 수출비중이 총 매출액에서 80%이상 차지하는 경우 외국인 지분소유한도가 100%로 단독투자가 가능하며 수출비중이 51%~79%는 지분소유한도가 51%~79%, 수출비중이 20%~50%는 30%~51%, 20%미만일 경우에는 최고 30%만이 외국인 지분소유를 허용
- 단 하이테크 제품생산 또는 국내시장 사정상 필요한 제품, 광산 채굴 및 광석 가공과 관련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외국인지분한도 규정을 받지 않고 100%까지 외국인소유가 허용
- 투자인센티브는 조세감면형태로 주어지며, 인센티브 부여 영역은 크게 신규투자 및 재투자 그리고 사안별 기타 인센티브로 나눌 수 있으며, 신규 및 재투자에 관한 인센티브는 투자진흥법을 근거로 하며, 신규투자의 경우 인센티브 수여가 합당하다고 결정된 신규투자자에게 개척자격(pioneer status)과 투자세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라는 두 가지 인센티브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권리가 주어짐
- 기타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개별 특별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기타 인센티브에는 국가전략프로젝트 투자장려책, 첨단기술산업 투자장려책, 산업재산권 취득을 위한 장려책, 중소기업 투자장려책, 산업자생력 강화를 위한 투자장려책, 다국적기업의 지역본사유치를 위한 장려책, 수출장려책 등이 있음
 - 국가전략프로젝트 투자장려책과 첨단기술산업 투자장려책의 인센티브 폭이 가장 큰 데 국가전략프로젝트 투자장려책은 대규모 첨단기술 프로젝트로 국가전략상 필요한 경우 부여하는 인센티브로 10년간 세금 전액면제 또는 최초 투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자본지출에 대한 100% 투자세 공제혜택을 부여함
 - 첨단기술산업 투자장려책의 경우에는 신기술 개발사업에 종사 중인 회사로 지정된 첨단기술회사에 대해 5년간 세금 전액 면제 또는 최초 투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자본지출에 대해 60%의 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다. 싱가포르

1) 외국인투자정책 목표

- 싱가포르 정부는 향후 이러한 첨단산업, 고부가치산업의 육성과 아울러 국제 비즈니스 종합서비스 센터를 지향하고 있으며, 신기술 및 신공정의 도입, 생산성 향상, 첨단산업 육성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수출촉진 그리고 제조업의 육성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중심지로써 국제 비즈니스센터가 되기 위해 외국인투자를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 국제비즈니스센터로서의 육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는 지역본부(Operational Headquarters: OHQ) 지정 우대제도가 있으며, 그 외에 국제무역회사(Authorized International Trader: AIT)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국제물품구매사무소(International Procurement Office: IPO), 국제 원유취급회사(Authorized Oil Trader: AOT)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등을 두고 있음
-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기관으로는 경제개발청(EDB)의 주관하에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부문을 선정하고 다양한 세제 및 재정적 인센티브 발굴하고, 투자의 적절성, 지원자격 심사, 원-스톱 서비스 제공,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정보수집, 공장부지 확보 및 숙련노동력 공급, 원료조달방법 및 하청업자, 합자파트너 소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유럽, 미국, 아시아에 15개의 해외지부를 운영함

2) 외국인투자정책

-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본집약적 및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투자에게 수여하는 투자인센티브인 개척자적(pioneer status)을 강화하고, 고도기술, 자본집약적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투자유치조치가 추가로 도입, 시행되었으며 선도기업 자격을 취득하였던 기업들에 대한 특혜를 연장시켜 주기 위한 사후개척자지위(post-pioneer Status)가 주어졌음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 80년대 이후 현재까지는 고도기술산업 유치단계라 할 수 있으며, 세계시장에서 고관세, 수입수량 제한 등과 같은 무역장벽에 영향을 받게되자 선진국으로부터 규제가 심하지 않고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첨단기술산업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음
- 싱가포르의 인센티브제도는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의 주관 하에 사안에 따라 비공개적,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며, 투자에 따른 투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EDB의 심사를 거쳐야 함
-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고도화와 관련하여 진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로는 개척자격(pioneer status), 추가개척자격(post-pioneer status), 개발확장 인센티브(development and expansion incentive)가 있음
- 수출촉진과 관련한 인센티브에는 수출서비스(export of service)가 있으며, 수출 서비스 인센티브는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두고 실행되는 해외프로젝트 관련 서비스를 통한 수출이 총수입의 20%가 넘거나 연간 10만(싱가포르)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해당 수출 관련 소득세의 90%를 면제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면제기간은 최대 10년임
- 싱가포르에 투자된 기업이 승인된 산업분야(제조, R&D, 건설, 식수절약) 활동을 위한 자본설비에 5년의 법정기한 내 투자를 시행할 때 정부는 신규 투자액의 50%까지 과세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데 이를 투자소득공제 인센티브(investment allowance incentive)라고 함
- 국제비즈니스의 중심지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인 사업본부 설치 (operational headquarter) 인센티브가 있으며, 동 인센티브는 국제적인 조직망을 갖춘 기업으로서 싱가포르 내에 본사업무를 담당하는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해외 자회사를 관리하는 경우 관리비, 이자, 로열티, 외환거래수입, 역외 투자수입 및 기타 소득에 대해 설립 후 최고 10년까지 법인소득에 대하여 일반보다 감면된 세율인 5~10 %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 원천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0년간 비과세를 하여 줌

제 3 장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환경

- 금융지원은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투자진흥 담당기관인 EDB와 기타 유관 기관들의 자체 지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다만 경제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규모 투자는 EDB가 개별 투자 건마다 미공개로 지원폭을 결정하고 있음

[표3-12] 주요국 외국인투자 지원체제 비교분석

국가명	투자유치기관	목표	인센티브	비 고
한국	KISC (Korea Investment Service Center)	산업구조 고도화, 외자유치 및 기업구조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감면 주류 • 지방자치단체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및 촉진활동, 투자신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취득 행정절차 대행 • 투자인센티브 결정 권한 없음
영국	IBB (Invest in Britain Bureau)	실업구제 및 낙후지역 경제의 균등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투자에 효과가 높은 보조금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및 촉진활동, 지역선택보조금 총괄
말레이시아	MIDA (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산업구조 고도화 및 수출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 창출에 비례한 세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투자만 지원 • 독립적 지위와 권한 • 투자홍보, 인허가권, 세제감면 인센티브 결정
싱가포르	EDB	세계화의 중심 산업구조고도화 첨단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감면위주 • 금융지원발달 • 조세감면율을 기술수준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개발청(EDB)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인센티브 제공은 사안별로 다르게 적용

제4장 충남지역 투자여건

제1절 충남의 경제현황

1. 경제활동인구

- 충청남도의 인구는 '90년 2,013천명이었던 것이 '99년 1,919천명으로 나타나 지난 19년 동안 연평균 0.25%의 인구감소를 보였으나 '95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는 증가추세로 반전하였음
- 연령별 인구추이를 보면, 0~14세, 15~29세, 50~64세는 각각 연평균 1.3%, 1.0%, 0.1%가 감소한 반면에 30~49세는 연평균 0.7%, 65세 이상은 연평균 1.4%가 증가하여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음

[표4-1] 충남의 인구변화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연평균 증가율
0~14세	491	373	383	384	382	382	△ 1.3
15~29세	585	446	516	512	503	486	△ 1.0
30~49세	482	476	503	521	539	554	0.7
50~64세	299	195	293	294	294	293	△ 0.1
65세 이상	156	175	177	186	196	205	1.4
합 계	2,013	1765	1,873	1,897	1,913	1,919	△ 0.3

자료 :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각년도.

- '95~'98년 사이 경제활동가능인구(15세이상 인구)는 '95년 1,421천명에서 '98년 1,403천명으로 연평균 0.4%씩 감소하였고, 경제활동인구는 '95년 917천명에서 '98년 896천명으로 연평균 0.8%씩 감소하였으나 이는 IMF 금융위기로 인한 영향으로 '98년 경제활동인구가 급감했기 때문임

제 4 장 충남지역 투자여건

- 실제로 '97년 이전에는 1.0%의 매우 낮은 실업률을 보여왔으나 '97년 이후는 IMF 금융위로 인한 실업자의 급증으로 '98년에는 4.8%의 높은 실업률을 보임

[표4-2] 충남의 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명, %)

구 분	1995	1996	1997	1998	연평균 증가율
충남인구	1,767	1,878	1,903	1,913	2.7
15세이상 인구	1,421	1,418	1,412	1,403	△ 0.4
경제활동인구	917	907	916	896	△ 0.8
-취업자	907	898	904	859	△ 1.8
-실업자	9	9	12	38	61.6
비경제활동인구	504	511	495	507	0.2
경제활동참가율	64.5	64.0	64.9	63.9	-
실업률	1.0	1.0	1.3	4.2	-
가용인구	514	520	508	544	1.9

자료 :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각년도.

- 충남의 학력별 취업구조를 보면, 국졸이하가 44.8%, 중졸이 17.1%, 고졸이 28.2%, 대졸이상인 9.8%로, 전남을 제외하고 학력수준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산업구조가 아직 1차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4-3] 학력별 취업구조

(단위 : %)

구 분	전 국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세 주
취업자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국졸이하	20.1	14.1	31.7	31.4	44.8	35.4	45.7	37.4	21.4	23.4
중 졸	16.7	16.8	19.9	17.2	17.1	15.6	17.1	17.8	17.2	16.8
고 졸	42.9	48.9	35.4	35.9	28.2	33.7	28.6	33.8	43.3	39.1
대졸이상	20.3	20.2	13.0	15.5	9.8	15.4	8.6	11.0	18.1	20.8

자료 :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1999.

2. 산업현황

가.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 충청남도의 지역총생산 '90년 9,337십억원에서 '98년 17,140십억원에 달해 연평균 7.9%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전국대비 비중도 '90년 3.6%에서 '98년 4.4%로 급상승하였음
- 산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1차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진 반면에 2차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차산업의 비중은 '90년 38.6%에서 '98년 47.2%로 크게 상승하였음
- 충남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는 수도권의 인접지역이라는 입지여건과 수도권의 억제정책 등으로 인한 대도시권의 확산 수용효과와 충남의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등에 기인하고, 지역의 발전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 그러나 전근대적 농촌사회로부터 공업화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기술인력 양성·공급기반 구축, 산업기반시설의 정비·확충,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등이 과제로 남아있음

[표4-4] 지역내 총생산(1995년 불변가격)

(단위 : 십억원, %)

구분 년도	전 국	충 남	전국대비 구성비	충남의 산업구조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1990	258,710	9,337	3.61	2,272	3,608	3,457
1991	283,494	10,092	3.56	2,344	3,815	3,934
1992	303,332	11,318	3.73	2,496	4,570	4,253
1993	320,695	12,247	3.82	2,622	5,154	4,471
1994	346,678	13,870	4.00	2,709	5,959	5,201
1995	373,060	14,774	3.96	2,660	6,501	5,614
1996	404,201	17,799	4.40	2,771	8,755	6,273
1997	423,910	18,978	4.48	2,792	9,317	6,869
1998	388,435	17,140	4.41	2,823	8,092	6,225

자료 : 통계청, KOSIS.

제 4 장 충남지역 투자여건

- 충남의 지역별 제조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천안시가 774개의 업체로 전체 업체수의 32%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과 대전시에 인접한 지역일수록 그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고, 그러나 부가가치를 살펴보면 업체수가 낮은 서산이 25.6%를 차지하여 대규모의 사업체가 입주하고 있음
- 이들 업체들은 교통이 발달한 지역에 많이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단지가 입지 한 지역에 집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충남도 내의 지역간 불균형 개발의 심화란 문제점을 안고 있음

3. 제조업 현황

- 사업체수 및 종업원수는 '9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IMF 금융위기 여파로 '97년에 이어 1998년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액과 부가가치는 '91~'98년 사이에 각각 5,315십억원, 2,094십억원에서 107,708십억원, 24,650십억원 증가하고, 일인당 부가가치액은 25.9백만원에서 81.9백만원으로 17.9%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임

[표4-5] 충남 제조업체 성장 추이

(단위 : 개, 인, 십억원)

년 도	업 체 수	월평균 종사자수	생 산 액	부 가 가 치	일인당 부가가치 (백만원)
1990	1,823	76,351	-	-	-
1991	1,866	80,943	5,315	2,094	25.9
1992	2,093	89,197	7,425	2,995	33.6
1993	2,427	97,736	8,969	3,616	37.0
1994	2,580	106,773	11,589	5,095	47.7
1995	2,715	112,354	15,071	6,43	57.3
1996	2,783	121,498	19,796	7,991	65.8
1997	2,615	117,657	24,127	8,864	75.3
1998	2,415	107,708	24,650	8,820	81.9

자료 : 충청남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산업총조사보고서, 각년도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 충남 제조업의 업종별 종사자 구성비를 살펴보면, '98년 현재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업이 12.5%로 가장 높고, 음식료품업(11.7%), 기타 기계 및 장비업(10.4%), 화합물 및 화학제품업(9.7%) 순으로 차지함
- 또한 '91~'98년 사이의 종사자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기타 운송장비업이 36.8%로 가장 높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업(26.9%), 기타 기계 및 장비업(16.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업(13.5%), 고무 및 플라스틱업(11.7%),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업(11.4%) 순으로 10% 이상의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의복 및 모피제품업(-12.5%),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업(-8.3%), 비금속광물업(-7.7%)은 급속하게 감소하였음

[표4-6] 전국 및 충남 업체별 종사자수

(단위 : 명)

업종		계	음식료 품	담배 제조 업	섬유제 품	의복 및 모피제 품	가죽가 방·마구 류 및 신발	목재 및 나무제 품	펄프 종이 및 종이제 품	출,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석유정 제품 및 핵연료 제조	화합물 및 화학제 품	고무및프 라스틱제 품
년도													
전 국	1991	2,918,015	200,173	6,855	339,697	211,278	179,668	42,674	65,161	74,275	9,832	142,968	125,291
	1992	2,801,389	196,587	6,473	323,332	198,401	142,154	39,436	64,409	79,327	9,931	145,708	122,730
	1993	2,885,349	198,481	5,823	316,782	209,580	111,940	42,938	65,325	90,246	10,027	149,767	135,809
	1994	2,929,898	200,557	5,463	304,603	203,140	96,072	41,993	68,673	92,324	10,595	154,354	137,844
	1995	2,951,885	206,451	5,043	280,563	199,800	81,477	40,510	69,129	94,091	12,436	153,272	141,917
	1996	2,897,672	197,747	4,909	256,907	181,685	69,543	37,377	67,187	93,279	12,225	150,339	143,818
	1997	2,698,525	185,754	5,146	223,304	163,148	56,552	30,379	61,535	88,245	14,640	162,695	127,189
	1998	2,979,763	288,486	4,058	266,098	180,473	60,828	38,652	66,996	114,248	20,463	178,426	139,331
충 남	1991	80,943	10,128	192	12,289	3,902	1,201	807	3,795	1,190	970	7,896	3,275
	1992	89,197	11,231	0	12,219	3,160	1,444	852	3,988	1,569	1,107	8,790	3,559
	1993	97,736	12,823	0	10,624	2,768	1,277	952	3,983	1,729	946	8,573	3,983
	1994	106,773	14,051	0	9,464	2,615	1,411	919	4,663	1,834	940	9,257	4,833
	1995	112,354	13,866	0	9,321	2,430	1,105	889	4,946	1,737	985	10,536	5,566
	1996	121,498	14,052	0	8,822	2,587	1,111	876	5,032	1,730	1,126	10,089	7,706
	1997	117,657	13,650	0	7,495	2,081	1,115	758	4,738	1,627	980	10,372	7,167
	1998	121,457	19,721	0	8,089	2,067	696	1,187	4,131	1,783	1,125	10,464	6,516

자료 : 통계청 KOSIS

제 4 장 충남지역 투자여건

[표4-6] 전국 및 충남 업체별 종사자수<계속>

(단위 : 명)

년도		업종	비금속광물제품	속제금속제1차산업	제조업	금속제품	기계및장비제조	사무계산회계및용기계	전기기전기변환장치	영상·음향·통신·정보통신·장비	의료·정밀·화학·기타기계	자동차및트레이저	기타운송장비제조	가구·기타제조업	재생자원처리업
전국	1991	137,965	120,624	153,989	268,372	25,353	107,750	273,861	45,423	182,989	68,508	134,134	1,175		
	1992	138,152	115,980	151,724	259,550	21,332	112,075	260,650	42,170	183,856	65,587	120,641	1,184		
	1993	139,116	116,966	172,541	278,522	28,036	124,087	251,087	46,615	192,709	74,142	123,005	1,805		
	1994	135,941	117,112	186,787	293,613	30,275	125,419	264,173	48,850	209,665	83,611	116,713	2,121		
	1995	132,406	122,353	196,445	301,127	32,184	133,756	272,073	50,224	220,601	90,315	113,413	2,299		
	1996	125,634	116,897	203,692	305,515	31,722	139,975	271,652	49,938	236,074	93,073	105,582	2,902		
	1997	111,871	111,786	183,088	267,965	27,377	124,276	280,931	43,802	219,187	113,774	92,418	3,463		
	1998	108,610	110,439	215,570	279,465	45,430	135,180	249,083	57,832	194,305	98,436	120,769	6,585		
충남	1991	11,952	1,918	3,257	3,892	295	3,060	6,333	1,060	1,557	183	1,774	17		
	1992	13,092	1,668	3,864	5,146	562	4,162	6,967	1,049	2,824	277	1,624	43		
	1993	12,897	1,857	4,918	7,935	489	6,227	7,863	2,128	3,215	383	2,134	32		
	1994	12,588	2,324	6,066	9,436	416	6,507	10,874	1,785	3,982	429	2,308	71		
	1995	11,657	4,479	6,755	10,632	780	6,325	10,789	1,719	5,143	461	2,181	52		
	1996	11,022	4,766	8,559	12,281	1,147	7,016	12,006	1,837	7,357	440	1,869	67		
	1997	8,782	5,229	7,617	12,835	1,187	4,441	12,555	2,507	9,813	605	2,041	62		
	1998	8,104	4,024	8,029	10,063	1,500	5,179	12,088	2,648	10,787	434	2,614	208		

자료 : KOSIS

- 충남 제조업체의 생산액은 '98년을 기준으로 볼 때 24,650십억원으로 전국 425,007십억원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남의 전체 생산액 중 화합물 및 화학제품업이 생산액 4,131십억원으로 16.7%를 차지하고,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업종(9.1%), 자동차 및 트레일러업(6.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6.0%), 제1차 금속산업(5.4%) 순으로 차지함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 '91~'98년간 업종별 생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기타 운송장비업이 55.9%로 가장 높고,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업(48.7%), 자동차 및 트레일러업(47.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업(39.6%) 순으로 빠르게 성장함

[표4-7] 전국 및 충남 업체별 생산액

(단위 : 십억원)

연도	업종	계	음식 료품	담 배 제조업	섬유 제품	의복 및 모피제 품	가죽가 방,마 구류 및 신발	목재 및 나무 제품	펄프,종 이 및 종이제 품	출,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석 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	화학 물 및 화학 제품	고무및 프라스틱 제품
전 국	1991	205,699	17,167	2,975	14,311	5,922	6,643	2,151	5,193	3,190	9,567,178	18,122	7,708
	1992	226,817	19,001	3,037	15,885	6,047	6,368	2,171	5,812	3,875	11,938,107	21,106	8,244
	1993	255,926	20,904	3,224	17,284	7,768	5,585	2,732	6,115	4,943	12,766,450	23,593	9,709
	1994	299,246	23,545	3,254	18,174	8,814	5,554	2,914	7,509	5,684	13,230,778	27,738	11,175
	1995	364,821	26,430	3,379	19,765	10,813	5,441	3,121	9,615	6,875	16,415,970	33,519	14,069
	1996	401,953	29,859	4,049	20,339	10,376	5,546	3,271	9,934	8,105	21,045,051	35,913	14,897
	1997	434,895	31,426	4,195	21,314	10,314	5,108	3,320	10,247	7,866	28,038,455	41,681	15,222
	1998	425,007	33,852	3,728	23,183	7,210	5,129	2,576	10,402	6,936	30,049,161	46,989	15,456
충 남	1991	5,315	1,038	13	392	71	101	30	295	44	574	653	202
	1992	7,425	1,297	0	413	63	128	46	408	68	701	1,316	236
	1993	8,969	1,651	0	535	51	114	69	474	84	729	1,464	277
	1994	11,589	1,786	0	641	68	139	74	646	80	717	1,947	395
	1995	15,071	2,112	0	786	78	131	75	944	124	805	2,505	545
	1996	19,796	2,498	0	925	119	126	85	1,125	163	2,164	2,500	785
	1997	24,127	2,750	0	916	122	139	102	1,253	137	2,940	3,169	937
	1998	24,650	3,051	0	930	65	64	84	1,258	128	0	4,131	1,060

자료 : 통계청 KOSIS

제 4 장 충남지역 투자여건

[표4-7] 전국 및 충남 업체별 생산액<계속>

(단위:십억원)

연도	업종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	기계및장비제조	사무기계및회계용기계	전기기기및전기변환장치	영상·음향·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	기타운송장비제조	가구및기타제조업	재생활자공처리업
전국	1991	10,081	18,168	8,574	17,689	1,486	6,84	19,732	2,055	17,746	5,531	5,070	33
	1992	11,166	19,137	9,206	17,866	1,576	7,867	21,524	2,159	20,249	7,104	5,437	42
	1993	12,015	21,435	10,802	20,079	3,087	8,546	25,812	2,611	23,457	7,481	5,858	119
	1994	13,062	24,911	14,008	24,582	3,721	9,881	32,923	3,220	28,789	9,900	6,454	204
	1995	15,291	31,008	16,958	30,924	5,264	12,555	45,891	3,808	35,090	11,033	7,105	454
	1996	16,409	32,528	20,187	34,551	6,118	16,235	47,181	4,141	40,855	12,619	7,279	514
	1997	17,034	35,204	19,972	36,287	13,313	15,627	44,973	4,803	44,181	16,997	7,100	672
	1998	14,520	38,845	16,140	27,215	13,029	14,224	52,897	4,009	32,787	18,850	6,245	737
충남	1991	676	247	152	169	27	205	216	26	114	11	58	0.14
	1992	675	250	229	327	114	287	596	39	149	15	67	0.32
	1993	821	265	307	675	129	439	491	71	206	19	94	3.31
	1994	872	460	472	942	53	657	953	171	359	50	98	8.52
	1995	1,029	912	580	1,317	213	830	1,200	186	510	49	125	15.14
	1996	1,099	1,385	975	1,659	352	1,112	1,609	228	686	49	141	12.31
	1997	1,091	1,588	1,121	1,987	291	574	2,152	286	2,307	64	181	18.70
	1998	879	1,338	980	1,478	313	696	2,235	420	1,712	241	158	25.60

자료 : 통계청 KOSIS

-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하는 입지계수를 통해 충남의 특화산업을 살펴보면, '98년 현재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업(2.08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업(1.803), 음식료품업(1.552), 화합물 및 화학제품업(1.514),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업(1.181), 조립금속제품업(1.046), 비금속광물제품업(1.042) 등이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음
- 입지계수의 변화추이를 보면, '91~'98년간 음식료품업,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업, 비금속광물제품업은 전국에 비해 지속적인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로 높은 특화도를 보이고 있음

- 조립금속제품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업, 고무 및 프라스틱제품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의 특화도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임
- 반면에 음식료품업, 섬유제품업, 의복 및 모피제품업, 가죽가방, 마구류 및 신발업,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충남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척되고 있음을 보여줌

[표4-8] 충남지역의 업종별 입지계수

연 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제조업	0.992	0.994	0.994	0.995	0.997	0.997	0.998	0.999
음식료품	2.321	2.074	2.241	1.950	1.928	1.694	1.574	1.552
섬유제품	1.051	0.789	0.878	0.906	0.959	0.921	0.773	0.691
의복및모피제품	0.462	0.316	0.188	0.197	0.173	0.232	0.212	0.155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	0.582	0.609	0.578	0.642	0.580	0.461	0.490	0.215
목재및나무제품	0.538	0.639	0.720	0.651	0.579	0.525	0.553	0.564
펄프, 종이및종이제품	2.184	2.130	2.201	2.212	2.368	2.293	2.200	2.083
출판, 인쇄및기록매체 복제업	0.525	0.537	0.482	0.363	0.435	0.408	0.314	0.317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	2.304	1.784	1.621	1.392	1.182	2.082	-	-
화학물질및화학제품	1.384	1.895	1.761	1.804	1.803	1.410	1.368	1.514
고무및프라스틱제품	1.004	0.868	0.810	0.908	0.935	1.067	1.108	1.181
비금속광물제품	2.574	1.837	1.939	1.717	1.623	1.357	1.153	1.042
제 1 차금속제품	0.522	0.398	0.350	0.475	0.709	0.862	0.812	0.593
조립금속제품	0.681	0.754	0.807	0.866	0.825	0.978	1.010	1.046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0.367	0.556	0.954	0.985	1.027	0.972	0.985	0.935
사무, 계산, 회계용기계 제조업	-	2.189	1.186	0.369	0.976	1.167	0.394	0.413
기타전기및전기변환 장비제조업	1.192	1.110	1.458	1.709	1.595	1.387	0.660	0.842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제조업	0.421	0.842	0.540	0.744	0.631	0.690	0.861	0.7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0.487	0.555	0.767	1.364	1.178	1.115	1.073	1.803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0.247	0.223	0.249	0.321	0.351	0.340	0.939	0.899
기타운송장비제조업	0.075	0.066	0.073	0.130	0.107	0.079	0.068	0.220
가구및기타제조업	0.438	0.375	0.457	0.389	0.423	0.392	0.458	0.435
재생재료가공처리업	-	-	-	1.075	0.805	0.485	0.501	0.598

4. 산업단지 현황

- 시·도별 공영개발 미분양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장기예측성 및 문제해결 능력의 부족과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 토지, 주택이 과다한 상태임
- 미분양 토지의 총 면적은 3,181.4천평에 달하며, 이중 충남은 707.4천평으로 2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남의 미분양토지를 용도별로 보면 산업용지가 472천평으로 66.7%, 택지가 113.2천평으로 16%, 상업용지가 81.9천평으로 11.6%, 공공용지가 40.3천평으로 5.7%를 차지함

[표4-9] 공영개발 미분양토지 현황(1999)

(단위 : 천평, 억원)

구 분	합 계		택 지		상업용지		공공용지		산업용지 등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계	3,181.4	42,178.9	881.5	10,534.7	507	16,891.5	721	10,227.1	1,071.9	4,524.6
서울	135.7	5,186	20.4	721	38.7	2,603	70.6	1,682	6	180
부산	379	6,860	258	3,029	40	2,527	81	1,304	-	-
대구	-	-	-	-	-	-	-	-	-	-
인천	57	1,998	0.3	7	31	1,224	16	400	9.7	367
광주	51.2	1,649	25.1	367	26.0	1,280	0.1	2	-	-
대전	-	-	-	-	-	-	-	-	-	-
울산	29	158	-	-	-	-	-	-	29	158
경기	601	10,453.7	116.3	1,796.4	81.6	2,862.9	341.5	4,914.1	61.6	879.3
강원	139	2,119	69	727	59	1,309	2	18	9	65
충북	170	899	4.7	39	5.7	252	9.6	178	150	430
충남	707.4	4,281	113.2	1,033	81.9	1,273	40.3	358	472	1,617
전북	184.2	1,146	77.8	733	9.1	194	13.3	94	84	125
전남	313.8	3,110	50.2	656	64.1	1,464	70.5	467	129	523
경북	136.2	298	21.3	131	10.7	66	-	-	104.2	101
경남	235.6	3,866.9	108.2	1,240.3	57.1	1,813.6	66.1	786	4.2	27
제주	42.3	154.3	17	55	2.1	23	10	24	13.2	52.3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00.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 산업단지의 분포현황을 보면, 전체면적 73,292천㎡중 당진군이 18,087천㎡(27.4%), 서천군 16,746천㎡(22.8%), 서산시 9,664천㎡(13.2%), 보령시 7,998천㎡(10.9%) 순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농공단지의 분포현황은 비교적 균형적이지만 그 밖의 산업단지는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음
- 산업단지의 입지현황을 보면, 타 지역과의 교통수단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밀집되어 지역간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따라서 균형적인 발달을 위해 지역중심성과 공간 통합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대 및 각종 지원책이 필요함

[표4-10] 충청남도의 시·군별 산업단지 분포현황('98)

(단위 : 개소, 천㎡, %)

구 분	계			국가산업단지		지방·기타산업단지		농공단지	
	개소	면적	구성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84	73,292	100.0	6	39,904	20	24,321	58	9,067
천 안 시	12	5,357	7.3	1	699	7	3,970	4	688
공 주 시	5	650	0.9	-	-	-	-	5	650
보 령 시	7	7,998	10.9	1	4,749	1	2,439	5	810
아 산 시	9	6,165	8.4	-	-	2	5,449	7	716
서 산 시	7	9,664	13.2	1	842	3	7,690	3	1,132
논 산 시	6	1,050	1.5	-	-	2	591	4	459
금 산 군	3	1,157	1.6	-	-	1	825	2	332
연 기 군	7	3,701	5.0	-	-	4	3,357	3	344
부 여 군	4	564	0.8	-	-	-	-	4	564
서 천 군	3	16,746	22.8	1	16,195	-	-	2	551
청 양 군	5	859	1.2	-	-	-	-	5	859
홍 성 군	3	419	0.6	-	-	-	-	3	419
예 산 군	5	769	1.0	-	-	-	-	5	769
태 안 군	1	106	0.1	-	-	-	-	1	106
당 진 군	7	18,087	24.7	2	17,419	-	-	5	668

자료 : 충청남도, 지역경제백서, 1999

제 4 장 충남지역 투자여건

- 단지유형별 개수는 지방산업단지가 '98년 18개소에서 '00년 22개소로 가장 많이 늘어났으며, 분양률은 '00년 현재 국가산업단지 89%, 지방산업단지 94%, 기타 100%, 농공단지가 94%로 국가산업단지 분양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국가산업단지 중 아산산업단지(부곡지구)의 미분양률이 42.4%로 가장 높고, 지방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은 원산산업단지 42.6%, 관창산업단지 18.0%, 대죽산업단지가 16.1% 순으로 나타남

[표4-11] 충청남도의 산업단지 분양현황

(단위 : 개, 천㎡, %)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단지유형	국 가	지 방	기 타	농 공	국 가	지 방	기 타	농 공	국 가	지 방	기 타	농 공
단지수	6	18	3	57	6	19	3	58	6	22	3	58
지정면적	39,904	22,842	9,082	8,944	39,970	23,771	9,082	9,064	38,511	24,577	9,082	9,067
부지조성	7,861	10,919	9,082	8,582	9,826	11,183	9,082	8,687	9,906	13,702	9,082	8,829
분양대상	6,774	15,072	7,945	7,095	9,548	17,197	8,216	7,183	9,249	17,852	8,216	7,193
분양면적	6,512	13,765	7,945	6,766	8,390	15,197	8,216	6,767	8,196	16,816	8,216	6,763
분양률	96	91	100	95	88	88	100	94	89	94	100	94

주 : 분양률 = 분양면적/분양대상면적.

자료 : 충청남도, 공업기술과, 2000.

- 충남에서 현재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 현황은, 6개 단지에 39,904천㎡를 조성하여 632개 업체 유치를 목표로 고정산업단지가 입주하였고, 아산(부곡) 산업단지가 조성중이며, 석문, 장항, 대죽 자원산업단지가 착수준비를 하고 있음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표4-12]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상황

(단위 : 천㎡, 억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추진 상황
	규모	사업비	목표년도	
군장(장항측)	16,195	9,316	2001	· 경제난 등으로 입주업체 미확보, 착공지연 · 어업권보상, 진입도로, 도류제 건설중 - 약 3천억 투입 · 사업구역 변경협의중 : 490만평⇒450만평
아산(부곡)	3,112	2,153	1999	· 부지조성 공사중 : 공정 89% ('99말 완료예정) · 일부입주업체 착공 : LG에너지
석문	12,084	12,326	2001	· 입주업체에 대한 주민반대, 경제난등 입주업체 미확보 착공지연 · 실시설계완료, 진입도로 확포장중
대죽자원	842	3,160	2000	· 실시설계중 ※ 석유비축기지

자료 : 충청남도, 공업기술과, 2000.

- 또한 10개의 지방 및 기타 산업단지와 4개의 농공단지가 조성중이나 '97년 IMF 금융위기로 진척이 매우 부진한 상태임

[표4-13] 지방 및 기타 산업단지 추진상황

(단위 : 천㎡, 억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추진 상황
	규모	사업비	목표년도	
성거	943	755	2002	· 현대전자 대행개발 -구조조정, 빅딜등으로 착공지연
관창	2,439	1,340	2000	· 단지조성중 : 공정 80% · 대우그룹 입주
인주 1	1,616	1,442	1999	· 미착공, 입주예정업체부도 (신호그룹)
아산T/C	2,021	2,100	2001	· 미착공, 보상완료
대죽	2,099	2,109	2001	· 공정 48%
서산	3,938	4,050	2001	· 공정 55%
대산	1,660	1,898	2000	· 미착공
금산	825	389	2000	· 공정 98%
논산	263	152	'99	· 미착공, 문화재 지표조사중
월산	1,646	1,527	'99	· 공정 46%

자료 : 충청남도, 공업기술과, 2000.

제 4 장 충남지역 투자여건

[표4-14] 조성중인 농공단지 추진상황

(단위 : 천㎡, 억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추진 상황
	규모	사업비	목표년도	
논산 연무	122	73	2000	·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완료 ※ 상반기 실시계획 승인, 하반기 착공
청양 운곡	148	60	1999	· 조성공사 준공 : '99. 6 ※ 용지분양 상담중 : 7개업체 15천평
청양 학당	142	82	1999	· 단지조성 승인고시 : '99. 3 ※ 실시설계 및 용지매입 보상 심의중
홍성 은하	119	58	2000	· 실시설계 : '99. 6 ※ 7월경 공사착공

자료 : 충청남도 공업기술과

- 분기별 생산량과 수출량을 보면, 2000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단지별 생산 및 수출현황은 고용현황과는 달리 기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농공단지가나 국가산업단지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생산품목은 내수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표4-15] 생산 및 수출현황

구 분		생 산 (십억원)		수 출 (백만불)	
		당 분 기	누 계	당 분 기	누 계
1998 2/4 분기	계	2,582	4,023	695	1,252
	국 가	306	664	2	5
	지 방	542	1,084	81	162
	기 타	1,522	1,928	540	943
	농 공	518	1,012	75	147
1999 2/4 분기	계	2,067	4,126	1,077	2,033
	국 가	402	765	6	7
	지 방	868	1,629	425	702
	기 타	599	1,166	560	1,072
	농 공	600	1,331	92	259
2000 2/4 분기	계	4,107	7,773	2,034	3,766
	국 가	97	187	26	42
	지 방	2,114	4,007	913	1,584
	기 타	1,271	2,375	1,008	1,882
	농 공	723	1,391	113	300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 공장용지 분양가격을 비교해 보면, 부산의 녹산산업단지가 평당 65.6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천안산업단지(51.2만원), 석문단지(50.5만원), 경기 아산(41.7만원), 시화(41.3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충남지역과 수도권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임

[표4-16] 주요 국가산업단지의 분양현황

(단위 : 천㎡, 천원/평)

지역	산업단지명	공장용지	분양면적	분양가격	입주업종
부산	녹 산	4,125	1,835 (44.4%)	656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광주	광주첨단	1,736	1,055 (60.7%)	379	정밀화학, 생물공학, 항공, 정보산업, 신소재산업
	평동외국인	627	193 (30.7%)	286	첨단고도기술업종, 일반제조업
경기	시 화	10,079	8,685 (86.1%)	413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아산(포승)	4,573	1,839 (40.2%)	417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공해업종과 레미콘, 아스콘업종 제외)
강원	북 평	1,143	87 (7.6%)	267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충남	석 문	6,966	-	505	섬유, 기계장비, 조립금속
	아 산	4,914	3,652 (74.3%)	347	전제조업(일부공해업종 제외)
	천 안	492	327 (66.4%)	512	첨단기술 및 제품생산업
전북	군 산	5,577	4,745 (85.0%)	198	자동차, 정밀기계, 전기전자, 고무화학
	군 장	6,353	1,551 (24.4%)	308	종이제품, 음식료품, 조립금속
전남	대 불	6,293	1,478 (23.4%)	229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여 천	22,297	21,067 (94.4%)	238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경북	구 미	12,834	12,797 (99.7%)	400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경남	온 산	14,316	12,273 (85.7%)	154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울산미포	29,168	25,408 (87.1%)	254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자료 : <http://kicox.or.kr>

제 4 장 충남지역 투자여건

-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과학연구단지 조성 시 단지의 분양가를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대신 건폐율을 20% 이하로 제한하는 반면에 우리나라 대만 등의 경우 건폐율을 60~80% 수준까지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분양가의 평면적 비교는 현실을 심하게 왜곡시킬 우려도 있음
- 그러나 평당 분양가를 외국 주요 국가산업단지와 비교해볼 때 일본, 대만, 싱가포르보다는 저렴하나 주요 경쟁국가인 아시아의 개발도상국가들 보다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4-17] 아시아 대양주 국가별 산업단지 분양가(1995. 3)

국 명	산업단지	평당 분양가(천원)	비 고
일 본	시바공단	2,376	
대 만	핑통자동차공단	1,950	남부 핑통주
싱 가 폴	주룽공단	1,069	
한 국	국가산업단지	348	국가산업단지 평균분양가
태 국	시암공단	163	라용주
호 주	빌라우드공단	157	시드니에서 40km
말레이시아	세렌다공단	141	
인도네시아	카라왕국제공단	124	
중 국	원홍공단	77	상해와 광둥중간
인 도	파티알라공단	47	편잡지방
필 리 핀	로사리오공단	5	마닐라에서 100km

자료 : 칼리어스 자단(건설교통부, 산업단지개발 지원제도 개선방안연구에서 재인용)

5. 충남의 산업진흥 실행계획

가. 목적

- 충청남도 지역산업 혁신체제 구축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충청남도의 산업발전 현황과 혁신역량을 평가하고, 충청남도의 전략산업 중 석유화학, 자동차, 정밀화학산업의 육성전략과 동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집적지의 활성화(제3테크노벨트 조성) 방안을 제시함

나. 기본방향

- 21세기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
 - 수도권과 대덕연구단지에 인접하여 우수한 전문·기술인력의 확보가 용이하고, 서해안고속도로, 고속전철 등 초고속광역 교통체계 확충의 입지우위성을 바탕으로 지식기반산업의 적극 육성
- 산업입지의 복합화와 전문화 추진
 - 산업생산 수단의 다양화·고도화·전문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쟁력 있는 업종으로 특화, 연관산업의 집적화 추진
- 기존산업의 성장기조를 유지하면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친환경업종으로 구조조정
 - 충남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자동차부품, 철강, 음식료 등 지연산업을 첨단기술과 접목을 통하여 정밀화학·특수신소재산업으로 등으로 육성
 - 기존 업종과 첨단기술이 접목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산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조정
- 중소·벤처기업을 중점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수도권에 인접, 전문기술인력 확보용이, 교통·인프라 확충 등 입지우위성

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유치, 창업활성화 등 추진

- 공장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창업·연구개발·생산·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기업지원제도 혁신

○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반 구축

- 항만, 물류, 유통 등 산업기반 확충을 통한 동북아 교역의 거점 육성,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의 유치 등 산업화 촉진

다. 중점 추진내용

○ 도전역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식기반산업지구, 산업구조고도화지구, 첨단중소·벤처지구 등 핵심거점지구를 조성하여 3각축을 구축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집적을 유도함

- 북부권(신지식산업지구) : 충남의 북부권은 정부의 수도권기업 이전촉진시책에 따른 수도권기업들이 입지하기 가장 유력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경부고속전철의 건설에 따른 획기적인 교통여건 개선, 충남테크노파크, 순천향대학, 호서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 등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되어 있어 기술인력과 첨단정보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
- 서해안권(산업구조고도화지구) :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에 산업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대산항, 석문항, 아산항과 연계 동북아교역의 중심지로 부상될 전망이다. 따라서 석유화학, 철강 등 기존의 장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적 산업을 적극 유치 특화시킴
- 동남부권(중소·첨단벤처지구) : 대덕연구단지 연구기관의 벤처기업 창업활성화 분위기의 성숙, 천안~논산 고속도로,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교통여건의 획기적 개선됨에 따라 대덕연구단지의 과학기술 연구기능과 생산기능이 결합된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표4-18] 충남의 산업진흥계획

구 분	지 역	개발여건과 필요성	추진전략
북 부 권 (지식기반산업지구)	천안~아산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 제조업의 43.1%가 집중 특히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부품, 영상·음향산업등 특화 ○수도권기업 입지에 가장 유력한 지역 ○충남테크노파크, 순천향대, 호서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대학과 연구기관이 집중되어 기술인력과 첨단정보 등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 ○경부고속전철이 추진되고 있는 등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고용인력 확보용이 시장 접근성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도기술산업 및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산업중심의 선별적 유치를 통해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산업집적지로 육성 ○입지적합업종 및 기존 주력업종군을 중심으로 한 군집을 형성⇒자동차, 카일렉트로닉스, 반도체·반도체장비, 영상·음반산업 등 ○수도권지역으로부터의 산업이전 수요 및 신규 창업수요를 체계적으로 수용 ○군집 형성지역 또는 특정 산업단지를 신산업지구로 지정하여 국가공단 및 중소벤처단지 등에 준하는 지원 및 인센티브를 제공
서해안권 (산업구조고도화지구)	서해안고속도로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해안고속도로개통에 따라 고속도로IC 부근의 산업수요 확대될 전망 ○대산항, 석문항, 아산항과 연계 서해안시대 동북아 교역의 중심지로 수출위주의 산업 및 신규 임해형 산업입지 수요가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유화학, 철강등 기존산업이 「산업구조고도화 지구」 지정 및 수도권 서남부 지역과 연계한 「기계산업 지구」로 지정 개발 ○대산·당진항과 석문산업단지를 연계하여 수출자유지역(무역투자자유지역)을 설치하고, 서해안 지역의 교역 및 산업거점으로 육성 ○무역투자자유지역의 효과를 내륙지역에 확산시키기 위해 동 지역주변부 및 대 중국 교역유망업종 중심으로 신산업지구로 지정하여 산업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 ○서해안고속도로 완공과 함께 예상되는 수도권으로부터의 산업이전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유망 특성화산업 중심의 선별적 유치 및 육성전략을 수립⇒철강, 정밀화학, 일반기계, 관광산업 등

제 4 장 충남지역 투자여건

동·남부권 (첨단중소· 벤처지구)	대덕연구 단지 근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대덕연구단지 연구기관의 벤처기업 창업활성화 분위기에 따라 인근 충남지역에 벤처창업기업 유치여건이 성숙 ○ 대전·청주등 대도시 시장과 접근성이 용이한 점을 감안 각 기업의 대전 근교인 충남지역 입지 선호도가 증가 ○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라 교통여건 획기적 개선으로 기술인력 확보 등 기업 입지요건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기반산업 및 벤처산업집적지를 형성함 대덕연구단지의 과학기술연구기능과 생산기능이 결합된 국가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 대덕연구단지의 외곽지역(공주, 연기, 계룡출장소 등)에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및 경영지원센터, 인큐베이터 등 벤처기업이 입지환경을 개선 벤처기업 창업중심지로 육성 ⇒ 정밀기기, 정보통신기기, 메카트로닉스 산업등 ○ 기술·인력·시장·자금등에 대한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벤처투자, 관련산업 및 기업중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체를 형성 지원
--------------------------	-------------------	--	--

-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 일반기계산업, 철강산업, 음식료품가공산업 등 4대 비교우위의 구조고도화산업의 특화도를 제고시키고, 지연·특화산업에 신기술을 접목시켜 고부가가치화
- 수도권·대덕연구단지와 인접하여 신기술 산업인력 확보에 유리한 이점을 최대 활용을 통해 반도체산업, 영상·음반·컨텐츠산업, 정밀화학산업, 정밀기기산업 등 7대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고도화 실현
- 산·학·연 연계를 통한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 집중 육성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하여 충남의 산업발전 비전에 부합하는 유망기업 유치
- 소비자 중심의 유통구조 선진화와 광역교통체계 조기 확충하여 유통·물류산업의 체계적 육성
- 물류, 유통, 수송, 전력, 용수, 정보, 입지 등 산업화 여건 조성하여 산업진흥 기반시설 조기확충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미분양 산업용지 해소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표4-19] 산업단지별 중점업종

구 분	산업단지별	규모(천㎡)	중 점 업 종
북 부 권 (지식기반산업지구)	영상문화복합단지	1,090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제작, 상영, 교육, 판매, 전시등
	역세권신도시 미디어벨리조성	1,653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전문교육 및 연구 기관, 멀티미디어 정보센터, 미디어타크등
	아산테크노컴플렉스	2,021	반도체 중심의 연관첨단 산업단지로 육성
	인주제1지방산업단지	1,616	자동차 및 부품, 기계 전문단지로 육성
	천안제4공단	1,000	자동차부품, 기계전문단지로 육성
	천안직산벤처·중소기업전문단지	188	벤처빌딩, 중소기업전용공단으로 육성
	성거지방산업단지	943	정보통신기기산업
서해안권 (산업구조고도화지구)	아산부곡국가산업단지	3,112	반도체 및 기계산업
	석문국가산업단지	12,084	정밀화학, 철강및연관산업(기계등)
	태안지방산업단지	3,300	메카트로닉스산업
	홍성갈산중소기업 전용공단	1,260	축산물가공등 음식료품 기계산업
	관창지방산업단지	2,439	자동차부품, 정보통신
	장항국가산업단지	16,195	중화학 공업
동·남부권 (첨단중소·벤처지구)	연기첨단산업단지	300	정밀기기산업, 정보통신산업등 첨단산업
	월산지방산업단지	1,646	중소기업 전용공단
	계룡입암산업단지	300	벤처창업단지
	논산중소기업전용 공단	263	중소기업전용공단
	금산인삼특수단지	1,000	금산 인삼, 약초등 음·식료(건강보조식품)산업육성
	공주(의당·장기) 첨단산업지구	300	영상·문화·정보등 첨단산업

자료 : 산업연구원, 충청남도 산업진흥 실행계획, 2000. 12.

제2절 사회간접시설

1. 교통현황

- 충남의 도로연장은 6,007.9km로 전국 도로연장의 6.9%를 차지하며, 포장률은 전국 평균인 74.5%보다 낮은 71.1%, 화물수송량은 전국의 5.3%인 30,090.7천톤/년, 여객수송량은 전국의 3.1%인 410,013.2천인/년으로 나타남
- 또한, 자동차 보유대수는 전국의 4.0%인 414,511대이며 천인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전국평균인 223.4인보다 약간 낮은 216.0인으로 나타났음

[표4-19] 충남의 교통현황

구 분		단 위	전 국(A)	충 남(A)	비율(B/A, %)
인 구		천 인	46,858.0	1,919.3	4.1
면 적		km ²	99,407.9	8,584.8	8.6
인구밀도		인/km ²	471.4	223.6	-
도 로 ¹⁾	연 장	km	86,989.7	6,007.9	6.9
	포장률	%	74.5	71.1	-
	여 객	천인/년	13,144,993.0	410,013.2	3.1
	화 물	천톤/년	567,023.0	30,090.7	5.3
철 도 ²⁾	연 장	km	3,124.7	268.1	8.6
	여 객	천인/년	826,050.0	21,483.4	2.6
	화 물	천톤/년	43,345.0	2,893.3	6.7
자 동 차 ³⁾	보유대수	대	10,469,599.0	414,511.0	4.0
	보유율	대/천인	223.4	216.0	-

자료 : 1) 건설교통부 도로현황조서, 1999년.

2) 철도청, 충남통계연보, 1999년

3) 충청남도, 충남 통계연보, 1999년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표4-20] 시·군별 교통현황

구분 시·군별	총연장 (km)	포장도 (km)	포장률 (%)	구분 시·군별	총연장 (km)	포장도 (km)	포장률 (%)
계	6,008	4,270	71.1	연기군	221	152	68.8
천안시	913	580	63.6	부여군	361	270	74.8
공주시	677	409	60.5	서천군	313	236	75.2
보령시	324	270	83.3	청양군	302	237	78.5
아산시	555	342	61.7	홍성군	270	215	79.8
서산시	385	272	70.6	예산군	281	239	84.8
논산시	465	377	81.1	태안군	289	207	71.6
금산군	287	205	71.2	당진군	365	259	71.1

자료 :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1998.

- 철도시설 현황을 보면, 경부선, 호남선, 장항선, 충북선 등 4개 노선과 강경선, 남포선, 서천화력선 등 3개의 지선을 포함하여 7개 노선에 총연장 268.1km이고, 철도역은 경부선의 성환역~매포역, 호남선의 두계역~강경역, 그리고 장항선의 모산역~장항역 등 총 45개 역이 있음
- 경부선 및 호남선은 복선철도이나 각각 도내의 동북단과 동남단에 치우쳐 있어 통과수송 위주로써 지역 내 여객 및 물동량 수송에 대한 기여도는 떨어지며, 나머지 3개의 지선철도 또한 극히 일부지역만 접속하여 내륙지방의 철도여건이 미약하고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미흡함

[표4-21] 충청남도 철도시설 현황

구 분	구 간	거 리(km)	비 고
경 부 선	성환 ~ 매포	60.1	복 선
호 남 선	두계 ~ 강경	30.1	복 선
장 항 선	모산 ~ 장항	142.1	단 선
강 경 선	채운 ~ 연무대	9.0	"
충 북 선	조치원 ~ 봉양	4.4	"
서천화력선	간치 ~ 동백정	17.1	"
남 포 선	남포 ~ 옥마	4.3	"
충 남(A)		268.1	-
전 국(B)		3,124.7	-
비율(A/B, %)		8.6	-

자료 : 대전지방철도청, 철도통계연보, 1999.

제 4 장 충남지역 투자여건

- 항만시설은 무역항 5개소와 연안항 2개소로 접안능력의 경우 전국항만(584선석)의 4.3%인 25선석이며, 하역능력은 전체 357,351천톤/년의 11.1%인 39,814톤/년으로 접안능력이 빈약하고, 컨테이너 시설이 없어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하고, 태안과 보령항에서의 석유화학·철강제품을 제외한 대다수 수출입 물동량은 인천·부산항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 앞으로 중국과 교역증대 등 동북아시아 국제교역의 거점으로 물동량 처리를 위한 항만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항만시설 확충이 시급함

[표4-22]충남의 항만 현황('98. 12)

구 분		시설지정일	항내수 면적(km ²)	수심 (m)	유속 (N/S)	조위차 (m)	항만시설	
		항만지정일					접안능력 (선석)	하역능력 (천톤/년)
무 역 항	계		439.7				25선석	39,814
	보령항	-	47	14-28	1.4-2.0	7.8	2선석 (13만톤)	9,715
		'83. 8.30						
	대산항	'91. 2.25	62	11-40	3.2-4.4	9.2	16선석 (25만톤)	21,735
		'91.10.14						
	장항항	'38.1.1개항	1.1	2-9	1.6	7.0	2선석 (8천톤)	660
		'68. 1. 4						
	아산항	-	320	1-14	1.5	8.1	4선석 (5만톤)	2,229
		'86.12. 5						
연 안 항	태안항	'95.11. 7	9.6	18-19	3-4	5.2-7	1선석 (15만톤)	5,475
		'98. 2.24						
	계		8.43				465	196
	대천항	'68. 1. 4	0.43	1-10	1.4-2.0	7.9	392척 (최대200톤)	196
	비인항	'68. 1. 4	8	18-19	2-8	7.1	73척	-

주 : 당진화력 전용부두는 연료반입부두로 3선석 완공(15만톤 2천톤 3천톤급), 비지정항임.
자료 : 충청남도 해양수산과

2. 교통망 확충계획

가. 기본방향

- 동서와 남북을 상호 연결하는 격자형 도로망의 구축
 - 주요 항만, 철도거점 등 교통결절점 및 물류거점에 고속도로망을 연결하고, 대중국과 무역량 확대에 대비하여 서북부지역 공업단지 및 주요항만과 연결 처리할 수 있는 수송체계를 조성
- 물동량 수송위주의 철도용량 확충
 - 서북부지역 공업단지의 물동량 수송과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하여 관광, 휴양, 레저인구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광역철도 교통체계를 구축
- 산업시설과 연계된 거점항만 시설확충
 - 수출입 물량의 부산, 인천항 이용에 따른 중부권 물류비 경감을 위한 무역항을 중점 건설
- 기존 군용공항의 민항기 취항요건을 조성

나. 추진계획

- 현재 추진중인 도로확충 상황은 고속도로 5개노선 384.1km, 국도 4차로 확장 57지구 593.5km, 지방도 202지구 167.6km 등 총 연장 1,145.2km를 개설중이며, 또한 앞으로 계획기간인 2004년까지는 고속도로 257km, 국도 285km, 지방도 115km, 시군도 150km 등 총 807km 도로를 확충하여 전국은 물론 지역간 원활한 교통망 체계를 갖출 전망
- 도로율은 '98년말 km^2 등 총 0.72km에서 2004년에는 0.77km로 상향되고, 도로포장률은 '98년 말 71.1%에서 2004년에는 79.3%로 상향될 전망

제 4 장 충남지역 투자여건

[표4-23] 도로형태별 확충계획(2000~2004)

(단위 : 억원)

도로형태	사업량 (km)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계	807	61,493	51,256	1,220	544	8,473	
고속도로	257	32,650	24,177			8,473	
일반국도	258	24,590	24,590				
지방도	115	2,440	1,220	1,220			
시 군 도	150	1,813	1,269		544		

자료 : 충청남도 도로교통과

- 철도는 2006년까지 장항선 복선화를 추진하고, 동서산업 관광철도 등 3개 노선 273km를 계획기간 내 착공하여, 2010년경 완공함으로써 도로망과 연계수송이 가능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임

[표4-24] 철도건설계획(추진중인사항 포함)

(단위 : 억원/km)

구 분	구 간	사 업 비	사 업 량	사업기간	추진사항
계		4조7,259	405.2		
경부선 전철화	천안~조치원	857	32.7	'90~2002	'99실시설계
장항선 개량	소계	2조2,422	99.5		
	천안~온양 (복선전철)	4,490	16.5	'97~2004	'99실시설계
	온양~장항 (직선화)	1조3,826	72.0	'97~2006	'99실시설계 용지매입
	군산~장항 (철도연결)	4,106	11.0	'97~2006	'99실시설계 용지매입
동서산업 관광철도	천안~태안 (안흥)	1조5,000	120.0	'99~2010	'99타당성조사
호남 고속철도	천안~공주~ 논산	8,380	68.0	2001~2011	
내륙관광 철도	보령~청양~ 공주~조치원	600	85.0	2000~2011	

자료 : 충청남도 도로교통과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 무역항은 아산항, 장군신항, 보령신항등을 거점항만으로 개발하여 2011년까지 총 76선석, 연간 하역능력 64,937천톤 규모로 확충할 계획임
- 아산항은 아산만 신산업지역과 수도권 남부지역을 지원하면서 대중국 및 환황해권 교역을 장군신항은 서해안시대에 대비하여 서해중부지역(충남, 전남)을 지원하고, 보령신항은 웅천 및 관창지방공단 및 대천지역 관광개발을 보조하며, 대산일반항은 기업전용항과 연계한 일반항으로 개발함
- 현재 충남은 정부의 공항시설 계획이 없는 상태이어서 신공항 건설에 따른 막대한 자본투자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서산 군기지를 이용하여 민항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용 경비행기를 이용한 경비행장건설을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함

[표4-25] 항만 · 공항 확충계획

(단위 : 선석, 천톤/년, 억원)

구 분			규 모	처리능력	투자기간	사업비(민자)
항 만	아 산 항	아산항(한보)	7	21,746	1990~2001	7,667
		아산항(고대)	9		1996~2001	
		석 문 항	6		1996~2001	
	군 장 신 항		32	32,000	~2001	4,775
	보 령 신 항		2만톤급 11선석	5,051	1999~2011	3,437
	대 산 신 항		-	-	~2011	-
	안 흥 신 항		-	-	~2011	600
	대 천 항		-	-	~1988	205
공 항	서산 민간공항				-	신규계획검토
	경 비 행 장		(공주, 논산, 아산, 논산)		2002~2011	"
	보령 경비행장				2002~2011	"

자료 : 충청남도 아산만권 · 장군권 · 대전청주권 광역개발계획
충청남도 21C충남장기발전비전, 4대권 경영개발구상

제3절 산업인력 육성

1. 학교 개황

- 산업인력의 공급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44개 실업고, 9개 전문대학, 12개 교육·종합대학, 35개 대학원 등 총 100개의 학교에서 배출하는 약 52천명의 졸업인원과 수도권과 대전지역에서 배출되는 382천명의 가능 수용인원을 고려할 수 있음

[표4-26] 수도권 및 대전·충남의 학교 개황(1998)

(단위 : 개소, 천명)

구 분	학교수					학생수(졸업인원)				
	계	실업고	전문대	대학	대학원	계	실업고	전문대	대학	대학원
수도권	708	240	49	68	351	342	119	92	82	49
대 전	55	14	5	7	29	40	9	12	15	4
충 남	100	44	9	12	35	52	14	12	24	2

자료 : 충청남도, 21세기를 위한 산업진흥 5개년 계획, 1999.

2. 공업고등학교

- 공업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중 대부분은 기계·전기·전자에 치중되어 있고, 학생의 구성도 대부분이 남학생이 차지하고 있음. 또한 졸업상황을 분석해 보면 졸업생들 중 자격증취득을 못했더라 하더라도 취업을 하거나 진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기능숙련인력의 부족으로 수요에 공급이 미치지 못함을 보여줌. 따라서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과 다양한 학과의 설치가 필요함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표4-27] 공업고등학교<자동차, 전기전자, 석유화학, 화학, 기계>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졸 업 상 황							
	학급 수	재학생수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국가기술 자격취득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합 계	252	10,258	860	3,752	380	1,344	86	2,063	229	3,242	271
금속과	6	220	-	63	-	28	-	35	-	63	-
기계과	67	2,720	7	1,049	31	335	9	575	22	885	-
자동차과	18	762	6	265	-	108	-	128	-	179	-
전기과	48	2,024	117	714	58	246	15	423	42	591	12
전자과	46	1,819	297	641	112	223	14	313	52	576	101
정밀기계과	12	462	-	169	-	57	-	112	-	169	-
통신과	6	243	15	96	3	47	-	49	3	88	3
화공과	10	417	37	157	22	56	4	101	18	144	22
화학공업과	12	476	60	174	18	77	1	92	17	174	18
전자계산기 과	3	146	107	150	102	72	36	56	48	150	102
환경공업과	3	109	60	50	21	18	7	32	14	-	-
전자기계과	8	341	1	81	-	27	-	54	-	81	-
전자계산과	9	376	48	143	13	50	-	93	13	142	13
컴퓨터그래 픽과	4	143	105	-	-	-	-	-	-	-	-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9.

3. 전문대학교

- 충남에 소재한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수 기준으로 기술인력 교육현황을 보면, 자동차·기계계열이 959명, 전기·전자계열 1,080명, 석유·화학계열이 240명으로 전기·전자계열이 47.3%를 차지함
-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전문대학에서는 서해안시대의 인력 수급에 맞추어 입학정원을 늘리고 전문적인 산업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음

[표4-28] 전문대학(2년제)

(단위 : 명)

학 교 명	자동차·기계계열	전기·전자계열	석유·화학계열
합 계(입학정원)	959	1,080	240
대 천 대 학	320	360	-
신 성 대 학	239	-	80
천 안 공 업 대 학	400	480	80
청 양 대 학	-	80	-
혜 전 대 학	-	160	80

자료 : 각 학교별 입시자료, 1999

4. 일반대학교

- 충남에 소재한 12개 대학 중 6개 대학이 천안에 집중되어 있으며, 산업기술과 관련된 학과의 입학정원을 살펴보면, 자동차·기계계열이 850명, 전기·전자계열이 2,369명, 석유·화학계열이 477명으로 전기·전자계열이 64.0%를 차지함
- 일반대학들은 공업계고등학교나 전문대학들과는 다르게 자동차·기계 계열 보다는 전기·전자계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음

[표4-29] 일반대학(4년제)

(단위 : 명)

학 교 명	자동차·기계계열	전기·전자계열	석유·화학계열
합 계(입학정원)	850	2,369	477
공 주 대 학 교	100	182	120
중 부 대 학 교	-	221	-
건 양 대 학 교	200	272	-
한 서 대 학 교	-	72	108
호 서 대 학 교	173	502	-
순 천 향 대 학 교	60	360	90
선 문 대 학 교	140	246	6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77	144	99
남 서 울 대 학 교	-	120	-
천 안 대 학 교	-	120	-
청 운 대 학 교	-	130	-

자료 : 각 학교별 입시자료, 1999.

5. 직업훈련기관

- 충남지역에서는 '99년 홍성기능대학등 총 23개 직업훈련기관에서 연간 1,752명을 훈련 실시, 기능인력을 공급하고 있고, 충남직업전문학교와 천안자동차전문학교등 7개의 주요 훈련기관의 '98년도 훈련생 배출현황을 보면 훈련기관의 취업률은 거의 100%에 이르고 있어 도내 기능인력 부족현상을 반영하고 있음
- 훈련기관의 모집학과를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자동차·기계 분야가 주를 이루어 편중된 현상을 보이는데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인력양성을 위하여 새로운 학과의 설치되어야 함

[표4-30] '98년도 직업훈련기관 현황

(단위 : 명)

기 관 명	모 집 학 과	정 원	취업인원	훈련기관
홍성기능대학 (홍성군 홍성읍)	생산기계기술, 산업설비 기술, 전기기술	385	385	2년
충남직업전문학교 (논산군 부적면)	가구제작, 자동차정비, 건축배관, 전기공사, 정보처리	238	238	1년
대한상공회의소 공주직업훈련원 (공주시 의당면)	기계전자, 공장자동화, 전산응용기계, 정보처리	420	420	1~2년
천안자동차직업전문학 교 (천안시 대흥동)	자동차정비	240	240	6개월~1년
한국기계공업진흥회직업 훈련원	전기도금, 열처리, 특수용접, 밀링,선반,공유압,연삭,금형	253	245	1년
덕우직업전문학교 (아산시 탕정면)	정보처리, 전자계산, 산업디자인	600	360	6개월
서산한독직업전문학교 (서산시 읍내동)	자동차정비	88	40	6개월~1년

자료 :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6. 인력양성기관 확충계획

- 충남은 2004년까지 직업훈련기관수를 42개, 그 중 공공직업훈련기관 3개, 사업체훈련기관 35개, 인정훈련기관 4개를 확보하여, 12,170명의 기능인력을 양성할 계획임

[표4-31] 직업훈련기관 인력양성계획(2000~2004년)

(단위 : 명)

구 분	계	공공직업훈련기관	사업체내훈련기관	인정훈련기관
기 관 수	42	3	35	4
훈련인원	12,170	5,215	1,050	5,905

자료 :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 계획기간 내 조성중이거나 건립예정인 4개 대학의 조기 건립을 추진하고, 향후 서해안시대의 산업인력 수급상황과 대학입학 정원과 진학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중인 대학 및 전문대학 건립계획을 구체화해야 하며, 또한 산업구조고도화에 대응한 다양한 학과의 개설을 고려해야함

[표4-32] 충남의 대학 및 전문대학 설립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학 교 명	위 치	사업비	사업기간	비 고
계 획 기간내	부여문화예능대학	부여규암면	555	1997~2002	전통건축·조경·미술공예,문화유적보존 등 6개학과
	아산기능대학	아산도고면	202	1997~2001	침단직종 5개학과 2001년 개교
	서천기능대학	서천마서면	262	2000~2004	금속,기계,자동차,전기,정보,환경(6개학과)
	강경기능대학	논산강경읍	300	2000~2004	5개학과 400명
향 후 계 획	충남대제3캠퍼스	홍성군	-	2005~2011	기계,전기전자,화학,건설,재료,환경,식물자원,동물자원,응용생물 등 3개 단과대학과 12개 학부
	보령수산대학	보령시	-	2005~2011	계획수립
	서천특수공과대학	서천군	-	2005~2011	"
	논산공업전문대학	논산시	-	2005~2008	계획 미수립
	아산자동차공업전문대학	"	-	2005~2011	"
	예산농업생명공학대학원	예산군	-	2005~2011	"

제4절 충남의 산업발전 잠재력과 제약성

1. 발전 잠재력

가. 산업 입지여건

- 경부·호남고속도로 및 철도가 관통하고 있으며, 곧 개통될 서해안 고속도로, 도내의 격자형 고속도로가 건설중이거나 계획 중이어서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대덕연구단지의 중간지역으로 우리 나라에서 산업의 지식기반화와 과학기술의 산업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접합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님
- 특히, 수도권전철이 천안까지 확충되면 충남의 서북부지역은 수도권과의 통행시간이 50분 이내로 단축되고 전국이 3시간 이내 생활권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어 거대한 시장의 생산배후지역으로 성장할 것임

나. 풍부한 토지자원과 해양자원 보유

- 충남은 넓은 평야지대와 소수의 산악지대를 제외하고는 낮은 구릉성 평야지대로 100m 이하의 저지가 전체 면적의 66%를 차지하고 있어 풍부한 산업입지에 적합한 토지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충남의 해양은 수심이 80m 이하로 얕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며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고 간척지가 풍부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해안선의 길이가 953.3km에 달하여 풍부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또한 대외교역량의 증가 특히 중국과의 교역량의 증가로 인해 수도권 인근항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아산항, 대천항, 장항항 등이 서해안의 중추항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갖고 있고,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한 미래형 해양에너지 개발의 가능성이 큼

다. 수도권 억제와 지역간 균형개발 정책에 따른 수용효과

- 수도권의 면적은 전국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전국인구의 54.6%를 점하고 사업체는 전국의 44.6%, 금융부문은 예금액과 대출액의 규모는 전국의 65.2%, 59.6%가 집중되어 도시, 교통, 주택, 환경 등 도시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엄청난 사회적 비용의 초래로 부의 경제효과로 인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개발격차로 인하여 국가경쟁력의 약화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 및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충남지역은 산업인프라가 계획대로 건설되면 수도권으로부터 밀려오는 제조업들 입지의 최적지이며, 실제로 이러한 Spillover 효과는 '96년을 기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

라. 환황해경제권의 거점역할 가능

- 충남은 우리 국토의 중서부와 환황해권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어 영남과 호남을 잇는 교량역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로의 진출이 용이한 지역
- 충남은 동북아 경제권 거점지대의 하나인 환황해경제권의 핵심 산업지역이며,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산업발전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 아산만권 및 군장권 광역개발 계획은 중국, 몽골, 북한 등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를 목표로 두고 계획됨

2. 제약점

가. 지역경제기반 취약

- 충남은 서울-부산축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과정에서 소외되어 아직 1차 산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업의 비중이 14.4%로 상대적으로 높고 영세농 비율이 높은 반면 2차 산업의 비중이 낮아 지역경제기반이 취약하고, 충남의 제조업체 중 종사자수 3인 이상 4,495업체 중 50인 이하의 소기업이 88.4%를 차지하여 매우 영세함을 보여줌

- '98년 수출 84억 달러, 수입 50억 달러로 34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하였으나 수출품목을 보면 전기·전자(58.7%), 화학공업(15.2%), 비금속광물(11.1%)로 상위 3개 업종에 85.0%가 집중되고, 수출지역이 아시아(50.1%), 북미(27.8%) 등에 77.9%가 편중되어 있어 수출품목 및 수출선의 다변화 정책이 필요

나.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단지 분양가로 경쟁력 약화

- 산업입지의 중요한 요인인 분양가격이 인근 시·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아 경쟁력이 뒤지고 있어 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가 인하대책이 필요
 - 충남 : 석문(505천원), 아산(347천원), 천안(512천원)
 - 경기 : 시화(413천원), 아산(포승, 417천원)
 - 전북 : 군산(198천원), 군장(308천원)

다. 광역교통망 등 산업의 하부구조 취약

- 충남지역이 속해있는 3개 광역권개발 계획 중 산업단지로 지정해놓고 미착수·미분양단지가 3개단지에 9,043천평에 이르러, 단지개발 지연과 기업입주가 불투명함에 따라 항만, 도로, 물류단지 등 산업인프라 확충에 대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남북축에 의존한 광역교통체계로 지역간 접근성이 불량하고, 항만시설 부족과 공항시설 부재, 지역교통망의 취약은 물류비용을 증가시켜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도권 기능을 분담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나 서해안고속도로가 완공되고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등 주요 국도의 확·포장 등이 진행되고 있어 여건이 호전될 전망

마. 지역중심성과 공간통합성의 결여로 산업의 역외의존의 심화

- 대전시의 분리이후 지역발전을 주도할 중심도시가 없어 성장거점 기능과 배후지역에 대한 파급기능이 취약하고, 대부분의 정치, 행정, 문화기능 등이 대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도내 중소도시의 성장이 어려운 실정임
- 특히, 지역중심지의 부재는 산업의 역외의존을 가속화시켜 지역의 공간통합성 형성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천안, 안산 등은 수도권, 연기의 조치원은 청주권, 서천은 군산권, 금산, 논산, 공주 등은 대전권의 영향에 있어, 충남은 공간통합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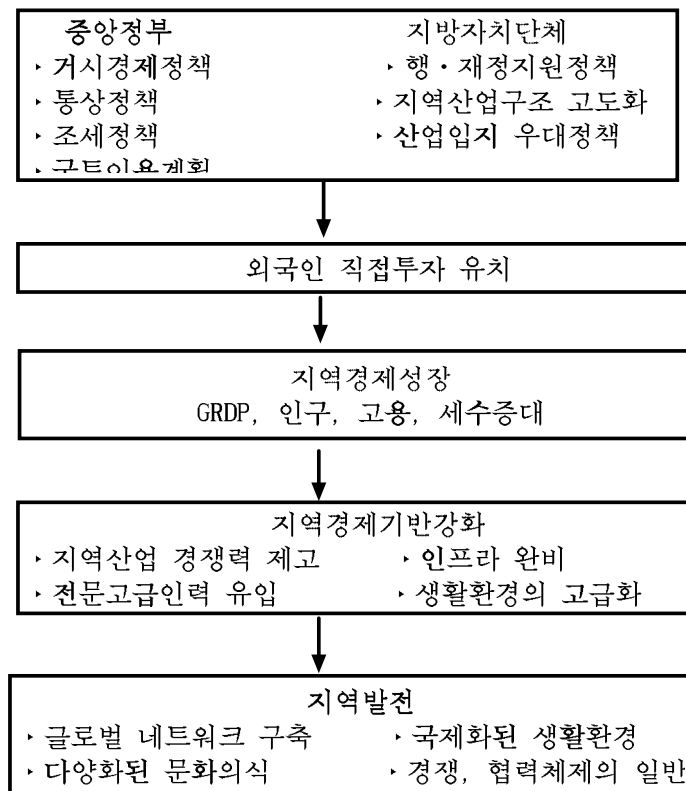
바. 대규모 장치산업 유치로 환경오염문제 대두

- 서해안 임해공단의 특수성을 살린 서산·당진지역의 석유화학, 철강 등 대규모 장치산업이 유치됨에 따라 친환경산업을 진흥하려는 산업정책과 환경정책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현행 장치산업을 유지발전 시키면서 첨단·친환경업종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산업정책이 필요함

제5장 충남지역 외국인투자 현황

제1절 외국인 직접투자와 지역경제

-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투자의 증가, 고용창출, 국제수지의 개선 등 거시적인 경제효과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옴
-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 및 지역경제환경의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와 지역이 공간적·동태적 측면에서 개방화되는 직·간접적 효과를 제공하는 기회를 가져다줌으로써, 전반적인 지역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4] 외국인 직접투자와 지역발전

제 5 장 충남지역 외국인투자 현황

- 그러나 외국인 직접투자의 목적과 전략에 따라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면이 나타날 수도 있음.
- 첫째, 외국인 기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이 투자유치지역의 산업활동과 관계 없이 이루어질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의 총투자 중 국내산업에서 생산한 중간투입물의 비중이 낮아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산업 전후방 연계효과가 미미한 고립경제효과(enclave effect)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둘째, 외국인투자기업이 의도적으로 기술개발과 생산활동을 분리하는데서 오는 본부효과(headquarter effect)가 크다면, 기대하는 기술이전효과는 미미할 것임
- 셋째, 외국인 직접투자는 시장규모와 자원, 토지, 노동력, 자본 등 투자입지 여건이 가장 우수한 입지우위지역이 아니라면 오히려 산업생산력의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켜 여건이 불리한 지역은 낙후지역화 될 가능성이 높음
- 넷째, 지역기업경영 측면에서 외국인투자의 대거진출은 새로운 제도·관행의 유입을 통해 투명성과 안정성, 수익성 중시의 경영혁신의 기회와 함께 경영개입과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혼란, 선진기술·자본에의 종속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은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경제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을 고려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함

[표5-1]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요인

구 분	세 부 내 용
시장규모	▪ 시장특성 ▪ 시장접근성 ▪ 시장규모
영업환경	▪ 노사관계, 임금 ▪ 지적소유권 보호, 기술수준 ▪ 하부구조 ▪ 자본이동 과실송금
정책변수	▪ 거시경제정책 ▪ 통상정책 ▪ 경쟁정책 ▪ 조세정책
위험요인	▪ 정치적 안정성 ▪ 금리 및 환율변동

자료 : 이흥구, 「외국인 직접투자와 투자정책」, 한국개발연구원, 1994. 12

제2절 충남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1. 시·도별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 2000년 6월 31일 현재까지 우리 나라에 유입된 누적 외국인 직접투자는 금액기준으로 서비스업 222억 9,723만불(50.7%), 제조업 213억 8,460만불(48.6%)로 대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외환위기 당시 서비스업 49.9%, 제조업 49.6%과 큰 변동을 보이고 있지 않았으며, 농축수산업, 광업은 건수기준과 마찬가지로 모두 1% 미만으로 나타남.
- 제조업에서는 전기 및 전자가 외환위기 직후 가장 투자유입 상승폭이 큰 업종으로의 12.4%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97년도에 화학공학에 이어 2위의 비중이었던 전기 및 전자는 2000년도에는 화학공학을 제치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장 많이 유입된 업종이 되었음.
- 서비스업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숙박업은 22.8%에서 11.6%로 2배 가까이 감소한 반면 기타서비스업은 5.1%에서 11.2% , 보험업은 1.1%에서 2.3%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금융업도 7.6%에서 10.1%로 증가하였음.
- 지역별 분포에서는 서울지역이 3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지역이 13.2%, 인천지역이 2.7%로 수도권지역은 금액기준으로 53%, 건수기준으로 수도권지역에 79.6%가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편중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외환위기 이후 금액면에서 전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비중이 늘어난 지역은 서울 이외에 광주, 강원, 전북, 경북지역이 있으며, 특히 그동안 비교적 투자유입규모가 적었던 광주, 전북, 강원, 전북은 2년6개월 이 전보다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이중 건수기준으로는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금액기준으로 증가한 경우, 즉 건당 투자규모가 큰 외국인 직접투자가 유입된 경우는 광주, 전북, 경북지역임.

제 5 장 충남지역 외국인투자 현황

[표5-2] 광역시 지역별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단위 : 천불)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농림축산업	199,145	331	0	0	57	0	0
광공업	1,994,137	123,839	246,666	867,932	1,207,920	466,896	1,861,280
서비스업	14,124,402	880,135	26,256	331,083	39,370	962,832	119,618
합 계	16,317,684	1,004,305	272,922	1,199,015	1,247,347	1,429,728	1,980,898

주 : 2000년 6월 30일 기준, 누적외국인투자기준

자료 : 외국인투자지원센터

[표5-3] 도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단위 : 건, 만불)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림 축산업	3,790	0	0	1,863	604	50	83	47	8
광공업	366,864	36,407	102,550	203,339	137,664	110,636	244,912	240,905	113
서비스업	208,697	48,935	8,469	29,768	16,080	4,782	42,879	15,665	141,702
합 계	579,350	85,342	111,019	234,970	154,348	115,467	287,874	256,617	141,823

주 : 2000년 6월 30일 기준, 누적외국인투자기준

자료 :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2. 산업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 충남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80년대 중반 이후 투자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하여 외환위기 발생전인 '96년에는 3억 18백만 달러로 최대실적을 기록하였으나 외환위기가 발생한 '97년 중 외국직접인투자는 18백만달러로 전년 3억 18백만달러에 비해 급감하였으나, '98년중에는 47백만 달러로 금액기준으로는 회복세를 보임
- 충남지역 외국인 직접투자액의 업종별 특징을 보면, 80년대 초반에 금속제품(10백만 달러, 77.7%)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80년대 후반에는 반도체 및 전자제품(57백만 달러, 31.8%), 90년대 초반에는 목재종이(330백만 달러, 48.7%) 부문의 투자비중이 높아졌으며, '96~'98년 중에는 석유화학(225백만 달러, 58.9%)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최근에는 중화학부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건당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93년 9.3백만 달러에서 '98년 3.1백만 달러로 급감하여, 소규모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5-4] 전국 및 충남의 연도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백만 달러, 건, %)

연 도		'93	'94	'95	'96	'97	'98
전국	금 액	1,044 (16.8)	1,317 (26.1)	1,941 (47.4)	3,202 (65.0)	6,971 (117.6)	8,852 (27.0)
	건 수	458(3.2)	646(41.0)	872(35.0)	968(11.0)	1,055(9.0)	1,398(32.5)
충남	금 액	65(-74.9) <9.3>	85(30.8) <9.4>	197(31.8) <10.4>	318(61.4) <18.7>	18(-94.3) <1.1>	47(161.1) <3.1>
	건 수	7(-22.2)	9(28.6)	19(111.1)	17(-10.5)	17(0.0)	15(-11.8)

주: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내는 건당 투자금액

자료 : 한국은행, 충남지역 외국인투자 현황 및 유치 확대방안, 1999.

제 5 장 충남지역 외국인투자 현황

- 2000년 6월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지역은 196건 23억 4,970만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나, '99년에 비해 90건이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12억 9476만달러 증가하였음
- 그 중 제조업은 165건 20억 3,327만달러, 서비스업은 27건 2억 9,767만달러로 '99년에 비해 제조업은 69건에 10억 558만달러, 서비스업은 19건에 2억 3871만달러 증가하였음
- 서비스업의 증가율이 제조업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지역 내 비중은 제조업이 '99년 92.6%에서 2000년 86.5%로 감소한 반면에 서비스업은 '99년 5.6%에서 2000년 12.7%로 증가하였음
- 2000년 현재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제조업 중에는 석유가 1건이 유입되었으나 장치산업인만큼 금액면에서는 5억 1058만달러(21.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금속 13건에 5억 796만달러(21.6%), 운송용기기 2억 5,264만달러(10.8%), 제지 및 목재 2억 4,162만달러(10.3%) 순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으로는 기타서비스업 1억 4,190만달러, 숙박업 6,369만달러, 전기 및 가스업 4,751만달러 순으로 각각 6%, 2.7%, 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충남지역은 대규모 투자가 유입된 석유산업과 화학, 금속, 운송용기기, 제지 및 목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업에서는 무역업,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창고업에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금융업, 보험업 등의 서비스업에는 외국인 직접투자유입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표5-4] 충남지역 외국인투자기업 산업별 현황

구 분	건수기준				금액기준			
	건수		지역내 비중(%)		투자금액(만불)		지역내 비중(%)	
	99. 6	2000. 6	99. 6	2000. 6	99. 6	2000. 6	99. 6	2000. 6
농림업	1	3	0.9	1.5	1,838	1,863	1.7	0.8
소 계	1	3	0.9	1.5	1,838	1,863	1.7	0.8
광 업	1	1	0.9	0.5	12	12	0.0	0.0
식 품	5	10	4.7	5.1	848	1037	0.8	0.4
섬유및의류	2	5	1.9	2.6	150	193	0.1	0.1
제지및목재	2	3	1.9	1.5	16,263	24,163	15.4	10.3
화학공학	24	38	22.6	19.4	22,557	14,198	21.4	6.0
의 약	2	2	1.9	1.0	290	249	0.3	0.1
석 유	1	1	0.9	0.5	25,949	51,059	24.6	21.7
요 업	2	5	1.9	2.6	310	357	0.3	0.2
금 속	9	13	8.5	6.6	1,596	50,796	1.5	21.6
기 계	21	34	19.8	17.3	6,778	15,540	6.4	6.6
전기및전자	13	28	12.3	14.3	12,912	19,458	12.2	8.3
운송용기기	11	15	10.4	7.7	9,344	25,264	8.9	10.8
기타제조업	4	11	3.8	5.6	750	1,013	0.7	0.4
소 계	97	166	91.5	84.7	97,759	203,339	92.6	86.5
전기및가스업	1	1	0.9	0.5	2,049	4,751	1.9	2.0
건설업	0	1	0.0	0.5	0	20	0.0	0.0
도소매업	1	4	0.9	2.0	141	359	0.1	0.2
무역업	0	3	0.0	1.5	0	16	0.0	0.0
음식점업	0	4	0.0	2.0	0	63	0.0	0.0
숙박업	0	5	0.0	2.6	0	6,369	0.0	2.7
운수및창고업	0	1	0.0	0.5	0	2,452	0.0	1.0
금융업	2	2	1.9	1.0	1,549	1,549	1.5	0.7
기 타 서비스업	4	6	3.8	3.1	2,158	14,190	2.1	6.0
소 계	8	27	2,055.6	13.8	5,897	29,768	5.6	12.7
합 계	106	196	100.0	100.0	105,494	234,970	100.0	100.0

주 : 2000년 6월 30일 기준, 누적외국인투자기준

자료 :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제 5 장 충남지역 외국인투자 현황

- 2000년 10월 현재 충남의 외국인 직접투자 누계는 233건으로 20억 1607만 불에 달하고, 2000년에는 10월 현재 40건에 234백만불을 유치하였으며, 그 중 신규투자는 23건에 11,128만불, 증자투자는 17건에 12,329만불을 차지하여 신규투자의 건수는 많았으나 금액에 있어서는 증자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5-5] 충남의 유형별 외국인 직접투자

(단위 : 건, 만불)

유 형	신규		증자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실 적	23	11,128	17	12,329	40	23,458

자료 : 충청남도, 투자유치 현황보고, 2000. 11.

- 국가별 외국인 직접투자는 건수 기준으로 일본(12건), 네덜란드(5건), 벨지움(4건) 순으로 나타났고, 금액 기준으로는 네덜란드가 10,948만달러로 가장 많은 투자를 하였음

[표5-6] 충남의 국가별 외국인 직접투자

(단위 : 건, 만불)

국 가	네덜란드	일본	프랑스	벨지움	기타	합계
건 수	5	12	1	4	18	40
금 액	10,948	4,180	5,425	840	2,065	23,458

자료 : 충청남도, 투자유치 현황보고, 2000. 11.

- 충남의 규모별 외국인직접투자를 살펴보면, 50만불 이하가 23건, 50만불 이상이 17건으로 나타나 소규모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표5-7] 충남의 규모별 외국인 직접투자

(단위 : 건)

구 모	10만불 미만	10만불 ~50만불	50만불 ~100만불	100만불 ~500만불	500만불 이상	합계
건 수	8	15	-	9	8	40

자료 : 충청남도, 투자유치 현황보고, 2000. 11.

- 충남의 외국인 직접투자비율을 보면, 50% 미만인 기업들의 비율이 50%, 50% 초과하는 기업들이 38.7%를 차지하고 있어 타 시들에 비해 투자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5-8] 외국인투자기업 투자비율 현황

(단위 : %)

지 역	10% 미만	10%이상 ~50%미만	50% 미만	50%	50%초과 ~100%미만	100%	50% 초과
평 균	2.9	28.6	31.5	9.6	16.4	42.5	58.9
충 남	2.8	47.2	50.0	11.3	14.2	24.5	38.7
서 울	2.6	21.5	24.1	9.2	15.2	51.5	66.7
부 산	2.6	38.2	40.8	12.6	19.4	27.2	46.6
인 천	2.2	45.0	47.2	11.7	19.4	21.7	41.1
대 전	3.7	33.3	37.0	3.7	25.9	33.3	59.3
대 구	1.7	50.0	51.7	15.5	8.6	24.1	32.8
광 주	8.7	30.4	39.1	13.0	26.1	21.7	47.8
울 산	8.0	16.0	24.0	20.0	20.0	36.0	56.0

자료 : KISC,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기업 지역별 현황분석, 1999.

3. 외국인투자 환경

- 천안 아산 등의 지역에 소개 한 45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및 방문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외국인투자업체의 평균투자규모는 1,150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50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투자가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투자는 2건이었음

[표5-9] 충남지역 소재 45개 외국인투자업체

구 분	외국인전용공단	천안	아산	기타	계
총업체수	10	53	22	35	120
조사업체수	7	20	9	9	45
조사비율	70.0%	37.7%	40.9%	25.7%	37.5%

- 외국인투자지분은 100%인 업체가 16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50% 이상의 투자가 전체의 81.1%를 차지하고 있으며, IMF 이후 어려운 국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과반수인 23개 업체가 추가투자를 계획중이거나 고려 중임
- 외국인투자의 가장 큰 이점으로는 기술 및 경영 노하우의 습득이 77.8%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이어 재무구조의 개선(11.1%), 해외시장진출에 유리(4.4%) 등의 순이었음
- 조사대상 외국인투자업체가 충남지역을 선택한 이유로는 서울과의 근접성 등 지리적 요인이 42.2%, 저렴한 지가(저렴한 공단분양가, 낮은 임대료) 등이 28.9% 등으로 나타났음
- 지방정부의 유치노력이 입지선정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은 “결정적”이거나 “상당한 영향”이 13.5%, “참고수준”이 48.6%로 나타났음
- 경영현황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45개중 41개 업체가 수출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업체들의 손익분기환율은 1,200원대 이하가 73.2%로 국내수출기업(24.2%)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외국인투자업체는 대체로 신용도가 양호하여 우대금리를 적용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금사정은 대체로 양호함
- 기업환경평가를 살펴보면, 품질 및 경쟁력, 경영진의 경영능력에 대해서는 대체로 높은 수준의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수익성, 종업원의 질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만족을 표하였음. 반면 공단환경과 금융, 조세, 교통, 쇼핑, 문화 환경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4.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가. 외국기업유치팀 구성 및 투자홍보 강화

- 영어와 일어 등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공업계 직원과 국제협력실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외국기업유치팀이 1998년 3월에 발족됨
- 외국기업유치팀의 주요사업은 보령~안면도 연육교가설사업,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 천안 시내 북부도로 건설사업, 금강변 노인 휴양촌 조성사업 등에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것임
- 외국기업유치팀은 서울사무소, 뉴욕사무소, 구마모토사무소, 언론사, 인터넷 등을 활용해 외국기업유치에 주력하였으며, 1998년 5월 우리나라 투자환경을 조사하기 위하여 내한한 일본기업인을 초청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
- 2000년에는 투자매물 확정 브로셔 제작, 투자환경 및 투자매물 소개 홍보물 배부, 일본에 천안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홍보특집 보도 등 홍보활동을 강화

나. 외국인 투자기업 관리와 유치지원제도 강화

- 경영애로 외국인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및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간담회 개최 애로 청취의 기업운영 환경개선 추진
- 2000년 3월 외국인기업 투자유치촉진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동년 8월에는 Cyber KISC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10월 5일 충남 외국인기업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였음

다. 천안 외국인전용단지 임대전환

- 천안 외국인전용단지는 분양용지의 경우 외국인들이 현지토지매입을 꺼려

천안시가 사업비 회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지난 '97년부터 분양용지의 임대용지 전환을 위해 관계부처인 산업자원부를 방문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

- '98년 10월 천안시는 임대용지 전환을 위한 국비 2백 5억원 반영을 요청해 결실을 맺게 되어 천안 외국인전용단지 미분양용지 4만평이 임대용지로 전환 '99년에 임대가 완료돼 지역경제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음

라. 국제교류의 활성화

- 세계화 속에서 지방의 국제화를 실현하기 위해 자치단체간 다각적인 국제교류 협력관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단체간 국제교류의 대표적인 유형이 자매결연임
- 충남의 경우에도 일본의 구마모토현, 중국 허베이성, 러시아 아무르주, 호주 남호주 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행정시책에 관한 의견교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문화예술의 상호교류를 추진하고 있음
- 과거 우리 나라 자치단체들의 국제교류는 자매결연을 통해 일차원적인 문화교류와 정보교류가 주류를 이루어왔으나, 최근 들어 자치단체간의 상호교류 범위가 문화·정보교환에서 경제통상교류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음
- 그러나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국제교류는 너무 지방정부가 주도가 되어 경제·통상분야 교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민간부문의 참여가 미진한 불균형적인 교류형태를 취해 다양한 국제교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또한 충남은 서울 및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여 도정의 영역을 서울은 물론 세계로 확대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추진 및 선진정보 수집을 통한 도정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국제교류 활동을 추진하여 왔음
- 현재 충남은 '96년 6월에 개설된 서울사무소에 이어 '97년 3월 미국 뉴욕사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무소, '98년 1월 구마모토 사무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음

[표5-10] 충남의 국제교류 현황

외국자치단체	체결일자	체결형태	비고
일본 구마모토현	'83. 1. 22	자매결연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관계로 오래전부터 각종 교류활동을 추진해옴
중화인민공화국 허베이성	'94. 10. 19	자매결연	북경시와 천진시를 둘러싸고 있는 행정, 경제 교통의 요충으로 자원과 농산물이 풍부하고 공업이 발달
러시아연방 아무르주	'95. 6. 15	자매결연	자원은 풍부하나 자립적인 농업 및 공업, 자원개발능력의 부족으로 다양한 경제협력 가능성
호주연방 남호주	'99. 10. 31	자매결연	남호주측의 적극적인 교류의사로 가장 신속한 자매결연 결실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	'95. 10. 31	경제교류협정	충남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우며, 풍부한 문화유적과 경제개발구와 신기술 산업개발구를 통한 협력가능
미국 캘리포니아주	'97. 3. 20	경제 및 일반교류협정	실리콘밸리가 소재하고 금융, 서비스, 건설업, 전기, 전자 및 항공기, 컴퓨터 등 첨단제조업, 관광업이 강세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주	'97. 3. 25	자매결연의향	충남미 국가중 생활수준이 제일 높고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발전잠재력이 큼
독일연방 바이에른주	'99. 5. 11	교류 및 관계발전	독일은 충남의 주요 시장으로 유럽진출의 거점역할 가능

자료 : 충청남도, 충남의 세계화와 서울·해외사무소 활력화 비전, 1999. 12.

- 수출경험이 일천한 함 서울·해외사무소는 해외시장의 경험이 부족한 충남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나 무역실무를 지원하고 있으나 해외통상담당 공무원들의 순환근무로 인해 개인의 지식이 조직내의 지식으로 축적되거나 고도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투자상담 및 사후 관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
- 또한 충남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심은 초기에 유치단계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이를 실제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연결시키는데 이이지 못하고, 다양한 주체들에

제 5 장 충남지역 외국인투자 현황

의해 통상지원 및 투자유치활동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실행전략의 수립 및 실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효율적인 역할분담과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간의 협력이 원활하지 못하고, 자원의 중복 및 낭비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

[표5-11] 충남 해외사무소의 역할

구 분	뉴욕 무역관	구마모토 사무소
설치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도정의 세계화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특히 도내 중소기업체의 수출, 상담지원과 최신 국제교류정보 자료 수집·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으로 선진화된 일본지역의 정보수집과 충청남도 농특산물 등 상품 및 관광자원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진기지로 활용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내 소재 기업제품의 수출 알선 품목별 전문박람회 참가 및 상담 대행 미주시장 유통동향 조사 및 정보 제공 도본청, 시·군의 국제교류·협력 지원 대단위 프로젝트의 외자 및 관광객 유치 활동 재미 충청도민회를 통한 도정 협력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의 중소기업 현황과 시장동향의 조사 일본의 선진제도 및 기술경영기법 조사 파악 도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배양지원 중소기업제품의 수출상담 및 지원활동 추진 일본 자치제와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 사업 지원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홍보활동 전개로 관광객 및 수학여행단 유치
활동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자유치 관련사업 영문번역 지원 및 홍보 -5대 유치사업 계획의 단위 사업별 한글 책자 영문 제작 -대전관광호텔 건립 컨설팅 계약서 작성 지원 외자유치 절차, 컨설팅 수수료 등 현황조사 보고 -외자유치 5가지 종류에 대한 유형별 비교분석 제출 -외자유치 절차, 프로젝트 수익성 분석, 컨설팅 범위조사 외자유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JETRO, 일본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한국무역협회, 타 시·도 해외사무소와 정보교환으로 시장개척 기반조성 도내 47개 기업의 샘플, 브로셔 비치 및 상담 각종 박람회를 위한 사전 시장조사 중소기업의 일본진출을 위한 상품내역서 및 팜플렛 번역 지원 대형바이어, 수입 대리점의 구매담당 등과 인맥 형성

제3절 외국인투자유치제도

1.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가. 목적

-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 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외 투자기업의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촉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투자유치 지원제도

1) 투자유치위원회

-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투자유치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충청남도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함
-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
 -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2) 외국인투자진흥관실

-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기관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진흥관실을 두고, 경제통상국장이 외국인투자진흥관이 됨

제 5 장 충남지역 외국인투자 현황

-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은 다음의 업무를 행함
 -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민원사무 처리의 독려 및 점검
 - 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조사 및 처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투자지원센터, 무역관, 지사, 사무소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정보교환, 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 법 제17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허가 거부사유의 적정성 검토
 -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운영
 - 기타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

3) 민간전문가 활용

- 도지사는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회계사, 국제투자전문가 또는 컨설팅사 등 투자유치전문가에게 외국인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음

다. 투자진흥기금의 운용·관리

-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충청남도투자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음

재 원	기금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의 출연금 •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기타 출연금·보조금 및 차입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용지매입비, 교육시설비, 주택구입비 등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라. 외국인투자 활동에 대한 지원

- 금융지원 :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음
- 입지보조금 지원 : 도지사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정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는"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
 -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나 임대료보다 인하된 분양가와 임대료로 분양 및 임대 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을 지원 할 수 있음
- 고용보조금 지원 :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시설보조금 지원 : 도지사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외국인학교 지원 :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 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그 시설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외국인전용주거단지의 조성 : 도지사는 외국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전용 주거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음
-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제 5 장 충남지역 외국인투자 현황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 기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함

라.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외자유치 촉진

- 행·재정적 지원 : 도지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도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외국자본을 유치 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음
- 우대조치 : 도지사는 도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음

마. 보칙

- 민간기관의 파견근무 : 도지사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함

-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 임대 및 분양계획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고용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고용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음

2.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지원제도

가. 토지

- 장기 및 저가로 산업부지를 임대할 수 있으며, 입주회사의 조건에 따라서 임대부지를 토지관리국으로 반환할 수 있고, 공급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승인 받으면, 신고만으로 토지 취득이 가능함
- 외국인전용단지, 국가산업단지 및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국·공유 토지의 임대기간을 종전의 20년에서 50년으로 확대

나. 조세 및 관세감면

- 첨단기술 부문을 유치할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가 처음 7년간은 전액 면제되며, 이후 3년간 50% 면제되고,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15년간 전액 면제
- 관세, 특소세 및 부가세는 투자 목적이 자본재인 경우 전액 면제

조세감면 대상	조세감면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조세감면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발생 시점부터 7년간 100%, 3년간 50% •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 종토세 15년간 전액 면제

다. 금융지원

- 첨단기술 분야의 단기 해외차관 금액 한도는 투자액의 100%까지 연장
- 첨단기술 설비 도입을 위한 금융기관대출은 필요자금 100%내에서 허용

라. 원리금 및 이자 상환 법적 보장 및 기타 특혜

- 투자 및 배당금의 원리금에 대한 해외송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기타 사업에 대한 투자 및 배당금 재투자를 허용
- 산업설비 및 필요제품/구성부품에 대해 다양한 수입제도가 광범위하게 적용
- 의무 고용 요구사항을 보류해 주며, 병역특례 선택권이나 외국인 훈련생을 우선적으로 할당
- 지자체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부지 매입비나 분양가 · 임대료 감면 차액에 대해 수도권은 40%, 기타 지역은 50%의 국고지원

3. 외국인 투자유치 대상사업 현황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위치	규모(㎡)	기간	주요시설
관광·레저	천안유스호텔	천안, 삼용	8500	'93~2001	호텔1동
	각원사 관광지	천안, 안서	82294	'90~2004	온천, 실버타운, 호텔
	천안 온천관광지	천안, 목천	748529	'97~2001	콘도, 호텔, 온천장 등
	아산 온천관광지	아산, 음봉	844003	'90~2004	워터파크, 호텔, 콘도
	덕산 온천관광지	예산, 덕산	724642	'91~2001	온천장, 호텔 등
	죽도 관광지 조성	보령, 남포	62073	'94~2002	숙박시설
	백제문화권 호텔 건설	부여, 규암	55378	'99~2005	호텔, 컨벤션 센터
	안면도 국제관광지	태안, 안면	3178000	'99~2002	골프장, 마린월드 등
	대천 해수욕장 관광지	보령, 신흥	466404	'95~1999	관광호텔, 국민호텔
산업단지	보령-안면 연육교	보령, 안면	7180	'00~2007	장대연육교 2개
	월산지방산업단지	연기, 남면	1646000	'93~1999	미분양 655천m2
	인주1지방산업단지	아산, 인주	1616000	'93~1999	미분양(미조성)
	아산T/C지방산업 단지	아산, 탕정	2021000	'95~2001	61만평 중 일부
	아산국가(부곡)	당진, 송산	1033000	'95~1999	미분양 1,033천m2
	석문국가산업단지	당진, 석문	12084000	'92~2001	미분양(미조성)
	전의지방산업단지	연기, 전의	49000	'94~1999	미분양 129천m2

제4절 충남 외국인투자의 문제점

1. 제도적인 문제점

- 우리 나라는 대외적으로는 KOTRA의 KISC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투자유치체계를 천명하고 있으나 인허가 및 인센티브 결정 등 실질적인 권한은 중앙정부에서 보유하고 있어 실제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가 실무협상 과정에서 처리시간의 지체와 지자체의 독자적이고 신속한 대처에 한계가 있음

-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지자체의 외국인투자유치의 재량이 많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는 여전히 수혜를 받을 수 없으며, 또한 독자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고 중앙정부의 조직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나 아직 미흡한 단계임

2.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미흡

- 정부의 지원제도는 주로 소수의 특정 국가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등에 대한 지원과 세제감면 혜택이 집중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지방산업단지를 외국인기업에게 조성원가보다 낮게 분양할 경우 그 차액의 50%를 임대료의 경우 부지대입가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matching fund 형태임
- 따라서 지방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 부재와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공단분양가 인하 및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기업유치 업무수행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기금이 거의 없는 실정임
- 지방정부 차원의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법규정이 미비하여 독자적인 지원제도 수립이 어렵고,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결정권한이 위임되지 않아 투자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협상 추진이 곤란한 형편임
- 현재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업체수 및 규모면에서 대부분이 중소기업체인데 우리 나라 투자인센티브제도는 국세 및 지방세 감면대상분야를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한정하여 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함

3. 입지여건

- 충남지역은 국토중심부에 위치한 중핵지역으로 서울에서 1시간, 전국의 어느 곳에서도 3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교통·운송의 중심지임. 국제공항인 김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포공항과는 2시간거리, 청주공항과는 1시간 이내에 있음

- 현재 건설중인 정부고속철도의 첫 기착지인 천안역 개통시 서울과는 25분이 소요되고, 수도권 전철이 2001년부터 천안까지 연장 개통되면 수도권의 일일 생활권에 포함되며, 아산항, 장군신항, 보령신항, 대산항이 2011년까지 완공예정으로 완공 시 물류비용 등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 물류단지로는 연기지역에 38만평 규모의 컨테이너기지 및 복합 터미널과 천안지역에 20만평 규모의 물류단지가 건설될 예정이며, 29개 대학에서 매년 3만명 이상의 우수인재가 배출되고 있고 노동력 확보가 용이함
- 그러나 현재 외국인투자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공단은 고속도로에서 공단까지의 간선도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입지상의 우위가 저하됨. 또한 공단 인근에 외국인 주거단지(예: 서울 한남동, UN Village 등)가 조성되지 않아 일부 외국인 경영자, 기술자들이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이 밀집된 천안지역의 경우 극장, 공원 등 문화·위락시설과 고급식당 등이 부족하여 도시기능이 취약함
- 외국인투자업체들은 원활한 영업을 위하여 여신관리규정 및 외국환관리규정의 신속적 운용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최근 지방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확대를 위해 행정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에 대한 각종 요청, 질의 등 민원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Feedback을 요망하고 있음
- 투자유치 경쟁국들에 비해 공장용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막대한 초기투자 비용의 부담을 줌

4. 전담기구 및 인력부족

- 외국인투자유치 업무는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복합적인 행정으로서 one-stop 서비스체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구 요원이 확보되지 않아 일괄행정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특정기업을

제 5 장 충남지역 외국인투자 현황

전담하여 처음부터 공장가동 시점까지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이이 필수적임

- 지방공무원들이 외국인투자유치 실무능력 미흡하며, 외국인기업에 대한 경영관련 자문기관이 없어 기업컨설팅, 국내시장정보, 기술개발, 산업정보, 합작투자알선, 산업디자인 등에 관련된 자문 또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투자유치 홍보활동 미흡, 투자 인프라 열악, 외국인생활환경 열악, 기존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체계 미흡 등을 들 수 있음

제6장 충남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전략

제1절 지역경제의 국제화

- 세계경제환경은 정보화의 급진전으로 다국적기업의 세계화경영전략이 진전되면서 다국적 기업들은 경쟁환경과 경쟁우위요소에 입각하여 공급자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생산활동을 공간적으로 재배치하여 통합의 경제효과와 규모의 경제효과 극대화를 추구함
- 이에 세계 각 지역에서는 이러한 부가가치네트워크에 편입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경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IMF 금융위기 이후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이 급격하게 부각되면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법규 및 제도상의 규제완화, 절차의 간소화, 인센티브조치 등 외자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나 선진국들은 이러한 유치기반 조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여 왔고, 지금은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투자유치체계의 효율적인 운용 및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전략형성 및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임
- 외국인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투자유치정책이 여러 측면에서 동일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인정책 뿐만 아니라 투자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통상, 경제정책의 차별화를 통해 세계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 김병준(1999)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약요소들을 중앙정부 관련요소, 지방자치단체 관련요소, 지역사회요소로 구분함⁷⁾
 - 중앙정부 관련요소 : 중앙과 지방간 불균형적인 사무배분, 사업추진과정상

7) 김병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사업의 특수성과 제약요인,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1999.

제 6 장 충남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전략

- 의 지나친 통제, 중앙정부 지도자의 국제화 및 지방화에 대한 비전의 결여
- 지방자치단체 관련요소 : 전문성과 정보능력의 부족,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한 재정능력의 취약,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자의 리더쉽의 부족
 - 지역사회요소 :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국제화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 최근 국제화에 대해 우리는 경제의 논리에 그 기저를 두고 전부인 것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외국인투자유치를 보다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관습, 문화적인 차원에서 주민의 국제화 의식을 제고시키고, 국제적 감각과 의식을 갖추도록 해야 하며 외국인투자유치 기반시설 조성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특히 지역수준의 국제교류에서 민간부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또한 현재 외국인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통상국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담당공무원들의 외국어 능력은 물론 통상과 외환 그리고 세계경제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능력과 전문성을 제고해야함
- '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국제교류가 괄목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교류가 서울 및 일부 지방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부분의 지방도시의 국제교류활동은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의 미비로 외국 지자체와 형식적인 자매결연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충남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체의 해외조직은 뉴욕사무소와 구마모토 사무소가 있는데 이 조직망은 아직 활동이 미미하고 외국기업을 상대로 하는 업무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조직의 전문성과 협상능력 제고를 전담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국제교류활동도 국제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상국을 다양화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의례적인 교류에 그치지 말고 인적교류, 문화교류, 기술·경제교류 등 내실 있게 확대해야함
- 영국과 같이 충남 - 중앙정부 - 해외조직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대한무역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투자진흥공사(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전자외국인투자지원센터(Cyber KISC) 등과 같은 국가 정보망과 해외기업들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임

제2절 지역 산업기반과 연계한 특성산업 육성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 세계경제의 개방화·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외국인투자는 시장규모와 자원, 토지, 노동력, 자본 등 투자입지 여건이 우수한 선도지역과 여건이 불리한 낙후지역의 산업생산력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산업의 다각화 전략이 중요하며, 지역의 유망특화산업의 육성과 기술 및 지식집약적인 고부가가치형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전략이 필요함
- 또한 저기술산업, 노동집약산업으로 특화되어 있는 경향에서 탈피하여 전반적인 산업구조를 첨단산업,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는 기술고도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력으로 연구개발활동을 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비용을 손비로 처리하여 비과세 조치, 생산의 자동화, 생산기술 등 신기술 도입 금융지원 및 세금감면 조치를 실시하는 등 연구개발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투자하는 장치를 갖도록 유도
- 충남지역의 경우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업, 의료 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업, 음식료품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업, 조립금속제품업, 비금속광물제품업 등이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고, 특히 조립금속제품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플라스틱제품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등의 특화도는 꾸준히 증가하여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부상되고 있어 이러한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업종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집적지를 조성하여 상호 연결된 기업들과 기관들을

제 6 장 충남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전략

지리적으로 집중시킴으로써 지역 내 위치한 기업들의 정보교류 및 기술교류를 촉진하고 숙련된 근로자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조건을 충족시킴

- 산업집적지별로 고유한 특성과 잠재력을 반영한 특화업종을 지정하여 해당업종의 입주 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등 실질적인 세제 혜택의 지원방안을 검토

제3절 외국인투자 유치기반 조성

1.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충남의 사회간접시설, 대규모 시장, 중간재공급업체의 집중, 지역의 인적자원, 분업의 확대 등 생산활동의 초기 조건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외국인투자를 위한 사회간접시설의 기반을 강화해야 함
- 충남은 현재 남·북축에 의존한 광역교통체계로 지역간 접근성이 불량하고, 항만시설 부족과 공항시설 부재, 지역교통망의 미비로 인해 수송 효율면에서 대외경쟁력에 있어서 비교열위에 있음.
- 외국인투자업체들은 입지선정에 있어 交通의 便利性, 時間節約을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임. 현재 충남에서 계획 중인 동서와 남북을 상호 연결하는 격자형 도로망 구축, 충청선 철도 건설, 서해안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건설과 주요 국도의 확·포장 등을 진행하고 있어 장래의 교통여건은 호전될것으로 전망되나, 우선 기존 산업단지 진입에 필요한 간선도로 및 교통망을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고, 또한 해양 및 내륙의 물류중심기지가 필요하며 연기의 「내륙컨테이너기지」 건설, 아산항의 물류 거점항만으로의 개발 등 SOC 건설사업을 조속히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포함한 다각적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인 재원조달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프로젝트파이낸싱의 특징은 sponsor의 책임범위가 총 사업비가 아니고 출자금에 한하는 유한책임법인의 설립을 통해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의 현금흐름을 통해 차입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의 안정성이 차입능력의 지표가 되고, 대출기관은 project 자산에 대한 담보와 계약의 양도증서에 의해 안전을 보장 받음

2. 투자자유지역과 외국인 전용공단 조성

- 기업의 사업환경이 국제적 규범에 맞고, 토지, 인력, 산업기반이 뛰어난 지역을 선정하여 투자자유지역 및 외국인전용공단을 조성하고, 외국인이 와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생활 및 문화적 여건을 갖추어 줌으로써 국제화를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육성할 필요가 있음
- 투자대상지역은 노동 및 토지비용이 낮을수록 유리하지만, 부가가치활동이 집중되면 노동 및 토지비용이 상승하기 마련임. 그러나 이런 지역에서는 오히려 지역의 특화산업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네트워크 등이 더욱 중요하므로 이런 요소들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민·관·학계의 산학협동센터와 제휴연구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함
- 또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온 경영자, 근로자들이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공단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주택, 문화, 의료, 국제학교, 쇼핑센터 등 편의시설, 지원시설 등을 조기에 완공함으로써 입주업체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 현재 충남에는 천안에 외국인전용공단이 조성되었고, 연기군에 일본 아사히글라스(주)에서 7천만달러를 투자한 자동차용 안전유리 제조 및 판매업체인 코리아오토글라스(주)를 위한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이 금년에 지정된 상태임

제 6 장 충남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전략

- 천안 외국인전용공단은 분양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100%의 분양되었으며, 이는 분양가격 이외의 다른 입지여건이 타 지역에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장기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국제금융센터, 국제비즈니스센터와 같은 국제적 기능을 유치 국제금융과 경제교류 중심의 복합기능형 투자자유지역 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표6-1] 외국인 전용산업단지(2000)

구분	총면적 (㎡)	분양률 (%)	분양가격 (원/평)	임대료 (원/평)	비 고
충남천안	491,382	100	497,522	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도비 보조 50% • 조세감면 : 고도기술업종 및 첨단기술업종, NT마크 획득 신기술 수반사업
광주평동	627,400	88.6	286,000	1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감면 : 고도기술업종 및 첨단기술업종 • 기타 일반제조업
전남대불	958,658	67.0	229,425	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와 동일 • 기타 일반제조업 : 자동차, 석유화학, 제지, 비금속 등

자료 : <http://www.kicox.or.kr>

- 투자자유지역은 특성별로 생산중심형 투자자유지역, 국제교역중심형 투자자유지역, 역외금융센터, 복합형 국제자유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대전 주변지역은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한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생산중심형 투자자유지역을 확대·발전시켜, 대전과 보완관계를 유지하며 지역발전을 꾀하는 전략이 필요함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표6-2] 투자자유지역의 유형별 특징

구 분	세부유형	공통적 특징
생산중심형 투자자유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공단형 수출자유지역 • 광역형 수출자유지역 • 외국의 선진기술 유치를 위한 특정공단 •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첨단산업단지 • 중국의 경제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재 무관세 수입 • 세제혜택 • 행정절차 간소화 • 우수한 SOC시설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보조
국제교역중심형 투자자유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무역지역 • 자유항 • 통과지대 • 자유구역 • 수입촉진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역내의 수입물품에 대한 각종 세금면제 •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 면제
역외금융센터 투자자유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레인 • 말레이시아 라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업무에 대한 제반 규제와 조세를 완화, 철폐
복합형 투자자유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가지 유형을 종합화 • 국제자유도시 • 국제업무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수입관세의 철폐 • 국제금융활동의 자유보장 •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의 최소화 및 인센티브

자료 : 이석희,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대구경북개발연구원, 1998.

4. 외국인투자유치 체계 및 제도의 개선

가. 광역권 단위의 지역개발기구 설립

- 투자유치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단기 투자정책목표의 명확화와 결정된 투자정책의 목표와 투자수단과의 적합성 실현이라 할 수 있으며, 적합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 조직과 투자인센티브의 유형, 투자유치기관의 지원활동, 자문활동, 사후관리제도 등 유치수단이 정책목표에 맞게 구축되어야 함
- 우리 나라의 유치체계의 위치가 불분명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투자유치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의 선택적 집중이 미흡함

제 6 장 충남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전략

- 중앙정부 주도의 강력한 투자유치체계의 경우 정책의 추진력 및 조정력이 높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기준 및 절차에 있어서 경직성을 벗어나지 못해 해당지역의 요구와 괴리가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분권화 된 유치체계의 경우 지역의 직접적인 필요에 의하여 경쟁적인 투자유치가 이루어지므로 효율성은 높을 수 있으나 권한의 분산으로 추진력이 저하되거나 지자체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이 곤란함
- 우리 나라의 외국인투자 관리·유치체계는 외국사례와 비교해볼 때 외국인 투자유치조직과 지원조직이 이원화되어 있어 대외적으로는 KISC와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투자유치체계를 천명하고 있으나 인허가 및 인센티브 결정 등 실질적인 권한은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분권화 된 유치체계의 도입은 지방자치의 정착, 정부부문의 축소 등 전반적인 분권화가 이루어진 후에 가능할 것임. 따라서 바람직한 외국인투자 유치체계는 단기적으로 중앙정부주도의 유치체계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단위의 유치체계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제로 지자체들의 외국인투자유치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으며, 따라서 광역권에 포함된 지자체들끼리 「지역개발기구」를 설치하여 개발협의체 형태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개발의 계획, 평가, 실행을 담당하는 지역개발의 주체로서 가능토록 하여 장기적으로 지자체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광역권 단위의 개발계획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대전이 가지고 있는 과학도시, 충남·북의 첨단산업지역으로서의 중부권의 독자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테크노마트와 첨단산업의 국제전시회를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표6-3] 외국인투자유치 체계

구분	중앙정부 주도의 강력한 유치체제	지역의 needs에 기초한 분권화된 유치체제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적 외환위기 해소 • 자본시장의 국제화 대응 • 산업구조의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의 필요에 부합하는 기업·업종의 선정 및 유치전략 구사
유치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금융자본 • 대규모 다국적 기업 • 첨단기술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및 생산, 세수증대 효과가 큰 기업
전담조직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자유치지원센터(KISC)조직을 별도기구로 독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권 단위의 지역개발기구 설치 • 중앙부처, 자치단체는 지원기능 담당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차원의 정책 조정력 및 추진력 제고 • 접점부서와 지원부서의 통합 • 신속한 정책의사 결정 간능 • 기존의 국내 법·행정체제 및 관행과 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단위의 경쟁적 유치체제 확립 • 지역발전의 수단으로서의 외국인 투자정책 운용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자료 : 박용규외 2명,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삼성경제연구소, 1999. 5.

나. 외국인투자 유치전략의 수립

- 외국인투자정책의 수단은 외국인투자정책의 목표 달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목표와 맞게 수립되어야 하며, 지자체의 외국인투자유치의 목적은 지역의 고용창출, 낙후지역 경제개발,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에 있다면 투자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비례하여 혜택을 받는 조세인센티브와 같은 사후 인센티브 조정효과보다는 진출 초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조금과 같은 금융인센티브제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자체는 자본뿐만 아니라 신규고용 창출, 신기술 도입, 생산설비의 설치를 수반한 신규투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투자유치를 시행하고, 보조금, 신용보증, 보험가입 우대 등과 같은 금융인센티브의 차별화를 통한 유치전략이 바람직함

- 지자체가 외국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제의 구축과 실천수단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며, 독자적인 금융지원, 지방세 감면, 고용지원 등을 실시하고, 미분양공단의 소유에 따른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분양방식의 채택과 특색 있는 유인시책이 필요함

다. 외국인투자 지원제도의 개선

- 외국인투자지역 조성기준이 투자금액과 고용규모로만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지역별 외국인 투자여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낙후지역의 경우 해당기준을 만족하는 사례가 적음
 - 외국인투자지역 조성기준 : 외국인 투자금액 1억불 이상, 투자비율 50% 이상 그리고 1천명 이상, 5천만달러 이상 그리고 500명 이상
- 총 생산량, 원자재의 지역 내 조달비율, 지역중소기업 연관효과, 세수증대효과, 산업구조전환효과 등 지역지정기준을 다양화하여 지역단위의 독창적인 전략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함
- 조세감면 대상업종이 주로 첨단산업분야에만 한정되어 있고 단서조항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하여, 낙후지역인 경우 지역 내 사양산업의 대체 또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나 조세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됨. 따라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투자효과 분석팀에 의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외국인 투자유치의 인센티브의 종류가 법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유인책으로 한계가 있음. 따라서 투자완료 이후 생산액에 따른 생산보조금, 고정자산에 대한 세금감면, 마케팅 및 시장개척 보조금, 낙후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설치보조금 등을 도입 지역개발과 연계한 다양한 인센티브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국제규범상 연구개발, 지역개발, 환경보호 목적상의 지원 등은 허용되나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다양한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용도로 명시해야만 마찰을 피할 수 있으나 지방정부가 관할구역내에서 차별성 없이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은 제재가 없으므로 지방정부가 인센티브 제공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함

라.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

- 우리 나라의 투자유치 체계는 투자유치 조직인 KOTRA의 KISC 및 지자체와 지원조직인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이원화되어 있고, 원스톱서비스 체계는 주로 인허가 등 행정적 절차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 머물고 있어 투자촉진을 위한 체계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투자유치와 지원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하여 실질적인 권한행사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또한 효율적인 투자유치 체계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원-스톱서비스의 내용이 확충되어야 함
- 예를 들면, 투자지원센터에서 지자체의 관할 부서로 민원서류를 이송할 경우 다시 담당 부서별로 관할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내부적인 프로세스가 복잡하여, 일괄처리민원사무를 직접처리민원사무로 전환하여 투자지원센터-지자체-관할중앙부처가 동시에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또한 원-스톱서비스가 투자촉진을 위한 체계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등 필수적인 절차 이외에 입지탐색, 사업타당성조사, 마케팅활동 지원, 기술 및 연구인력의 주거 및 생활환경, 투자자의 사후관리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우리 나라에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 나라에 대한 투자장애 요인인 외국인비용을 극복하고 투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효율적인 투자자관계관리 체계가 없었다고 볼 수 있음
- 구체적으로 투자환경의 개선뿐 아니라 홍보, 유치활동, 행정서비스 개선 등 투자자관계관리의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투자자관계관리와 관련된 이

제 6 장 충남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전략

미지창출 활동, 직접투자창출 활동, 사후서비스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개발
팩키지형태로 제공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짐

[표6-4] 효율적인 원-스톱서비스 체계

구 분	내 용
기반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매체 및 인터넷 광고 • 투자박람회 개최 및 참가 • 투자사절단 파견 및 투자설명회 개최 • 기업인 단체 및 협회 등에 대한 방문설명
투자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우편 및 텔레마케팅 • 목표기업 선정 및 방문, 인터뷰 등 • 투자희망기업에 대한 컨설팅 • 시장조사 및 입지탐색서비스 • 인허가 등 일괄처리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직원에게 대한 거주환경 편의 제공 • 재투자 및 증액투자 유도 • 경영단계에서 애로사항 처리 • 마케팅활동 지원 • 부품공급업체 알선

자료 : 박용규외 2명,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1999. 5.

-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은 크게 인지(attention), 이해(understanding), 판단(decisionmaking), 실행(action)의 4단계로 구성됨
- 인지단계 : 투자유치이벤트 개최 등의 홍보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기회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
 - 이해단계 : 투자가들에게 이윤기회를 확신시키고, 투자관련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정보와 대안을 제시하는 상세한 프로젝트분석 자료를 제공
 - 판단단계 : 투자자는 구체적인 절차, 제도 및 기타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 판단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이 단계의 담당자는 전문성과 권한을 갖고 해답을 제공해야함
 - 실행단계 : 돌발적인 문제발생에 대해 고충처리팀이 시안별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함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 여기서 투자가가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이해단계라고 말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지자체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수익성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전문성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투자유치 사업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타당성조사 관련 서비스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감당하기 힘든 과제이므로 외부용역이나 바운티/로열티 방안의 수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바운티/로열티(Bounty/Royalties)계획 :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에이전트에게 조사를 대행시키고, 투자가 성사되면 투자성사에 도움을 준 에이전트에게 타당성조사 비용 외에 투자자금의 일정비율을 사례금(bounty)으로 지불함
 - 한편 정부는 성사 후 처음 몇 년 동안 투자로 인한 생산액의 일부를 투자성사에 도움을 준 에이전트에게 로열티 명목으로 지급
- 실제로 충청남도에서 선정한 외국인투자 유치 대상사업들은 아산 온천관광지, 죽도관광지 조성 등 관광단지와 산업단지 분양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경제적 타당성 조사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마. 외국인투자 유치기금 운영

- 지자체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시 중앙정부가 matching fund 형식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는 이에 대응한 기금 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leverage 방안의 도입 등 인센티브 지급방법의 다양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leverage 방법은 중앙정부에서 연간 가용한 보조금의 총액을 정하고 지자체별로 사용가능금액을 결정한 후 가중치의 기준비율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제4절 투자유치 홍보활동 강화

- 현재 충남의 홈페이지는 외국인기업에게 충남의 단순한 투자환경의 소개하는 소극적인 유치전략을 취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외국인투자자들이 홍보·접수단계, 등록정보단계, 투자결정단계, 투자 후 사후관리단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시홍보체제 구축이 필요함
- 충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충남의 투자환경 등 긍정적인 요소와 지원제도, 투자유치에 대한 장점과 매력 등에 홍보를 하고, 구체적으로 내실 있는 시장규모, 높은 교육수준과 기술력, 높은 노동생산성, 인프라 현황 그리고 복합민원에 대한 one-stop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개별 외국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홍보활동을 강화
- 외국인투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관련 통계(투자액, 부가가치, 고용, 생산, 수출입, R&D)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수집·분석하여 투자유치에 활용해야하고, 지역 내 투자유치 대상사업들에 대한 피상적인 여건만을 나열하지 말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업타당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
- 또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충남의 투자유치단을 해외에 파견하고, 또 충남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을 초청하여 투자설명회를 갖는 적극적인 수단을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관련 기관들과의 협조아래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동시에 충남의 독자적인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화된 첨단산업 위주로 전시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투자자와 관련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확보하여 정책과제 발굴 및 대 주민 홍보에 활용
- 미국상공회의소 등 외국인들이 정보교환과 상호친목을 하는 정보의 要路에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외국인투자 유치관련 지역홍보자료, 관련정보 등을 적극 제공함으로써 충
남지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 우리 나라는 '97년 말 IMF 금융위기를 계기로 외국인 투자유치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또한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통합화에 따라 각 국가와 지방정부들은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선진기술 습득, 고용창출,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해당 지역들의 경제성장과 국제분업생산체제에 진입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에 경주하고 있음
- 이에 세계 각국과 지방정부들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이 여러 측면에서 동일화되고 있어 국가 및 지역간의 차별화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투자유인정책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정책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신축적인 투자유인정책이 더욱 중요함
- 그러나 우리 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치체계는 외국인투자 유치조직과 지원조직이 이원화되어 있고, 대외적으로는 KISC와 지자체가 투자유치의 중심이 되는 유치체계를 갖고 있으나 인허가 및 인센티브 결정 등 실질적인 권한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어 외국사례와 비교해볼 때 투자유치체계가 말레이시아와 같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강력한 유치체계와 영국과 같은 지방 분권화된 유치체계 사이에서 position이 불명확함
- 이에 외국인 투자유치 목적의 혼선을 야기하게 되고, 이는 정책 목표와 수단간의 부적합성을 초래해 현재 외국인투자 유치체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특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유치협상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의 법·제도하에서는 실질적인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어 지역특성을 고려한 신축적인 유치전략을 펼 수가 없는 실정임
-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성숙단계에 들어가고, 충남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분업체제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의 유치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과제로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충남은 외국인투자 유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함

○ 세계화에 부응하는 지역경제환경 조성

- 외국인투자 유치를 장기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과 공무원들이 국제적 감각과 의식을 갖추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수준의 국제교류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을 적극 활용해야함
- 외국인투자 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충남도청의 국제통상국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공무원들의 국내외연수, 해외파견 및 유학 등을 활성화시켜 국제통상교류 확대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성 습득에 초점을 맞춰 외국인 투자유치를 담당할 인재를 양성
- 충남 자체의 해외조직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중앙정부 관련기관 및 해외기관과의 지속적인 정보교류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들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산업기반과 연계한 특화산업 육성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 충남은 조립금속제품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플라스틱제품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등의 특화도는 꾸준히 증가하여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부상되고 있으며,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업, 의료 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업, 음식료품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업, 조립금속제품업, 비금속광물제품업 등이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이 특화된 산업과 관련된 외국인기업들을 target으로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함
- 지역내 기존의 저기술산업, 노동집약산업을 첨단산업,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는 기술고도화 정책을 추진

○ 외국인투자 유치기반 조성

- 충남은 현재 계획 중인 각종 사회간접시설 구축계획이 완성되면 광역교통체계 및 유통체계는 매우 호전될 전망이나 지역내 간선도로 및 교통망의 개선이 시급함
- 천안외국인공단은 임대전환으로 분양이 완료되었으나 외국인이 와서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생활 및 문화적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천안을 비롯한 기업의 사

업환경이 뛰어난 지역을 선정하여 국제수준의 생활 및 문화여건을 갖추어 줌으로써 지역 국제화의 선도적인 도시로 육성

○ 외국인투자 유치체계 및 제도 개선

- 광역권 단위의 지역개발기구 설립 : 현재 실정으로는 단기적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강력한 외국인투자 유치체계의 유지가 필요하나, 지방자치제가 성숙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개발기구 설립을 통한 지역단위 중심의 유치체계를 지향
- 외국인투자 지원제도의 개선 : 우리 나라는 투자유치조직과 지원조직이 이원화되어 있고 인센티브 결정 등 실질적인 권한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어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신속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인허가 및 인센티브 결정 등 실질적인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여 유치협상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법·제도의 개편이 필요
- 실질적인 원스톱서비스 제공 : 투자지원센터-지자체-관할중앙부처가 민원사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치치활동, 행정서비스, 투자자의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원스톱서비스 제공

○ 외국인투자 유치기금 운영

- 현행 matching fund 방식의 지원방법으로는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는 자기부담액의 조달이 매우 어려우므로 이에 대비한 투자유치기금을 조성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매칭비율을 지자체의 재정 및 산업경제여건 등에 근거한 차등화하는 방안이 필요

○ 투자유치 홍보활동 강화

- 인터넷망을 통해 지역의 단순한 자연지리적 투자환경을 소개하는 소극적인 유치전략에서 벗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홍보·접수단계에서부터 투자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
- 투자유치단의 해외파견, 투자설명회, 지역의 특화된 첨단산업 위주의 국제전시회 등을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개최 지역의 독자적인 이미지 구축

참 고 문 헌

1. 박승록, “한국경제성장의 국내요인과 해외요인,” 한국경제연구원, 2000.
2. 장윤종,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민경제적 영향과 향후 정책과제,” 자의누리 사이버강의, 1999.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 ; 외국인투자,” 1998. 12.
4. 산업연구원, “충청남도 산업진흥 실행계획 ;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3각 테크노벨트 조성방안,” 2000. 12.
5. 천안경제연구소, “충남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전략,” 1999. 1.
6. 박용규 · 송영필 · 강신겸,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삼성경제연구소, 1999. 5.
7. 박삼욱 외 4명, “경제구조조정과 산업공간의 변화,” 한울아카데미, 1998. 2.
8. 이세구, “서울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7.
9. 박인호, “부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정책의 실천 프로그램,” 부산발전연구원, 1998. 4.
10.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외자도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97 지역경제 심포지엄, 1997. 1.
11. 강석인, “외자도입과 한국의 경제발전,” 범신사, 1997. 1.
12. 박영규 · 송영필 · 강신겸,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삼성경제연구소, 1999. 5.
13. 외국투자지원센터, “1999년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활동 애로조사,” 1999. 12.
14. 이규방 · 김민철, “경제구조조정에 따른 민자유치 제도개선 방안,” 국토개발연구원, 1998. 12.
15. 건설교통부, “산업단지개발 지원제도 개선방안연구,” 1997.

제 7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6. 임성훈, “외국인투자 현황, 투자정책과 향후과제,” 외국인투자지원센터, 2000. 3.
17. -----, “외국인투자 정책의 전략적 접근,” 외국인투자지원센터, 1999. 9.
18. 외국인투자지원센터, “2000 대한투자환경 설문조사분석” , 1999. 12.
19. 이재득, “지역경제의 국제화와 부산의 외국인 직접투자 분석,” 부산광역시정책개발실, 1997. 9.
20. 이상훈,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연구” , 경기개발연구원, 1998. 9.
21. 노근호, “지방자치시대의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충북개발연구원, 1998. 3.
22. Blomstrom, M. and A. Kokko, “Home Country Effec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 Evidence from Sweden,” NBER Working Paper No. 4639, 1994.
23. Dunning, J., “Multinational Enterprises, Economic Structure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John Wiley Sons, 1985.
24. -----,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George Allen &Unwin, 1981.

■ 집 필 자 ■

한 무 호(韓 武 虎)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경제학 박사(경제성장론 전공)

기본연구과제 2000-02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유치전략

발 행 인 : 충남발전연구원장 황 용 주

인 쇄 일 : 2000년 12월 15일

발 행 일 : 2000년 12월 30일

발 행 처 : 충남발전연구원

320-912 충남 논산시 두마면 금암리 10번지 계룡출장소 3층

전 화 : (042)841-9053 팩 스 : (042)841-9452

인 쇄 처 : 필성인쇄사(042-252-168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ISBN : 89-89552-00-1 03330

<비매품>

제 7 장 결론 및 정책제언